

2009 봄 꿈틀꿈틀 세미나

나 도 몰 래 언 어 가
꿈 틀 꿈 틀 나 오 는
여 성 주 의 세 미 나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2009 봄 꿈틀꿈틀 세미나

나도 몰래 언어가
꿈틀꿈틀 나오는
여성주의 세미나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2009년 봄 꿈틀꿈틀 세미나

나도 몰래 언어가 꿈틀꿈틀 나오는 여성주의 세미나 목차

1주차. 힘내! - 反성폭력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수잔 브라이슨 / 인향 / 2003

- ▶ 성폭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 ▶ 기억이라는 행위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 제1회 反성폭력 문화제 기획단+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 / 2006

- ▶ 동행을 위한 치유의 일기
- ▶ 지금, 입을 열고자 하는 당신에게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제10회 여성제 기획단+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 2008

- ▶ 달빛 아래 빙글빙글
- ▶ 나의 공포, 나의 공간... 자취방
- ▶ 액션이 필요해! 1: 자방달 선생의 조언이 필요한 이컬의 기억
- ▶ 액션이 필요해! 2: 어찌저찌 애를 써도 파이트백을 못 하고 살지만 하고 싶어 죽겠는 여학생 J의 이야기
- ▶ 액션이 필요해! 3: 스트리트 파이터 송이송의 우당탕쿵탕 편지
- ▶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 -정치적 행위로서의 자기방어훈련」 오매 / 24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2주차. 물랐어? - 이성애중심주의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 동넙 / 2006

- ▶ 벽장 비우기: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와 이성애주의

「엠 아이 블루?」 메리언 데인 바우어 외 / 낭기열라 / 2005

- ▶ 거꾸로 추는 춤

3주차. 같이살자. - 가족

「쥬이쌍스, 그녀들의...심장」 / Saybooks / 2004

- ▶ 엄마에겐 세뇌가 필요해
- ▶ 결혼이란 로또랑 뭐가 달라
- ▶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또 하나의 문화 제17호: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또 하나의 문화 / 2003

- ▶ 화목한 가족이 뭐야

“가족을 벗어나 ‘관계’를 꿈꾸다” 이승민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설을 맞아 가족주의와 전선을 긋다 - 그들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관계에 저항하기” 최현숙 / 여성주의 저널 일다

4주차. 바꿔보아-여성노동

「언니네 방」 언니네 사람들 / 갤러온 / 2005

- ▶ 유능한 여자로 산다는 것

「언니네 태그놀이」 언니네트위크 / 또 하나의 문화 / 2008

- ▶ 찹찹: 사랑합니다, 고객님
- ▶ 커피: 좀 부탁해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권성현, 김순천, 진재연 / 후마니타스 / 2008

- ▶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건 모멸감이에요
- ▶ 살 자체를 다르게 구성하는 운동을 꿈꾸다

「곰들의 434일: 끝나지 않은 뉴코아노동자의 투쟁」 권미정 / 메이데이 / 2008

- ▶ 434일 뉴코아 투쟁을 돌아보며...

1주차,

힘내!

- 反성폭력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수잔 브라이슨 / 인향 / 2003

- ▶ 성폭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 ▶ 기억이라는 행위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 제1회 反성폭력 문화제 기획단+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 / 2006

- ▶ 동행을 위한 치유의 일기

- ▶ 지금, 입을 열고자 하는 당신에게

「Feminism i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 제10회 여성제 기획단+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 / 2008

- ▶ 달빛 아래 빙글빙글

- ▶ 나의 공포, 나의 공간... 자취방

- ▶ 액션이 필요해! 1:

자방달 선생의 조언이 필요한 이컬의 기억

- ▶ 액션이 필요해! 2:

어찌저찌 예를 써도 파이트백을 못 하고 살지만 하고 싶어 죽겠는 여학생 J의 이야기

- ▶ 액션이 필요해! 3:

스트리트 파이터 송이송의 우당탕쿵탕 편지

▶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 -정치적 행위로서의 자기방어훈련」 오매 / 24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1장 성폭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Surviving Sexual Violence

1장

1990년 7월 4일 아침 10시 30분, 프랑스 그르노블 외곽의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다. 눈이 부시게 화창한 날이었다. 속소에 남아서 프랑스 동료와 함께 원고 작업을 해야만 하는 남편 몸과 같이 나오지 못한 것이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따라 걷다가는 잠시 멈추어 염소를 쓰다듬기도 하고 길가의 야생 딸기를 따기도 했다. 그러나 약 한 시간 반 정도가 흐른 후, 나는 어두운 골짜기 아래의 흙탕물 속에 얼굴이 처박혀 있어진 채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있었다. 텃밭미를 붙잡혀 덤불 속으로 내동댕이쳐졌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 그리고는 성폭력이 시작됐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고, 내 운명은 오직 폭력을 휘두르는 그 사람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생각에 그 남자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말을 걸었다. 어떻게든 그의 인간적인 면에 호소하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았다. 그는 나를 창녀라고 부르며 입 닦치라고 했을 뿐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막상 성폭력이 가해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저항했다. 그 남자는 내가 저항하자 더 분노했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내 목을 졸랐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발목을 잡힌 채 골짜기 아래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예전엔 자주 꿈을 꾸면서 "이건 절대 꿈이 아니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의식을 찾았던 그 당시에는 "나는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계슈타프와 같은 갈라진 목소리

성폭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19

로 내게 바닥을 기라고 명령하고는 내 등 위에 올라타 또 목을 졸랐다. 목이 죄어오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동물적 본능으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내가 느꼈던 죽음의 공포를 여기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정말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이 들었고, 바로 그 순간 돌을 들고 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를 보았다. 그는 내 이마를 돌로 내리친 뒤 다시 한 번 내 목을 졸랐다. 그리고는 그렇게 나를 죽게 내버려둔 채 도망쳤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가까스로 골짜기 위까지 기어 올라와 한 농부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 농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의사와 앰블런스를 불러 주었다. 나는 그르노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신경 검사, 엑스레이 촬영과 혈액검사 그리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다. 내 머리카락 사이에서 나뭇잎과 작은 가지들이 중저물로 채워 있었고, 내 손톱의 일부분과 입안에 남아있던 분비물은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위해서 채취되었다. 나는 머리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고, 눈은 부어서 뜰 수가 없었으며, 목이 부러져 숨쉬기가 힘들었다. 의사는 내게 입원하고 첫 서른 시간 동안은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도 먹지 못하게 했다. 몸은 피가 말라붙어서 나무껍질처럼 변한 내 입술을 물수건으로 적셔주면서 고통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응급실에서 일인용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잠시도, 심지어 단 몇 초 동안도 혼자 있을 수 없었다. 그 남자가 결국엔 나를 찾아내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열마가 지난 후, 누가 내 사건 기사가 실린 지역 신문을 가져다주었는데, 기

사에서 내 이름 대신 가명을 쓰고, 내가 미국 사람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크게 안도했다. 입원한 지 열하루가 지나 퇴원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 남자가 나를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다. 그래서 병원기록에도 내 변호사의 연락처만을 남겨 놓았다.

사건 초기에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내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지만, 가해자가 체포되고, 보석이 불가능한 강간과 살인미수의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 자신도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 일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사람들에게 그때의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단지 실패당할 뿐했다는 말만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매우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이유가 뭘니까, 강도를 만난 건가요?"라는 식으로 꼭 되물었다. 내가 "아뇨, 처음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때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남자가 나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를 이해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 같으면 성폭력과 결부된 살인 미수 사건은 단순 살인 미수사건보다 더 많은 설

게 판단할 수 없다고 설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⁵ 그들은 인종 폭력이 그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면서, 학계의 일반적인 태도인 개인의 처지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과 “보편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그들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그녀의 친구적 저서인 『인종과 권리의 연금술 The Alchemy of Race and Rights』(1991)에서, 자신의 고조할머니가 열한 살 때 노예로 팔려와 주인에게 강간당하고, 결국 그 다음해에 임신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살면서 겪어왔던 일상적인 인종차별의 사례들을 설명해줌으로써, 인종 차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론적인 저작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쓴다면 자칫 자기중심적인 글이 될 것이라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쓰는 것이야말로, 보편성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켜왔던 학계의 풍토를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자들은 다양한 목소리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법학자들 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나를 포함해서 철학자들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목소리로 글을 쓰도록 훈련받아왔고, 자신의 이야기는 한쪽에 치우친, 학문적 담론에는 부적당한 것이기에 멀리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인종차별과 성폭력이 그 희생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끼쳤는가와 같은 주제들은 그러한 범주를 겪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자신들 스스로의 언어

과 같은 철학자가 왜 그렇게 쉽게 강간을 “승낙 없이 이루어진 정상 성행위”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강간은 그 본성상 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농담 삼아 강간을 이야기하는 현상, 강간을 미화하는 포르노그래피의 범람, 여성의 “싫어”는 “좋아”를 의미한다고 보는, 여성들은 사실은 섹스를 원한다고 보는 일반적인 태도 등이 그것을 보여준다.⁶

나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성폭력을 당했으며, 경찰과 병원 의뢰진들이 처음 봤을 때 외관상 너무나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내 말을 믿지 않는 다거나 또는 내가 먼저 유혹하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모욕을 당하지는 않았다. (많은 강간 피해자들이 이런 모욕을 당한다.) 그러나 병상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일들이 재판에서는 끊임 없이 문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나는, 사건 당시 더 이상 살기 위한 저항을 하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골짜기에 버려진 내 시체를 발견하고는 고통스러워할 통의 모습이 갑자기 스치면서 다시 힘을 내어 저항했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잠시 진술을 멈추고 진술서를 타이핑하던 경찰에게 눈길을 돌리곤, 진술서에 사건 당시 떠올랐던 남편의 모습을 포함시켜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말하며, 성폭행 사실을 자백한 가해자가 내가 먼저 유혹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내가 얼마나 남편을 생 각했었는지를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

로 말할 수 없다면 논의의 장에 올라올 수조차 없다. 해리스는 강간에 대한 자신의 논문에서 피해자 시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너무나 부주의하게도 “강간과 정상 성행위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강간당한 여성의 승낙 여부다.”라고 말하고 있다. (Harrison 1986, 52쪽) 하지만 절도나 살인과 같은 다른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 여부를 가지고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은 없다. 다음 같은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절도와 정상적인 선물 주기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물건을 뺏긴 사람의 승낙 여부다.” 어떤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절도를 “강제로 이루어지는 선물 주기”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살인과 관련하여도 우리는 살인을 “승낙 없이 자행된 자살협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살인을 자살과 연관시켜 정의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살을 도와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고 (심지어 살인의 발생 빈도와 비교해도), 따라서 자살협조와 같이 드문 일을 가지고 살인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상할 뿐이기 때문이다. 절도를 선물 주기와 연관시켜 정의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선물을 주기가 아마도 절도보다는 널리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적어도 대학 사회에서는), 그래도 절도를 승낙 없이 이루어진 선물 주기(혹은 강요된 자선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이상하게만 들린다. 절도와 살인 두 가지의 예에서, 우리는 그 범죄들을 구성하는 물리적 행위들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침해의 개념이 벌써 들어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해자가 절도나 살인을 승낙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해리스

했다. 상황은 심각했고,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나는 우스꽝스럽게만 한 그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날 아침 내가 입고 있던 헐렁한 청바지가 그렇게 유혹적이었을까? 혹은 내 목격한 스웨터가 그를 유혹한 것인가? 아니면 미치도록 유혹적인 나의 조깅화 때문이었나? 그것도 아니면 단지 내 마음 기는 데로 즐겼던 산책이 그의 살인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걸까?

여덟 시간에 걸친 진술이 끝난 후, 그 경찰직원은 내게 진술서를 읽어보고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진술서의 시작되는 부분을 보고는 너무 놀랐다. “comme je suis sportive...” (나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왜 그날 아침에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찰직원이 덧붙인 말이었다. 그때 나는 “아뇨,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철학교수입니다.”라고 항의하기에는 너무도 지쳐있었고, 또한 그 경관이 잘 판단해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날 저녁 가해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임원이 끝나갈 무렵에 나는 두 번째 진술을 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와 함께 내 사건을 담당할 판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식적으로 내 사건은 형사기소가 되어있었지만 (내가 아닌 국가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의료비상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하라는 충고도 있었고, 재판과정에서 나에게 프랑스 법률 체계를 설명해줄 사람도 있어야 했기에 나는 변호사가 필요했다. 변호사는 내 사건은 “조건이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

은 1년 안에 개정될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은 가해자 측 변호사의 연기 전략으로 범죄가 발생한지 2년 반이나 지나서야 열렸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가 정신이상이라는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프랑스 형법 제 64조에 따르면 만약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정신이상이었다고 판정되면 법적으로는 중범죄도 경범죄도 ni crime, ni delit 성립될 수 없었다. 어쨌든 배심원들은 피고 측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자의 강간과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결국 모든 것은 사실대로 밝혀졌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내 경험은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보다는 편찮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둔감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지를 어쩔뿐이나 말할 수 있었다. 한 예로, 나는 그르노블 병원에서 퇴원하기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서 재판에 필요한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었는데, 처음 간 병원에서는 안내직원조차 없는 사무실에서 전에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두 명의 남자 의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옷을 벗겨야 되니 방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하고는, 입고 있을 병원가운을 달라고 요구했다. 대략 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나를 고깃덩어리 취급하면서 타박상의 개수를 세고 다른 상처들을 살펴보며, 마치 시체를 부검하듯이 내 몸을 조사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죽고 난 후, 내 몸을 빠져나온 나의 혼이 내 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 많은 일들의 첫 시작에 불과했다. 상상조차 못할 일을 당하고 나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자신이 생생하게 지

상처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폭력이 일어나는 세상이 바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깨달음으로부터는 애써 피하려 하며, 그래서 그들은 폭력의 피해자와 공감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로 하여금 폭력의 피해자의 파괴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상상해본다면, 자신들만은 안 전할 것이라는 환상, 삶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의를 가진 많은 사람들조차도 자신들만큼은 성폭력에서는 예외일 것이라는 면제 신화에 빠진 채, "그런 일은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라거나 "어찌되었건 당신이 실수를 했군요."와 같은 부주의한 말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내가 법률 조언을 얻고자 통화한 적이 있는 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원은 그녀 자신은 한번도 성폭력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늦은 밤에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환한 대낮에 갑작스럽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말할 때까지 그녀의 너무나 긴 혼례는 계속되었다.

우리는 폭력의 피해자와 공감하라고 배우지 않는다. 범죄소설이나 탐정영화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매혹적인 주인공은 악당이거나 아니면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이

각한 것도 믿지 못하게 된다. 두 명의 의사로부터 시체 취급을 당하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내가 실제로 여기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래, 나는 그 골짜기에서 죽었잖아." 한때는 내게 삶과 죽음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성폭력이 있을 뒤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유령을 달고 다녔다. 나는 죽었고 세상은 나 없이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는 살아있지만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서 차츰 건강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어쩔지 정해진 내 삶을 넘긴 채 그저 주어진 삶을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했다. 나는 아파트에 앉아서 상처 입어 흐릿해진 눈으로 몇 시간 동안 밖을 응시하면서, 로버트 로웰 Robert Lowell이 최근에 미망인이 된 어머니의 감정을 묘사한 시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녀는 기차에 머무는 것처럼 /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친 채로."7

강간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방법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이러한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내가 배워왔던 것들을 거부하기로 했고, 한편으로 이러한 나의 태도는 성폭력 이후 느껴왔던 내 삶의 비현실성을 점점 키워만 갔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식을 거부하기로 한 결심은 상처받지 않은 관찰자의 세계관을 버리고

다. 반면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는 단순한 수동적 구실에 불과한 피해자는 초반에 적당히 처리되거나 잊혀진다. 우리는 주인공이 악하든 선하든 관계없이 그의 힘과 능력에만 우리를 동일시하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피해자의 처지에 놓이는 것은 오직 악몽에서 뿐이다. 어떤 이들은 클라렌스 토마스 Clarence Thomas 판사가 그랬듯이,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교도소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신의 은총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구나."8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처한 운명에 대해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일은 내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왜 피해자에 대한, 특히 강간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줄 것이다. 강간 피해자들은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강간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국가가 최근에 이것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언론을 향해서 사생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직업, 가정, 배우자를 잃게 되고 이에 덧붙여 엄청난 돈과 시간, 편히 잠잘 수 있음, 자아 존중감,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게 된다.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는, 우리 모두가 이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삶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리고 예전에 누리던 즐거웠던 삶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만약 어떤 여성이 도무지 예상치 못한 성폭력을 당했다면, 그녀는 미래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성폭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도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말이기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다. 내 친구 중 누군가는 도박꾼의 오류에 빠진 채, "내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불운을 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확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라고 말했다. (마치 운명은, 전적으로 자비롭지는 않지만 공평하게도 지금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내겐 가장 편할 것이라 생각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는 내게 카드를 보내왔는데, 첫 번째 카드에는 내가 당한 일은 나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단지 힘내라는 의미로 "행복의 파랑새"만이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카드에는 여름 풍경 같은 매우 화창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태양이 참 좋지? 바람이 참 좋구나. 모든 것이 다 좋지?"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예상했어야만 했던 것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통의 전화 를 받고는 서로 부둥켜안고 흐느껴 울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 주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당신들의 고통이 내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지금에서야 알 수 있게 된 부모의 고통은 내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몇몇 신앙심 깊은 친지들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살아

로는 단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만 하면 편찮을 테니까 말이다. 성폭력을 겪고서 얼마 동안은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했다. 만약 아이가 있었더라면 그 아이는 자신을 보호해주어야 할 부모가 부모 자신조차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채 자라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톰이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우리의 계획을 상상하며 얼마나 즐거워했는지가 떠오를 때면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시 임신을 상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일조차 내겐 너무 힘들었고, 또 만약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 지루한 불평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처음 몇 달의 회복기간 동안은 내가 지속적인 위안을 - 비록 그것이 잘못된 위안일 수도 있지만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겠다고 짐작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사건이 있는 직후 플래시백과 flashback,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재현되는 것의 체험을 말한다. 플래시백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시의 이미지와 감각을 그대로 느끼는 동시에 극적인 운동 반응을 보이게 된다. :역자주) 악몽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서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수면제의 약효는 내가 정신적 충격을 진정시킬 달콤한 환상에 빠진 채 잠들 수 있을 만큼은 지속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복용했던 수면제만큼 지속되지 못했다. 사건 이후 처음 몇 달 동안 친한 친구들, 형제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었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사실을 알게 된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빴으나, 내가 견뎌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인정하긴 했지만,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한 친척 아주머니는 그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한 통의 편지나 전 화도 하지 않았다. 단지 뒤늦은 생일 축하 카드를 보냈을 뿐이다. 그 카드에는 나의 "끔찍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몹시 마음 아프지만,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강해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확신한다."라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써 있었다. 이처럼 악의 존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은 내가 견뎌야 했던 두려움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그와 같은 의미 없는 폭력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그 노력이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이다. 나 또한 내가 겪은 일과 관련하여 때로는 감사드릴 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면서 감광필광 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당시에는 나 스스로를 비난할 만한 일이나 남에게 비난을 들을 만한 경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분별없다고 여길 만한 행동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앞으

대부분의 친척들은 사건 직후는 물론 나의 입원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전화나 편지 심지어는 회복을 바라는 카드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만약 내가 병장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면 패유를 바란다는 소식을 보냈을 너그럽고 다정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건 초기에 보여준 무반응은 내겐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무반응이 자기 방어적인 부정의 결과인지 즉, 도저히 일에 답을 수 없는 일을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강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금기들로 인해서 즉, 트라우마를, 폭력을, 섹스를 내놓고 말하는 것을 막는 여러 금기들이 서로 맞물려서 강간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막고, 피해자의 후원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우리에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담을 어휘가 부족하고, 강간에 대해 말할 때 느껴지는 거부감을 완화시킬 만한 사회적 관습도 없다. 로날드 드 소사Ronard de Sousa(1987)는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적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지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 대해서 설득적으로 쓰고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 강간에 반응해야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 이러한 무지함의 전형적인 결과는 강간 피해자들에게는 당황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종

중 피해자에게 잘못된 혼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복기에 서 분노의 단계에 접어들자, 나는 부모님에게, "왜 친척들은 전화나 편지도 없는 거죠? 왜 오빠는 전화 한 통 없는 거죠?" 라고 불평을 했다. 부모님은 "그 사람들은 관심과 걱정을 우리 에게 나타냈단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 지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원치 않더구나." 라고 대답하셨다. 친척들은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으며, 나에게 무관심한 그들의 태도가 내게는, 사실은 나는 벌써 죽 었고 일부러 아무도 나의 장례식에 오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몇 달이 지나니 동안, 나는 분노를 느꼈고 두려움에 질렸으 며 무기력했다. 그날의 성폭력의 책임을 내 자신에게 돌리려고 도 했다. 성폭력을 당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기만 하면 내가 성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 같았고, 또 맘만 먹으면 앞으로는 성폭력을 피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성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왜 성폭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자주 자 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 나 그들은 피해자가 마조히즘의 성적 취향을 가졌거나 또는 피 해자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못해서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 자신에게 돌린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다. 그들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 지 못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 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

대상에게로 향했다. 나의 분노는 넓게 퍼지면서, 다시 삶을 살 아가야 한다는 록록 우시는 고통스러운 신호를 내게 보내왔다. 나는 내게 일어났던 일을 절대로 받아들이 수가 없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다 른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들의 삶을 계속 살 아 갈 수 있었을까?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몸은 자 신의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학생들을 만나고, 동료들과 수 다를 떨 수 있고... 왜 그는, 내가 두려움 때문에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 강좌를 듣기 시작한 뒤에야, 가 해자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그를 향한 적절한 분노는 공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책 대 무기력이라는 이중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정치적인 힘과 함 께 육체적인 힘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맞서 싸우는 것을 배우는 일은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맞서 싸우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당화된 그리고 치유의 힘을 가진 분노를 경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리스 영 Iris Young이 자신의 에세이 「소녀 처럼 야구공 던지기 Throwing Like a Girl」에서 "성차별적인 사회 에서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다." 라고 말했듯이, 우 리는 제한된 삶의 공간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맴돌고, 우리 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강인함을 일상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 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Young 1990, 153쪽) 우리는 삶의 공간을 제한 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는 것과 스스로를 방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뭔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믿을 때 훨씬 덜 고통스럽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이후를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그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이 도무지 예상치 못한 성폭력이었던, 아니면 그녀가 속한 집단에 대한 증오의 형태로 발생한 예상할 수 있었던 성폭력이었던 간에 말이다. 만약 프 랑스의 어느 길에서 성폭력을 당한 그 여자가 내가 아니었다 면 뒤따라오면 다른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령 내 남편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는 안전했을 것이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 결국은 내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았지 만, 그렇다고 가해자를 비난할 수도 없었다. 몸은 그 남자를 죽 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알게 된 다른 강간 피 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해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전히 내게 존재하는 두려 움 때문에 분노하기가 불가능했던 것 같았다. 가해자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남자를 떠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성폭력을 당하던 당시의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렇기 때문에 회복 초기 단계의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가 수사학 제1권에서 말했듯이 "누구도 도저히 복수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분노를 키우지 않으며, 우리보다 훨씬 더 험센 사 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작게 분노하거나 또는 조금도 분노하지 않는다."⁹ 가해자에게로 향하지 못한 나의 분노는 여전히 그대 로 있었지만, 그것은 내 가족이나 친한 친구같이 보다 안전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한다. 나와 함께 자기 방어 강좌 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단순히 "싫어!"라고 외치는 것 을 제일 힘들어했다.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맞서 싸우는 대신에 가해자를 설득하고 그에게 호 소하라고 배워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강간을 저지하 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졌 다. (Bart and O'Brien 1984)

내가 수강했던 자기방어 강좌의 강사였던 린다 램지 랜슨 Linda Ramirez Ranson은 내가 플래시백과 두려움을 가로지르는 힘든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내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인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 한 과정을 마친 후 다음 단계의 수업에서 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온 학생을 보았다. 이 여성이 장애가 주는 고통과 싸워야만 할 뿐 아니라 더해서 강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를 걱정해 야만 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두 러움의 한 면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나도 그녀 와 마찬가지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 장애는 내 눈에 이상이 생겨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장애가 아니라, 내 머리 뒤에 눈이 달리지 않아서 뒤를 볼 수 없다는 좀더 심각한 장애였다. 또다시 뒤에서 공격을 당하 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길을 걸을 때면 의식적 으로 어깨 뒤를 훑고거리며 멈춰서고 발걸음을 갑자기 돌리기 도 하면서 나의 장애를 극복해보려고 하였고, 이런 행동은 나 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

이게 했을 것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것인가를 배우면서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찾은 삶은 바뀌어버린 삶이었다. 역설적인 삶. 난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으나, 강해진 만큼 더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도 느껴졌다. 또 나는 이전에 는 느낄 수 없던 감정,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싸움을 할 수는 없다는 단호함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하투에도 몇 번씩은 낮잠을 자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친구들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뉴스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플래시백을 폭발시켰다. 그 뉴스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속에서 진행된 센트럴 파크 조깅 사건 재판, 세인트 존의 집단강간 재판, 1990년 10월 보스턴에서 일어난 킬빌 레이 하비의 강간 살해 사건, (피해자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미디어는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American Psycho'와 관련된 논쟁들, 걸프 전쟁, 케네디 강간 사건, 타이슨 재판, 하버드 스퀘어 근처에서 일어난 법학교수 메리조 프러그 Mary Joe Frug 살해 사건, 두 명의 다트머스Dartmouth 대학 여자 대학원생 도끼 살해 사건 (피해자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흑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신문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끔찍한 경험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지만, 이와는 달리 강간 피해자들은 자신

들의 비참한 삶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급격히 해체되는 자신의 세계를 홀로 마주할 뿐이다. 나는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 Stress Disorder, PTSD의 모든 징후들 (자아 분열, 플래시백, 필요 이상의 경계심, 과장된 놀람반응, 불면증, 집중력 장애,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적어지는 현상, 나의 미래가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¹⁰ 나는 도시에서 폭력에 노출된 채 자라나는 아이들이 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를 비로소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는 항상 발전 지향적이었고 늘 미래를 계획했었지만, 성폭력을 당한 후로는 앞으로 있을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계획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 홀로 버려진 듯한 매일 매일을 어떻게 버텨야만 하는지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글을 쓰거나 다시 철학을 가르치게 될 거라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는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반적인 인간경험 범위 밖의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부분적인 설명을 한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까스로 나의 끔찍한 경험을 전달할 적절한 단어들을 찾아내고 힘을 냈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관한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들은 한 친구가 내게 기

운을 내라고 재촉하듯 격려했던 것처럼, 내게 단지 "기운 내!"라는 말만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트라우마 생존자는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만 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다시 트라우마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야말로 트라우마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나는 다시 끝짜기에서 혼자 남겨져서 두려움에 질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하지 않았다. 혹은 더 나쁜 경우지만, 내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도와주려 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그들도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데는 시간과 인내, 무엇보다도 생존자로서의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나는 회복에 대한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겪었던 일을 점차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 속으로 통합시키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상당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여성 폭력 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의 제정을 촉구하는 일과 같은 정치적 행동들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마침내 1994년 의회에서 통과되었다.)¹² 점차 일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1년 가을, 나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처음으로 내 연구실로 나를 찾아온 학생은 자신이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해 봄, 네 명의 다트머스 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지적경찰은 보고했다. 이 보고서의 여파로 학교의 여학생들은 위험에 처할 때는 머리를 쓸 것, 방문을 잠글 것, 어두워진 다음에 남성의 보호 없이는 밖으로 나오지 말 것 등의 주의를 들었다. 여학생들이 받은 충고는 그러니까 이것이었다. '명청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대학 당국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규제하거나, 여성들에게 남성 보호자를 붙여주는 것으로 여성들을 "보호"하려 하기는 했지만, 여성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꺼려해 왔다. 대학 당국에 대한 몇 달에 걸친 로비 끝에 우리는 여성의 자기방어와 강간예방 강좌의 개설을 성취할 수 있었다. 1992년 겨울에 체육교과과정 중 하나로 여성의 자기방어와 강간예방 강좌가 개설되었고, 백여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그 강좌에 등록하였다. 그러나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당국이 이 강좌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는 체육교과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나는 그 강좌에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안Title IX'의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다. -비록 미식축구팀 선수인 남학생들에게 체육학점이 부과되는 것은 교육개정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개정에 사실상 체육 수업에서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예외규정이 만들어지고, 대학이 매학기마다 남성의 체력과 필요에만 부합하는 그래서 사실상 남성에게만 선정되는 몇 개의 호전적인 무술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말이다. 학장은 나에게, 비록 여성의 자기방어 강좌에 학점을 허용하는 것이 교육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모든 합리적인 남성과 여성이 좋은 정책으로서 지지하고 있는 우리 대학 학칙의 반차별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합리적인 여성"이 아니라는 학장의 암시는 철학교수인 나에게도 도무지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결국 나는 단성스포츠, 남성만의 사교클럽과 여성만의 사교클럽 그리고 임신휴가 등은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성차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유독 여성의 자기방어 강좌는 성차별적인 것으로 보는 학교의 입장을 비판하는 편지를 대학 행정위원회에 보냈다. 대학 당국은 결국은 자기방어 강좌에 체육교과에 학점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학 당국과의 힘든 싸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뉴욕타임스에서 한 기사를 읽고 또 한 번 절망했다. 그것은 "메디슨시의 위스콘신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들에게 강간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던 여성전용 차량 운행 서비스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학보조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기사였다.¹³ 위스콘신 대학의 학생처장은 19년 동안 여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밤 시간을 제공해온 여성 운송 공단The Women's

성들이 어두워진 다음에는 결어서 자신들의 이웃에게 가는 것을 피한다.(Gordon and Riger 1991) 1992년 봄에 처음 가르쳤던 여성에 대한 폭력 세미나에서, 남학생들은 수업의 여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 중에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기, 자동차의 뒷좌석을 체크하기, 밤에 혼자 걷지 않기, 집에 돌아와서는 벽장이나 작은 공간들을 살펴 보기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는 경악했다. 그리고 이것이 뉴잉글랜드 시골 캠퍼스에서의 "안전함"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일과 여가의 기회를 불공정하게 제한당하고 있지만, 몇몇 좀더 "위험한" 고용형태에서 (예를 들면, 바텐더)¹⁴ 여성을 배제해온 거부장적 법령은 고맙게도 군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성이 전투에 참여해도 되는지에 관해서 논쟁하고 있는데, 여성의 전투 참여를 금지하는 최후의 근거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폭력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군대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결프전에서 두 명의 미군 여성포로에게 가해진 추잡한 성폭력을 여성이 전투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¹⁵ 어쩌면 누군가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교해서 대학 안에서 성폭력을 당하기 더 쉽다는 점이야말로 여성이 고등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학 안에서 발생하는 강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비리그를 예전처럼 모두 남성만으로 채워야 된다고 제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

Transit Authority은 남성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남성 승객들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캐서린 매킨(Catharine McKinnon)이 "평등에 관한 우둔한 이론the stupid theory of equality"¹⁴이라고 말한 것의 한 예다. 여성을 위한 강간예방 정책을 남성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학건물을 개조하는데 돈을 쓰는 일은 장애인 편의시설로부터 얻을 것이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¹⁵

성폭력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겪어보지 않은 모든 여성들에게도 고통을 준다.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오랫동안 여성들을 그들만의 공간에 묶어두는 기능을 해왔다. 강간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복종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수잔 브라운밀러 Susan Brownmiller(1995)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간에, 모든 여성의 삶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의해서 제한받는다라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여성들은 강간의 두려움 때문에 남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가렛 고든 Margaret Gordon과 스테판 리거Stephanie Riger는 자신들이 쓴 책 『여성의 두려움 The Female Fear』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녀들에 따르면 전체 여성들의 50%는 강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진 다음에는 대중교통수단을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남성과 비교해서 거의 8배 이상의 여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남성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야간 통행금지의 임박화를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들의 삶을 제한할 때에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지표다. 여성들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나 -대낮의 길거리, 심지어 그 녀의 집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도-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성폭력 이후 몇 달 동안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알아낼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내가 편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쁘게는 내가 철학을 연구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 나의 철학 연구가 인정받지 못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겪은 일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 더 두렵다. 성폭력은 끔찍한 비율로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성폭력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그리고 끊임 없이 일어나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에 의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만약 매일 발생하는 성폭력이 한 순간 집중해서 또는 한 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도덕적 분노를 드러낼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경 우만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려 하는 것일까? 피 해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녀가 강간이 가해지는 동안 그리고 강간에서의 치유 과정 동안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과 성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성범죄의 일상성은 서로 결합되 어 성폭력과 그 여파를 더욱 끔찍한 것으로 만든다.

성폭력이 파괴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다 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심지어 성폭력 당시에는 전혀 가능해보이지 않았지만, 성폭력 이후에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 며 싸워나가는 생존자를 볼 때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모임 의 첫 번째 만남에서 내내 조용히 앉아있던 다정하고 엄마처럼 보이던 한 여인이 생각난다. 모임의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마 침내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한번이라도 고통이 멈춘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말해주세요?" 라고 물었다. 그 당시에는 나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어떠한 대답 에도 만족 할 수 없었다. 지금 나는 시간이 오래 흐르면 고통은 결국 상처내기를 멈춘다고 말할 수 있다. 성폭력이 있는 지 1 년 후, 나는 그 일에 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서 15분이 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기뻐했다. 지금 나는 플레 시백의 고통 없이 1시간을 즐긴 보낼 수도 있다. 물론 그건 온 이 좋은 날이지만 말이다. 어떤 우울한 날에는 여전히 삶을 게 술 살아가야 할 적당한 이유들을 찾지 못한 채, 마치 죽은 사람 처럼 침대에 누워있을 뿐이다.

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회복 기간 동안 명석함 과 확신 그리고 결단력을 가질 수 있었고, 내가 다시 삶의 의미 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다른 많은 성폭력 생존자들과 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성폭력과 그 여파가 결국은 내게 좋은 일이었다거나, 또는 내 친척이 말해주었듯이 그 사건이 나에게 "신이 베푼 진정한 축복"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 는다. 나는 여전히 그러한 일이 내게 생기기 않았더라면 하고 바란다. 성폭력을 당하고 그 여파에서 회복되어가는 동안, 지 식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진리가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는 데, 철학자인 나에게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지식과 진리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은 때때로 우 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두려움 속으로 빠 저들게 만들고, 그래서 권잡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 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만 한 다고 생각한다. 니체가 "너의 적을 사랑하라. 만약 적이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권고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이다.

사람들이 내게 이제는 회복되었다고 물을 때면, 나는 그 회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대답한다. 만약 회복을 "내가 성폭력을 경험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인가?"의 뜻으로 물어본다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태양이 뵈나던 1990년 7월 4일, 프랑

우리 모임의 간사를 맡았던 앤 질린 Ann Gaulin은 첫 모임에 서 "여러분은 전과 같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본 명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나는 너무도 많 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항변했다. 나의 안전, 내 자아에 대한 존중감, 사랑, 일, 바로 지금은 잃어버린 그런 것들 때문에 나 는 행복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 단 말인가? 성폭력 생존자로서 그녀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꼈 을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는 아직 모르고 있는 다른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당신의 삶이 산산이 깨졌을 때, 당신은 그 조난난 삶을 다시 맞추려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당신 은 깨진 삶을 다시 맞추기를 멈추고, 그 삶이 당신에게 어떤 것 이었는지 돌아볼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더 이 상 이전 원치 않아' 혹은 '저건 할 수 있겠는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왔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 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추스를 수 있는 중 요한 능력과 통찰력을 얻었고, 더 이상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내 삶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폭력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사 실 화려한 축하 행진을 하지도 못하고 명예 시민증을 수여 받 지도 못했지만, 생존자가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살아 남았다는 것이 비록 나의 이력서에 기입 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취물이다.

성폭력이 있는 지 2년 후, 한 철학 토론회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에 관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나 는 성폭력의 여파로부터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참 많은 것

스의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노래를 부르던 사람과 지금 나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골짜기 바닥의 바위를 사이에 그 녀를 버려놓은 채 돌아왔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한 친구는 내 상황을 유대인의 관습에 비유하여 설명했는데, 유대인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관습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친구의 말이 내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트라우마는 나를 영원 히 변화시켰다. 만약 내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변한 것 을 인정해달라고 지나치리만큼 자주 강요한다면, 그것은 변한 나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회복의 의미가, 내가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내 삶 속으로 통합시킬 수 있고, 그렇게 내 삶을 제 속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면, 그렇다. 나는 회복되었다. 나 는 더 이상 "이전 절대로 나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라는 생각으로 매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나는 성폭력을 당했다. 비 록 자기방어 수업을 통해 세상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신감과 두 마리 커다란 개와 함께 오래 동안 신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성폭력을 또 다시 당하지는 않 을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도 나에겐 없다. 그렇지만 나는 때로는 심지어 지위를 즐길 수도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동네의 시골길에서 혼자 조깅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볼 때마다, 그녀가 혹시라도 무슨 일은 당하지는 않을까 소스라치게 놀라 지 않는다. 여전히 그녀에게 달려가 안전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 라고 충고하고 싶은 작은 충동을 느끼지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떠나보내는 것을 배우는 어머니처럼 자제한다. 그리고는 그녀가 언제나 걱정 없이 지내기를, 그래서 그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가정과 같이 평온하기를 바라면서, 그녀에게 마음속의 격려를 보낸다. 그녀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기억이란 하나의 행동이다.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행동이다.

피에르 자네(Pierre Janet)

기억이라는 행위

4장

Acts of Memory

"우리는 히틀러 이후까지 살아남기를 바랐다. 우리가 겪은 일을 말할 수 있게 될 그 날을 위해서."² 어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말이다. 도리 라웁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많은 증언을 듣고 또 생존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살피본 후, 트라우마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오직 자신들이 겪은 일을 말하기 위해서 살아남기를 원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겪은 일을 말해야만 했다."³라고 믿게 되었다.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말하는 것, 즉 자신들이 트라우마 사건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적어도 프로이트와 자네 이후부터⁴-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 트라우마와 이야기라는 주제에 관해 수많은 임상적·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하기가 트라우마의 여파에서 살아남는 데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트라우마 생존자는 기억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며 일반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생존자의 자아는 파괴된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들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결국엔 찾아내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된다. 트라우마 생존자는 자신의 트라우마의 기억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한 트라우마의 경우) 정면으로 통과하거나 또는 다시 다스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물건처럼 취급

급받던 존재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주체적 존재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전환은 트라우마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의 기억은 하나의 이야기로 전환되어 생존자가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생각과 세계관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는 공동체와 재통합될 수 있고,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일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4장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로 만든 이야기를 말로 하고, 쓰고, 읽고, 듣는 일들이 트라우마 생존자의 자아를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회복의 수단으로서의 이야기하기가 갖는 한계를 논할 것이다. 몇몇 트라우마 생존자들에게는, 말하기 치료는 행동치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기방어 훈련이나 (일종의 몸짓 이야기의 형식)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는 일과 같은 것들로 보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치료하기 하기 위해서는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할 필요도 있다.

트라우마의 기억 / 이야기 속의 기억

트라우마 생존자에게는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일 수 있다.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통

제가 불가능하고, 트라우마 생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떠오르며, 자주 생존자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트라우마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떠오른 기억은 자신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플래시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라우마의 기억이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플래시백의 형식으로 생존자에게 경험된다고 해서, 그 기억이 "실제로 있었던 일" 짝은 기록사건과 같은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트라우마 이론자들은, 예를 들면 카루스Caruth, 반 데어 코크van der Kolk, 그리고 반 데어 하트van der Hart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며 특별히 생생한 느낌(트라우마를 겪고 떠오르는 플래시백이나 악몽들)과 믿을 만한 느낌 (또는 사실적인 느낌)은 한 데 묶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다.⁶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트라우마 생존자가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느낌에서는 위의 세 가지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 즉, 트라우마의 기억 속에서의 느낌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며 (그 느낌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반복성에 의해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는 사실이 강조될 수도 있다.), 생생하고 (또한 일관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다. (카루스, 반 데어 코크, 반 데어 하트의 표현으로 "사실에 충실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며 또 생생하다는 사실은 그 느낌은 믿을 만하다는 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데카르

트와 흙의 견해를 따르면 그렇다.)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우리가 갖는 환상의 경우에서도 위의 특징들은 나타날 수 있다. 느낌의 형식으로 다가오는 어떤 환상들은 ("인지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의지로는 펼쳐낼 수 없으며, 또한 어떤 환상들은 (예를 들어 현실처럼 생생한 꿈에서의 환상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느낌들만큼이나 생생하다.

이들의 견해를 따르자면, 트라우마의 기억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불쾌하다.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우리가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상태들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상태들을 유발한다.)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사건을 겪은 지 한참이 지난 뒤에 생각나거나, 생각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기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안겨준다. 즉, 처음 트라우마를 겪는 순간에는 전혀 경험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이렇게 온전히 남아 있고 그토록 생생한데도?) 트라우마의 기억 속에서 회상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의 특징들과 반드시 더불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로스트Proust는 마들렌느를 맛보며 하나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 기억은 실제로는 여러 기억들이 함께 모여진 것으로서, 그가 자발적으로 떠올린 것도 아니었고, 생생했으며, 지연되어 생긴 것이고, 또 믿을

만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쾌감을 가져다주었다.⁷

카루스, 반 데어 코크, 반 데어 하트는 트라우마의 기억에는 하나의 역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라우마의 기억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을 기억할 때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며, 동시에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은 그 사건을 사실 그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반면, 트라우마의 기억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왜곡 없이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다. (카루스는 프로이트에게서, 반 데어 콜크와 반 데어 하트는 자네에게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온다.) 카루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트라우마를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 속에 사건의 내용들이 왜곡이 없기 그대로 기록되는 것은 피해자가 그 사건이 어떤 성질의 것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의식할 수 없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피해자의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 사건은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플래시백 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트라우마 사건의 정확한 기록과 피해자의 의식 상태 사이의 관련성은 현대 신경생리학자들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신경생리학자들은 피해자의 마음에 트라우마의 사건의 내용들이 왜곡 없이 그대로 '새겨지는' 것 즉 '뇌리에 박히게 되는' 까닭은 그 사건의 내용들이 피해자의 의식을 거쳐서 기억으로 남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aruth, 1995, 152-153쪽)⁸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오직 병적인 기억 즉, 피해자의 의식을 거치지 않았고 그렇기에 피해자에겐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기억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담은 채, 트라우마 사건들의 진실

작하는 것은 트라우마의 경험을 왜곡시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덮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Caruth, 1995, 154쪽)

트라우마의 기억에 대한 이와 같은 이론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즉,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증언하는 신뢰할 만한 피해-중인으로 남든지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게 되고 그런 까닭에 피해자의 증언은 신뢰할 만하다.), 아니면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건강한 생존자로 남든지 (피해자는 회복됐지만 그렇게 때문에 피해자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말하자면 이러한 굴레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책 내 키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강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 증언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딜레마를 상기하게 된다. 강간 피해자가 여전히 트라우마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정서상태 속에서 히스테리를 보이며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녀의 심리상태에 비춰볼 때 그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반대로 강간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회복되어, 침착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강간의 기억을 떨쳐버리고 회복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강간 생존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믿을 만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트라우마의 기억에 대한 이론을 따른다면, 트라우마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

을 말하고 있다. 이 기억은 실제 일어난 일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담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누군가에게 정상적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은 어떤 종류의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인지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그 사건은 기억하는 사람의 인지능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범주들을 통해 변형되는 반면,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병적인 기억은 여러 범주의 인지 과정을 통해 보정되지도 않았고 (마치 후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사진처럼)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며 또 사유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병적인 기억은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인식론적 특권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러한 기억은 윤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그 대로 간직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트라우마 생존자가 자신의 병적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계속되는 병적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생존자가 바라는 정신적 회복이라는 목표와 충돌한다. 카루스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는 일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억을 통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다. 이에 덧붙여 카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병적 기억과 피해자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이 통합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반 데어 코크와 반 데어 하트가 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과 같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자기 마음대로 조

에 대한 믿을 만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마치 아무리 훌륭한 미술 평론가라도, 회화의 상징체계와 평론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상징체계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평론가의 평론은 회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회화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유일한 (그리고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다.⁹

트라우마 생존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트라우마의 기억과는 반대로, 생존자의 만든 이야기 속에 담긴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은, 그 기억이 다른 사람들 (물론 트라우마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정신력이 강하고 또 생존자와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생존자로 하여금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을 보다 잘 다스릴 수 있게 한다. 생존자의 이야기 속에 담긴 기억들은, 생존자에게 불쑥 떠올라 고통스럽게 견뎌야만 했던 트라우마의 기억과는 달리 생존자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다. 트라우마의 기억을 자신의 이야기 속에 담아 말할 때, 생존자는 자신의 의식 속에 불쑥 떠올랐던 트라우마의 기억을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제력의 회복은 트라우마 기억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 위험성을 제거하고, 자아를 다시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된다.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는, 생존자는 트라우마의 기억들과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겪고 있는 또 다른 돌출적인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납득할 만한 범

위 안에서) 깨달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와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성취 여부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생존자들은 자신이 견뎌야만 했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붙속 끼어든 트라우마를 자신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 속으로 통합시킬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트라우마의 기억이 붙속 떠오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여 트라우마의 기억이 자신의 삶을 휘방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좋은 여건 속에서 트라우마의 기억을 이야기함으로써 트라우마 기억의 파괴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트라우마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특징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스틴 J. L. Austin이 설명한 '행위로서의 음성표현(performative utterance)'과 트라우마 증언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오스틴은 행위로서의 음성표현을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하는 일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행동의 일부뿐이다 ... 그런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거나 '다만'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1962, 5쪽) 트라우마 증언의 경우, 트라우마를 증언할 때 그 증언을 통해서 수행되는 일은, 트라우마의 기억이 이야

다른 한편으로 "기억한다"는 말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들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트라우마 증언을 통해 수행되는 일들 중 생존자의 치유를 도와주는 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일과 구별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 증언이라는 하나의 음성표현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말하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증언하는 것이고 (발생한 사건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것) 다른 하나는 트라우마를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또는 정면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트라우마의 기억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모습은 전자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트라우마에 대한 증언을 할 때, 지금 보여준 두 가지 종류의 말하기 행위 중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성공은 가능하다. 즉,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더라도, 사람들의 공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생존자는 치유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역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달하는 일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생존자 자신은 트라우마를 다스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라우마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트라우마 이야기는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개는 자신의 상담가에게) 말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트라우마에 관한 글을 쓴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를 말하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기 속의 기억으로 바뀌는 일이지나, 또는 자아가 회복되는 일, 또는 자아를 다시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로서의 음성표현과 트라우마 증언 모두에서 그 말하기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성취되려면 (오스틴의 용어를 빌린다면 말하기 행위가 "적절한 것이(felicitous)" 되기 위해서는) 말하기 행위와 관계된 당사자,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 말하기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덧붙여 말하기 행위와 관련해서 문화적인 규범들 또는 사회적인 약속들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행위로서의 음성표현과 트라우마 증언 사이에는 비교가 불가능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오스틴에 따르면, 행위로서의 음성표현은 그 어느 경우에도 무엇을 "설명"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며, '잘 또는 거짓'을 주장하지도 않는다.¹⁰ 반면 이와는 다르게, 트라우마 증언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 증언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그때 증언이 행한 것 혹은 성취하는 것은 증언을 통해서 밝힌 폭력의 영향으로부터 생존자가 벗어나게 된 것이다.

자신의 기억과 관련된 주장들 즉, "나는 '무엇'을 기억한다."라는 형식을 갖는 주장들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기억한다" ("기억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할 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현재 자신의 의식상태와 관련된 주장으로 해석한다면, 그 기억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상태와 정확히 대응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참일 수 있다.

거두러면 트라우마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어떤 생존자들은 상상속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미래의 독자들, 혹은 사건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다.¹² 트라우마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 일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단지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일이 좀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이때 생존자의 자아는 일시적으로 능동적인 (이야기 하는) 주체와 좀더 수동적인 (이야기 되어지는) 대상으로 나뉜다. 이렇게 되지만 해도 생존자는 트라우마를 겪으며 물건처럼 취급됐던 자신의 자아를 다시금 주체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스스로에게 좀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이 있는 지수 개월이 지난 후, 나는 간신히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쓰고 나서 그것을 읽었을 때에야 비로소 "말도 안돼,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니!"하고 깨달았다.

샬롯 델보가 『아우슈비츠와 그 이후(Auschwitz and After)』에서 다른 수용자의 상상속의 목소리로 글을 썼던 것처럼, 다른 트라우마 희생자들의 상상의 목소리로 글을 쓰는 일은 그들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글쓴이 자신의 이야기를 밖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집단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생존자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개인 치료 이상의 치유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집단 치료를 통해 생존자는 트라우마

에 빠진 자신의 자아와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은 자신과 비슷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다른 누군가와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같은 적절한 감정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입장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트라우마 생존자가 일단 다른 생존자들과 공감한 후, 그들의 가해자들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면, 자신의 가해자에게 화를 내는 일이 좀더 수월해진다. 또한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가했던 정당화되지 않던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 (그래, 그녀가 성폭력을 당한 것 때문에 그녀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내 자신을 비난할 필요가 없잖아?)

트라우마의 가장 심각한 피해들 중 하나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몇몇 트라우마 연구자들은 누군가가 저항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된 상태를 트라우마로 규정해 왔다.¹³ 이처럼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트라우마 생존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 감각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가 주어진다.¹⁴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여간해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이중적인 굴레를 쓰고 있다. (특히 이 이중적인 굴레는 성폭력을 당한 것이 자신들 탓이라고 자주 비난받는 강간 생존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겪은 성폭력과 같은 트라우마를 앞으로는 또다

적하면서 또 부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 같은 것이다.¹⁶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들의 기만적인 성격이 우리를 잘못된 판단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을 비롯해서 우리가 했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라도 우리는 종종 더 나은 판단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범죄와 재난에 의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경향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피해자들 역시 자신의 불행은 스스로 자초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경멸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⁷

어떤 사람들은 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가해자를 비난하는 일이라 말로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말로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간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그토록 자신에게 강간의 책임을 돌리려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찾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롭다고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많은 강간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가해자에게 분노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성폭력 생존자 지원 모임의 다른 여성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분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적잖게 당황했다. 얼마가 지나서 이런 태도가 조금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또 한 번 놀랐다. 나는 자기 방어 강좌를 듣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나를 죽음의

시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방법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정작 성폭력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그 방법을 몰랐다는 (또는 그 방법을 알았어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할 것이다. 그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이 (최소한 일부나마)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따라서 자신을 탓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되찾든지, 아니면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에 압도당했다고 느낄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강간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 때로는 사람들로 부터 자기 존중심의 부족이나 수치심에서 비롯된 반응이거나 아니면 여성적 마조히즘에서 비롯한 단순한 자기 파괴적인 반응이라는 오해를 받아 왔다. 한편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오해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감각을 되찾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돌리는 일은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⁵

트라우마 생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될 때, 그들은 성폭력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 가정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며, 또 그러한 가정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통제력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져간다. 우리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그 가정들이란, 우리가 올바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꿈

지경에까지 물고 간 가해자에게 분노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가해자에게 분노하는 일의 어려움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더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취해왔던 자기 자신을 책망하려는 태도를 더욱 부채질한다. 물론 생존자들이 자신을 책망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형태의 자책이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자 로니 아노프 불먼은 행동에 대한 자책(behavioral self-blame)과 성격에 대한 자책(characterological self-blame)을 구분하고 있다. 불먼은 행동에 대한 자책은 피해자가 당한 피해의 책임을 자신의 고칠 수 있는 과거의 행동에 돌리는 반면, 성격에 대한 자책은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적 특성으로 돌린다고 말한다. 불먼은, 행동에 대한 자책은 피해자들에게 통제 감각을 회복할 만한 여지를 남기는 데 반해 성격에 대한 자책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며 더욱 심각한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성격은 상당 부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격에 의해서 자신이 통제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의해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존중감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책을 하게 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자기존중

없이 내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그때서야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내 오랜 축농증의 원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약한 면역성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며 또한 내가 여성주의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직업적 성공, 아이, 건강)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 문도 아니라고 말해주었을 때 들었던 안도감과 비슷한 것이다. (실제로 어떤 알레르기 전문의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진단한 그 이비인후과 의사의 말을 빌리면, 내 축농증은 약을 먹 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순전히 기계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의학적 진단을 받고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서 내 상태가 틀림없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어 디가 고장인지를 알아내도 그 고장이 꼭 고쳐지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보라!) 내가 안도감을 느꼈다는 의미는, 다만 내 문제를 푸는 일이 (전적으로 혹은 오직) 나에게만 달려 있지 않고, 제 삼자인 특정한 전문가가 개입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 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며, 내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있어 서 (나를 낫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사실상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트라우마로부터 혼자의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을 깨닫고 느낀 절망은 "순전히 기계적으로 해결될 문제"에 지 나지 않았던 것일까? 약의 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 을 먹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문제는 그

리고 그 외에도 많은 약들을 복용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 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내 의식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그것은 내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약물 치료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음을 나에게 말해 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비록 때때로 약을 복용하면서도 갈피를 못 잡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면, 나도 의사들도 모두 "약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단지 실험에 갈려있 다."라고 느낀 적도 있지만 말이다.²⁵

'뉴욕타임스'는 최근 기사에서 뇌 질환과 관련된 최신 이론 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서 나오는 뇌 질환에 관한 최신 이론 에서는 "심각한 우울증에서 오는 침울함, 강박 장애에서 오는 손 뒤틀림, 이명 현상, 파킨슨씨병에서 보이는 만성 통증과 경 련 그리고 마비 등의 증상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뇌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뇌피질과 시 상 사이에서 동시적으로 신경세포가 흥분되는데 반해서, 이러 한 증상의 환자들에게는 대뇌피질과 시상에서의 동시성이 사 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다.²⁶ 그리고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 려면 수술을 통해 간뇌의 시상에 전극을 이식하기만 하면 된 다 고 말한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시술된 바도 있다.) 이처럼 신 속하게 나올 수만 있다면,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치료를 몇 년 씩이나 감당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의 뇌 질 환 치료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 제거 없이 단지 증상만 완화시 키는 치료는, 내 경우에는 근본 원인의 제거 없이 항정신성 약 물을 복용하는 것으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눈 가리고

뚱개 단속하지 않았다. 나는 성폭력을 겪은 후 6개월이 지나서 야 항우울제인 프로작이라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약을 먹고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작과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도 극심한 우울증 은 주기적으로 재발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약은 내 신경전달 물질들 사이의 교환을 도와 그 덕분에 나는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약은 내가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지를 말해주지는 않았다. 약은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그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 해주지는 않았다. 결국 나에게 약물 치료는 회복의 필요조건이 기는 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약을 먹는 것 말고 그밖에 무엇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 내가 살아갈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서의 내 위치에 대해서 내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작업. 나를 지지해 주고 또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현실 세 상, 세상에 대한 나만의 그림과 세상 그 자체가 언젠가는 서로 일치하여 그 세상 속에서 나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깨달음. 약 이외에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 은 약을 복용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내게 프로작, 파실 Paxil, 졸로프트Zoloft, 에페서Effexor, 설존Serzone, 웰부트린 Wellbutrin, 리탈린Ritalin 등의 약들을 처방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각성제"의 일종이었다. 또 잠을 자기 위해서는 레소밀Lexomil, 할시온Halcion, 클로노딘 Clonidine, 리튬Lithium, 클로노핀Klonopin, 아타반Atavan, 그

아용 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에어로빅 강화를 듣는 대신 지방 흡입술을 받는 것 (또 는 스포츠 경기에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 하는 것)과 같이 않은가? 하지만 만약 어떤 방법으로는 똑같은 정신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다면, 꺼림칙한 느낌이나 돈만 문제 되지 않는다면, 더 생각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의 개정 4 판 (DSM-IV)을 내면서, 이 편람은 정신의학이 이론의 제약 (거 의 전적으로 정신분석학 이론에 의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는데 특별히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람 속에는 여전히 정신 장애를 설명하는데 지침을 제공하는 암시적인 이론, 즉 생물학적 환원론이 존재한 다. 이 이론은 미국의 건강관리기구(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료 기관, 의사, 환자화 각각 계약을 맺고, 환자가 미 리 지불한 금액 내에서 지정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건 강 보험 :역자주]를 비롯한 다른 보험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신뢰성, 의학적 진단, 약물 사용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한다는 압력을 받아서 채택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신질환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비록 정신 의학이 과학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 도,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일을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킹Ian Hocking은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들은, 예를

들면 다중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은 실제로는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이론과 진료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러면 환자들(의사들이 정한대로 다중인격장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95) 나는 해킹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인 의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예측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예측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고 분류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질병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작업과 그에 따라서 분류되는 사람들 사이에는 순환적 메커니즘이 형성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또 이러한 메커니즘 중 일부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여성들을 환자들로 둔갑시킨" 책임이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이뤄지는 정신과 치료에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데, (단지 여성주의 정신과 치료라고 하기 보다는 과도되고 왜곡된 형태의 여성주의에 근거한 정신과 치료라고 하는 편이 낫겠지만) 의사의 말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환자에게, *DSM II*에서 제시하는 정신질환의 기준을 인정해야만 환자 본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적인 마취에 취하는 현상 즉, 일종의 "적응 증상(adaptive symptom)"²⁷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의사의 말에 환자가 정신적으로 마취를 당하게 되면, 환자들의 의지나 의식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아무리 윌리엄 제임스

피해자들은 자신의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부인하기 보다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회해서 통과하는 법을 -또는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좀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된다. 마음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하에 있는 반면에, 신경생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은 기계론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극단적인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러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여성들이 무기력해지고 수동적으로 되었다는 가정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어떤 하나의 증상, 예를 들어 내게 여전히 남아 있는 과도한 놀람 반응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어제만 해도 나는 길을 걷다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자 뒤통이 놀랐다. 나중에서야 그 것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소리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 증상의 원인에 대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내가 놀란 것은 성폭력 때문이다. (성폭력으로 인해 내 두뇌 회로가 바뀐 것이다.)
2. 내가 놀란 것은 불안에 대한 어떤 유전적인 소인 때문이다. (나의 유전적 소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내가 놀란 것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다.

이 중에서 무엇이 나의 증상의 원인일까? 위의 가설들에는 다음과 같은 각각의 근거가 있다.

William James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은 그 사람에게는 진리다."라는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머릿속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들을) 마음을 고쳐먹으면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 환자들, 또는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보형로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련의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질병에 자신의 증상을 꿰어 맞추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들이 의학적 진단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의학적인 진단을 받는 일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회복력을 빼앗는 주범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펄과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흔집이 낳다고 보거나, 또는 치녀성을 잃은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흠 있는 물건'이라는 낱고 저속한 말로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1999, 111-112 쪽)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는 일은 (그리고 그런 진단에 따르는 치료는), 자신이 받은 상처는 "모두 생각하기 나름의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 자신의 (그리고 사회의) 믿을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가 있다. 성폭력

1. 왜냐하면 성폭력 당하기 이전에는 나는 그러한 작은 소리는 심하게 놀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왜냐하면 만약 내가 선천적으로 침착함을 타고난 사람이 이었더라면 비록 성폭력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적어도 성폭력이 있을 지 10년이 지난 후까지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작은 소리에 놀란 것은 나만의 특이한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방식이었다.

3. 사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반응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반응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내가 처음으로 작은 소리에도 심하게 놀랐던 때는 (성폭력이 있을 지 2주가 지난 뒤 여전히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는데) 나는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뒤통이 놀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모르게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장애 증상의 일종인 과도한 놀람 반응은 약을 먹으면 충분히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처럼 작은 나뭇잎 소리에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거나 또는 그런 소리를 이제는 약을 먹지 않고도 참아보려고 하다가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길을 걸었던 그때 신경안정제를 먹었더라면, 나는 확실히 그러한 자극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신경안정제 탓에 졸린 나머지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내야 했을 것이다.) 나는 내 몸의 신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긴장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한 바깥 세상에서 약물의 도움 없이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측정기의 바늘이 위험을 나타내는 적색 부분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나에게 살아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길가에 뛰구는 낙엽 소리에 화들짝 놀란 이유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 답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범죄 피해자 보상 위원회나 보험 회사의 담당자들이 내가 왜 이런 증상을 보이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증상의 원인은 분명히 성폭력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나의 과도한 놀람 반응은 성폭력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내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신체적 상태로 서, 과학에 근거한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심리상담가가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알아내어 내가 그 증상을 잘 다스리도록 해주고자 한다면, 나의 선천적인 심리적 기질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나와 비슷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할 나의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다. 작은 소리에도 잠깐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일은 나의 신경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것으로서, 나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 문제는 무시할 수 있거나 멀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가 사회적 활동들을 재개하려 할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이런 증상은 나에게 곧 일종의 장애다. 이런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서 내버려둔다는 것은 내가 콘택트렌즈를 끼지 않은 채 세계를 일주를 떠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보 같은 것이다.

나는 실제로 시력이 많이 나쁜 편인데, 이것은 나에게겐 신체적 장애가 아니다. (적어도 내가 일하고 있는 학계에서는 말이다.) 왜냐하면 내 시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교정이 가능하고, 또 근시와 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은 학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근시와 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내게 나타나는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것이 내 시력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는 나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비록 내가 학계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종의 마음 자체의 문제로 여기고, 따라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통제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통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잘 보이지 않는 내

한 성폭력을 겪은 다른 환자의 경우에는 나처럼 과도한 놀람 증상을 보이기도는 강박 장애나 알코올 중독 혹은 약물 남용과 같은 다른 후유증을 앓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는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만약, 심하게 놀라는 증상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보려 하고, 또 결국엔 그 증상을 제거하려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증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질책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나는 아닌 것 같다. 어쩌면 내 상담치료를 담당했던 상담가나 보행회사 직원이야말로 내 증상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으려 하고 결국엔 그런 증상을 제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인 것 같다. 그럼 나는? 나로서는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하기 보다는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뿐이었다. 약은 나를 진정시켜주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반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벽에다 박는 것과 같은 일을 안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약 먹는 것 말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이런 시절을 뒤돌아보며 내가 왜 이런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됐는지를 따져보겠지.

나의 뇌가 선천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구조였거나 또는 자라는 과정 중 통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구조화되었다면, 나는 다른 종류의 약을 쓰거나 또는 약을 전혀 쓰지 않고서도 그런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눈을 고치는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이다. 나는 어쨌든 내 시력을 교정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운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먹여주고 돌봐준다면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일 것이다. 왜냐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기만 하면 내 시력은 (거의) 표준 시력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경 없이 앞이 잘 안 보이는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 그리고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미친 짓이다.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역시 미친 짓이다. 그렇지만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치료하기에 앞서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시력이 나쁜 것과는 구별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근시임을 "인정"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왜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는 스스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일까? 진짜로 정말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나는 일종의 정신질환 장애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자, 기운 내!", "진정하자구!"와 같은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친구와 신나는 대화를 나눌 때 나의 신경

전달물질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신경계에서는 새로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약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물론 이런 나의 생각은 마음 몸으로 환원하는 것과 관련된 오래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행히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적 관점은 때로는 내 자신이 마치 기계 같다고 생각하게도 해주고, 때로는 내가 의미를 깨닫는 존재이자 의미를 만드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도 해 준다. 때로는 내 자신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의지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될 때면 그것은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가끔씩 내 자신에게 “기운 내!”라고 말하면 오히려 내 안의 신경계에서는 기대 밖의 반응을 보이며 힘이 빠지곤 한다.)

내 의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내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나의 뇌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스카치 한 잔을 마시거나 조깅을 할 때에는, 비명을 지르고, 약을 먹고, 책을 읽고, 치료를 받고, 잠을 못 이루거나 잠에 들 때면 언제나 나의 뇌 속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안경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동행을 위한 치유의 일기

하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 날의 일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니?”

그 이후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반응에 나는 다시 상처를 받았다.

이제는 말이 있어진 일이지만 그냥 물어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내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간을 거절하여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였던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극복의 서사’이다.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경험 안에 녹아들어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나를 기꺼이 받아들이 수 있게 되었다.

말이다. 나는 앞을 잘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되찾을지 또는 계속 앓고 있을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약을 먹고 그 약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자발적 행위 능력은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약의 도움을 받으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있으며, 세상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짓누르는 세상이 아니다. 수동적이 된다는 것, 그래서 무엇에 의지해서만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실제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다.

우리는 화학적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우리의 가장 심원한 두려움, 기쁨들 그리고 욕망들은 우리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적 신호를 통해 몸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의미의 창조자이기도 하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만의 특성과, 우리만의 말도 안 되는 각본들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만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에 의해서 또 우리는 완성되어간다. 우리는 화학적 분자들로 이루어져있으면서 동시에 의미의 창조자란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났다.

하루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질이 콕콕 쑤서서 버팔에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 있는 것도 힘이 들었다. 얼마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

일주일 지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진 문제가 있어.

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 날의 일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니?”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났다.

난 지금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생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 달 지났다.

수업 과제를 위해서 본 영화에 데이트강간 장면이 나왔다. 주인공 여자가 파티에서 만난 남자와 섹스를 하다가 성기결합을 하려는 순간, 여자는 콘돔을 가져오라고 했고 남자는 콘돔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성기결합을 했다. 여자는 남자를 밀치고 파티장으로 뛰어내려온다. 친구들이 응급과잉약을 사다 주고 그녀를 위로한다.

나는 정말이지 한숨을 쉰다.

한 달 반이 지났다.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내가 강간 피해자란 말이야? 라는 말이 떠올랐다. 길을 걸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본크리트 바닥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

모두 내 몸 속에 기억되어있는 것만 같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으로부터 내면적인 느낌이었다.

두 달이 지났다.

애인과 헤어졌다. 결국 그 날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내가 과제를 위해 본 영화를 그도 봤고, 어느 날 그가 말했었다. “그 날 내가 너에게 한 것도 성폭력이었던 것 같다”고 그 이후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여섯 달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애인을 만나고 있었다. 어느 날 불이 꺼진 그 사람의 방에서 그가 내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왔다. 나는 갑자기 무서웠다. 무서움은 곧 사라졌지만, 충격은 오래 남았다. 나는 이제 강간에 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데이트 강간에 대한 농담 섞인 말이 나왔다. 그냥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대, 나는 그 순간 내 표정이 질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일곱 달이 지났다.

헤어진 애인을 만났다.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내가 나에게 한 일은 강간이었다고, 너는 언제나 성기결합 섹스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었고, 너는 나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나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상담을 받으라고, 그는 내게 고통을 준 건 미안하지만 자신이 나에게 빛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말라고 했다. 상담



같은 긴 발을 생각해 없다고. 그는 나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는 거짓말 끝에 할 필요 없다는 말을 던진 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만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긴 했지만, 그의 반응에 나는 다시 상처를 받았다.

열한 달이 지났다.

성폭력생존자지원회 대회가 있었다. 다섯 명의 말하기 참여자가 있었다. 물론 그녀들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어떤 여성은 3년간의 재판과정을 거쳐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성폭력 피해가 서너 건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수사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는 분노 있었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분노 있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한 경험,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했던 경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험, 가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경험.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울고 있었다.

일년이 지났다.

나를 강간한 사람을 학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이제는 맘이 잊혀진 일이지만 그냥 물어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진술서를 보낸 뒤, 나는 이 일이 결코 나에게 맘이 잊혀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진술서를 써내려갔고, 매일을 전상한 후에는 몸을 떨릴 필요가 없었다. 며칠을 입었고,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우울해지거나 눈물을 글썽였고, 자다가 깨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불안해했다.

일년과 한 달이 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로 했다. 나는 내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 경험에 집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년과 한 달의 시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처음과 두 번째의 상담에서는 눈물이 많이 났다. 그 일이 마치 잊고져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일년 반이 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소의 사업과 성폭력피

해생존자 공동체 운영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일에 잠깐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정말 적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나 '학자'를 도와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아에 시달리는 해외의 어린이들, 빈곤층, 병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난치병 환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그리고 '돕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경과'를 원한다.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아이가 밥을 먹고,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부약과 수술로 인해 몸을 회복하고, 장기 기증이나 수술 등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몸을 갖게 되는 것. 무언가가 변화하고, 어떤 것을 극복하고, 끝내 어떤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극복'의 서사이다. 사회는 자신의 상황이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몸에서 각인된 자신의 삶 그 자체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공리를 하지 않는다. 성폭력피해를 극복하는 것, 성폭력피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작은 이 질문에 답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럴 여유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해보려고 한다. 분명,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이 사회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린다면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마치 거미줄 같이 구성되는 것 같다. 그래서 치유를 전문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나는 지난 주에 8회의 상담을 마쳤다. 1-2주에 한 번 상담을 받는 동안 나는 무척 바빴지만, 조금씩

망

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고통'과 마주한다. 내 몸의 주인이 나일 수 없다면 순간의 기억, 떠올리기조차 실은 때 생생하게 떠오르는 느낌, 말하지 않으면 전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혼란스러움, 침묵을 강요하는 유/무연의 압력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향한 왜곡된 사회 책 시선은 생존자 스스로조차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게 만든다.

내 삶에서 나를 '온전한 자아'로 인식할 수 없었던 그 폭력의 순간을 설명하려면, 나 자신을 수동적이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로 설명해야만 할 것 같다. 때로는 피해자라는 이름에서 멀어져, 자신을 결코 피해자의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과 내가 같아져야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가부장적 사회는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이런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여전히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팔랑귀고 돌으려 한다. 그래서 많은 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치곤 한다.

지금 당신이 성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입을 열고자 한다면, 당신은 치유의 여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일이 일어난 순간부터 치유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성폭력피해생존자는 치유에 이르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끊임없이 그 경험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원한다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고통을 참아낼 때는 참겠지만, 참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음껏 울거나 감정을 분출할 곳을 찾아보자. 고통에서 벗어난 시간이 주어진다면 즐거운 재화를 실행하고,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꼭 빠져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보자. 당신이 가진 성폭력의 기억은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경험이다.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거나, 무리한 망각과 '극복'을 자신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 자신 안에서 꺼내어 놓아야 할 이야기가 없는지, 그 일에 대해 취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지, 듣고 싶은 말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자. 갑자기 더 힘들어지거나,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고 해서 자신을 원망하지 말자. 있는 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고 사랑받아 마땅한 많은 생존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녀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보자. 자신을 사랑하는 생존자 앞에서, 가부장 사회의 오만한 편견이 설 자리를 없애기 위해. ●

지금, 입을 열고자 하는 당신에게



수전 브라운은 자신의 성폭력피해 경험을 담은 책 《아! 그래, 그리고

다시 살아야》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 모임에서 있었던 순간을 회고한다.

시종일관 조용히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던 것이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고통이 멈춘 적이 있다면 내게 말해주세요?



시무 (무엇인가)의 이미지

이 부분은 텍스트가 매우 희미하게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서론이나 배경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



**"아한 옷이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
자나기인 언니들과 이자씨들과 강
이지가 쳐다봤다. 목소리가 너무
쌔냐? 진회에서 구호와하면 뭐 그
런 거 아닌가.

무자란 송판이 부사였다.
"아무데서나 오를 누지 마세요" 라고
했던 송판 부사자는 소리가 화장실 편
기 뿜내라는 소리보다 더 시뻘뻘했다.

7월 4일 친구들과 달빛시위에 다녀왔다. 인사
중 무대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페이스페인팅
을 하고 오더니 바둑이로 변신해버린 친구가 너무 귀여웠
다.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있나 싶었다. 여자 셋이 모이면 걸스가 깨지느니 어쩌니 하는 말이 생겼다. 오늘은 뭐가 깨지려나?
웃음이 나왔다.

제5회 밤길 되찾기 시위: 달빛 타고 노는 영화

밤길에 노닐게 빛나는 초승달을 타고 노는 불광소녀 영화와 영화못지 않은 까칠한 표정으로 골근육을 자랑하는 바둑
이가 함께하는 달빛시위가 열렸다. 짧은 어라에 곡복을 입고 불수의 '안녕?'이라는 인사에 '글쎄~'라고 대답하는 영
희는, 성차별적 문화와 '여성다움'의 불과 싸우는 그 시기의 우리를 나타낸다. 지금의 영화도 밤길에 '안녕?'이라고
물었을 때 '안녕!'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글쎄~'이다. 영화와 함께 노는 불근 활목 바둑이는 영화와 함
께 놀지만 서로의 안전을 양도하지도 침해하지도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항구한 남성 중
기며 단정한 머리와 조신한 복장을 하고 '안녕~'이라고 인사하도록 교육받지만 우리의 현실은 '글쎄~'라고 까칠하
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불광소녀 영화다.

영화에게 필요한 것은 값이 길을 걸어가는 페르니 바둑이지 '내가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는 불수가 아니다. 여성에게
보호자는 필요였다. 아한 옷도 짙은 화장도 밤길 나들이도 성폭력의 원인이 아니다. 성폭력은 가해자 탓이라고 분노
를 안고 당당하게 자기발달하게 말하기부터 시작하기. 그렇게 제5회 달빛시위가 열렸다.

그런 때가 있었어. 내가 긴 머리의 신입생 이던 때. 일주일에 한 번 성폭력 가해자를 만나 던 때. 부들부들 떨며 친한 언니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던 때.

그때 참 열심히 살았다. 나는 매일 12시 20분 학치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 근처에서 내려면 1시였는데, 이미 한숨이 되지는 않는 시간이라 바스르 세 정자장을 걸어갔다. 한 채한 큰 길에는 나 혼자 있거나, 간간히 어두운 사이로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나랑 술 딱 한잔만 해요.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갈게요."

그들이 내게 연진 그 거짓말을. 지금은 너무나도 뻔한 그



Kyndy Park

● 엑.선.이.필.요.예! ● 어찌저찌 애를 써도 파이트백을 못 하고 싶지만 하고 싶어 죽겠는 여학생 J의 이야기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나, 준비된 녀자!

하나, 내 몸의 폭을 넓히기
한눈에 보기에도 볼만한 옷과
신발을 신고 몸을 최대한 일체
보이면서 일자로 종중걸음을 걸어오면 될 것만 같은 압
박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 그렇지만, 만약 돌발상황
에 당혹을 겪을 경우엔 더 안정감있게 대응할 수 있는 포즈
는 일명 팔자걸음이라고 불리는 그 자세입니다.

친구와 한번 해보세요. 발을 11자로
양으로 서 있을 때는 앞 뒤로 마는
공격에는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
지만, 누가 옆에서 밀면 바로 넘어
가버립니다. 혹은 반대로 발을 켜
행선으로 하고 서 있으면 옆에서 들어오는 공격에는 넘
어지지 않지만 누가 앞에서 툭 밀면 바로 뒤로 넘어가
로, 내 몸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다가, 유연성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는 바로 팔자걸음! 여자
애가 그렇게 걸으면 안 예뻐보인다며 내 걸음을 교정
하러왔던 사람들을 쳐다보며 한 마디 해줍니다. 나, 너
내한테 예뻐보이라고 사는 거 아니냐? 엉덩이들아!
우리에게 내 몸이 편한 팔자걸음으로 건들건을 걸러줄
할போ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 엑.선.이.필.요.예! ● 스트리트 파이터 송이송의 우당탕탕 판지



저지말인데, 그 때는 경계하지도 않았다. 경계하기에는 너
무나도 피곤했던 나와, 너무나도 추웠던 날씨와, 엄청난 술
후의 손길을 만지는 자(!). 어쩌리 고맙습니다라고 차를 타
고 가는데, 집으로 안 가고 한적한 길로, 한적한 길로, 드
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집으로 가겠다고, 내려달라고 할
하는데, 차를 멈추더니 내 허벅지를 머뭇머뭇 돌렸다. 뒤에
여여와 과정을 지르고, 차 문을 열려고 이동바둥 애를 쏘
다. 그 눈도 놀랐는지 손을 멈췄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잠파 놀랐잖아. 여려
그럴 생각이 없으면 조심해야지. 차에 타니
까 그럴 생각이 있는 줄 알았지."

흔적을 들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좋은 사
람이니까 집에 데려다 주지만 다른 나쁜 아저씨들은 안 그

런다고. 아, 특히 이 시간에 사람은, 특히 이 시간의 남성
은, 특히 이저씨는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 때 해웠다. 성폭
력 가해자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잘 들어. 밤에 조심하고."

억울했다. 니따위에게 몸을 소리기 아니야. 내 판단에 잘못
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집 방향으로 가고 있으
니 잠시나마 차를 세워 주겠다고 말했고, 그 제의를 나는
받아들였어. 확인하려고, 지지를 받으려고, 진화를 했다.
"늦게 들어갈 때는 택시를 타고, 전기승객기를 거지고
다니는 것도 생각해 보아." 또다시 억울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조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그 마음에는
고맙다. 그래도 억울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억울
했다. 성폭력은 가해자 탓이니까



그리고 나는 머리를
잘랐다. 어떤 현실적
인 조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바꾸기라도 해야 한다
는 사실이 절박해진
것이다. 그렇게 한동
안 해방되었다. 내 옷
모습은 누가 보기에
남자아이 같았다. 위에서 뿔뿔거리며 따라오는 차도, 괜히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거는 사람도, 술을 먹으며 가자
고, 용돈을 주겠다고 손목을 잡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폭력이 없어졌다고 내 일상에서 성폭
력이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
아름이 저편에서부터 성폭력 가해자들을 한 명씩 포해낸
다는 사실을. 내가 저항하기에는 많은 가해자들이 힘이 세
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공포로 채웠다.

(심지어 최근 드러마 커피티프스의 여파로 고은찬 스타일
이 대유행하더니, 가해자 아저씨들의 공격 대상이 머리가
짧은 여성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화장, 그들은 언제든지 나

는 건지와 종지를 약간 구부려 힘을 주면 상대방의 눈을 영
영 멀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고, 하이힐을 신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발목을 부러뜨리고도 남을 혼란한 무기
가 되죠.

그리고 지금 내 양손을 사용해서 내 몸의 딱딱한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머리로 받치기, 턱으로 받치기, 팔꿈치로 가려하
기, 무릎위로 받치기 등등, 지금껏 한번도 내 몸에 강한 부
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이 세상을 땀땀 욕
하면서 팔꿈치로 위에서 쥘어누르는 연습 아십 번째로는
저 여배우? 뭘 해 봐야 할까!

아, 그리고 내가 옆으로 예고 있는 가방은 상대방을 후려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전공책의 모서리
는 더더욱 나이!

나, 강한 녀자!

하나, 내가 바로 무기가
남 사람들이 말하는 약한 녀자가
아니합니다. 내 두 손가락과, 손목
은 건지와 종지를 약간 구부려 힘을 주면 상대방의 눈을 영
영 멀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고, 하이힐을 신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발목을 부러뜨리고도 남을 혼란한 무기
가 되죠.

그리고 지금 내 양손을 사용해서 내 몸의 딱딱한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머리로 받치기, 턱으로 받치기, 팔꿈치로 가려하
기, 무릎위로 받치기 등등, 지금껏 한번도 내 몸에 강한 부
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이 세상을 땀땀 욕
하면서 팔꿈치로 위에서 쥘어누르는 연습 아십 번째로는
저 여배우? 뭘 해 봐야 할까!

아, 그리고 내가 옆으로 예고 있는 가방은 상대방을 후려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전공책의 모서리
는 더더욱 나이!

두들, 사지, 후와 함께 난 다시 태어났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동물이 온몸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거 있죠? 그들이 당연하다고 예상하는 '어' 혹은 '어어'
하는 반응 대신, 순간적으로 몸을 크게 만들면서 저음으
로 '어어어어' 혹은 '우어어어' 하면서 괴물같은 소리를
내면서 몸을 웅크리지 않고 힘을 뽐 주면, 그들의 당황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팔거리의 자들이들은 당연히 예상되는 제피포리예한
상상력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당황
하곤 하죠. 이런 건 편히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시비걸고 가
는 아저씨들이나, 골목길에서 자취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도 꽤 쓸모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나, 무서운 녀자!

하나, 트라우마 심어주기
자용과 이빨의 등에서 느낄 수 있
듯 대부분의 여성들이 팔거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거죠. 길거리에서 아무 두려움없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하
고 있는 남들의 엉덩이를 끌어차고 말아나... 는 건 제 취미
이지만,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옆에 지나가면서 '어따대고

더러운 도를 까발리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
고 지나가거나, 바로 위에 나온 사자후와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경찰을 신고하는 책을 한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물병을 던지고 지나가는 거로, (비단 걸 중간에 멈추는 내
공도 없는때다가 바지도 내려가 있고 술에 취해 있어서 잘
대 못 돌아온다는)

길거리가 지네 인생인 양, 아무런 두려움없이 활보하는 새
끼들에게, 너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로! 우라에겐 압축다운, 그러나 개념없는 자들
들에게는 후덜덜한 세상을 위해 함께 움직여보아요.

웃음이가!

이 글을 읽으면 마치 스트리트 파이터로 돌변하는 것이 쉬
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어요.

심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할 때, 몸이 굳고 무기력
해지는 것이 더 심다는 것들로, 하지만 그건 내가 나약해서
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몸을 강하게 만들어놓았을 수 있는 기
회를 갖지 못하게 만든 저들의 용모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들을 나눴기에, 또 서로의 파이팅백 경험을 공유하며 조
금씩 마음의 힘과 몸의 힘을 키워나가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라켓들과 함께, 몸은 편
할 수 있는 운동을 한 가지 이상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지난 이년동안 태권도와 농구
축구 스쿼트스 등을 멋진 언니들과 함께 배웠으며 몸과 마
음이 훌쩍 성장해서, 마초와 편대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
주는 스트리트 파이터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고 큰 언니들에게 좋은 사이드 소개하면서 저는
또다시 길거리로 나가보렵니다. 어디선가, 또 만나요! ●

by 우리는지검도저러하게 송이송

- ▶ 농구가 하고픈 언니들! s-sister [01시스터]
http://www.unninet.net/sister
- ▶ 송이가 하고픈 언니들! 책도 아진 송이송
http://www.unninet.net/sister
- ▶ 언니들과 함께 스쿼트스! 송이송
http://csls.danunet.net/swinggirls

■■■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

-정치적 행위로서의 자기방어훈련

✎ 오매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일상의 성폭력과 강간 문화(rape culture)

한국의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2위이고, 피해자의 97%는 여성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실제 발생 건수의 6.1%(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한국의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강간, 강간치상, 성추행부터 여성연쇄살인, 여고생납치까지 테러에 가까운 여성 혐오 범죄 뿐 아니라 농담처럼 툭툭 던지는 학교 교사의 성희롱/성차별 발언, 대중교통 안에서의 성추행, 밤거리 낮선 남자로부터의 성폭력 등 성적 공격은 여성에게 일상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1990)를 보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가벼운 추행 포함)은 76.4%에 이른다.

상담소에 상담, 사건지원이 의뢰되거나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심한 성폭력'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상적인 언어 성폭력, 남성들의 집단적인 음담패설, 반복적인 '가벼운' 성적 접촉 등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일상적이고' '가벼운' 폭력이어서 더욱 공포와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여성의 행복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극도로 침해한다. 따라서 상담소에서는 만나게 되는 내담자가 이 '하나의' 사건을 극복하면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상담지원자인 나와 이 내담자의 처지는 몹시 다르며, 성폭력은 사회적 이슈로 삼기보다 개인적인 심리상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

여성에게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강간당할 수도 있다는 여성의 두려움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문화를 '강간문화' (rape culture), 라고 부른다.

강간문화에서는 '정조를 지키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장려되며, 강간 피해는 여성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피해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신이 강간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밤늦은 시간이나 어두운 거리 등은 여성들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기에 여성들의 활동 시간과 활동 공간은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제한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현실은 어쩔 수 없으며 정당화된다. 강간문화는 남성들은 강한 성욕을 참을 수 없기에 늘 여자를 강간하려하고, 남자보다 힘이 약한 여자들은 목숨보다 순결을 중시해야 한다는 편견을 신화로 만든다.

위협상황과 여자다움

여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왜 사람은 여자들에게 더 '강해지는 방법'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아왔을까? 성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약한' 여자에게 권장되어야 할 것은 남성들의 성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가해자를 공격할 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얼굴을 후려치도록 오른팔 근육을 단련하라는 조언 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겨운 메시지들을 들어왔다. 조신한 걸음걸이와 근육 없는 짙은 팔다리, 욕 한번 해보지 않은 고운 말씨와 한 번도 남을 때려보지 않은 '여자다운' 몸동작이 모든 '여자다움' 들은 성적 공격의 위급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모조리 빼앗아버린다. '여자다움'은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성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매일 매일의 습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버린 '여자다워져야 한다'는 강박은 자신이 처한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잃게 한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성적 공격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온 몸이 얼어붙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공격하기는커녕, 그 순간의 공포에 압도되어 기본적인 방어 능력까지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자다움'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강간당한 여성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강간 상황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강간문화의 이런 논리는 모순을 드러낸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인가?

이러한 모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강간을 여성으로서의 인생에 흠이 간 것으로 여기고 여성을 비난하면서도, 강간 상황에서 성기를 물어버리거나 미친듯이 가해자를 후려치는 여성, 상욕을 구사하는 여성이기보다 힘없이 파르르 떠는 여성을 더 기대하는 모순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 때 신나게 뛰어 놀고 골목대장을 하거나, 골목대장을 꿈꾸어

본 기억이 대부분의 여성에게 존재한다. 나이와 몸의 활발했던 정도를 x, y축에 놓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y값은 올라간다는 것을 매년 확인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골목대장, 놀개 생활을 그만두게 되는가?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10대 소녀/여성은 생리와 가슴의 발달에 대해 듣기 시작한다. 10대의 2차 성징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만 성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같은 시간에 남학생은 축구시합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경고가 성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초경파티' 등의 밝고 씩씩하게 축하하는 메세지 또한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왜 초경이 시작되어야 축하받는가? 생리와 가슴의 발달만이 여성으로서의 나의 몸을 설명하나? 그것이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해 사용되며, 그것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행동이어야 하므로 강간은 가부장제를 위협한다. 결혼을 하여 이미 예측(임자가 생긴)되었거나 출산을 마친 여성의 몸은, 출산하지 않은 20대 여성의 몸보다 가치가 떨어지며 보호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니다. 가부장제에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남편이 상대의 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정사' 일 뿐이다.

여성은 자신의 몸과 안전을 의탁하게 된다. 이것이 여성이라면 해야 할 방식으로 여겨진다. 상상해보라. 아빠에게, 오빠와 남동생에게, 대학 남자 선배에게,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친근하게 굴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게 자기 일을 하거나 경계하는 여성이 있다면? 직장 상사와 같은 과 남자 선배에게 '오빠'나 '~님'이 아니라 항상 "씨"라고 호명하는 여성이 있다면? 애교를 표현하지 않는 여성, 심리적으로도 독립적이라는 여성에게는 비난과 정상이 아니라는 낙인이 가해진다.

의탁하는 여성의 몸은 어떠한가? 의탁하는 몸은 작은 몸이며 가녀리고 부드러우며 약한 몸이다. 다리가 팔을 넓게 펴지 않고 작고 좁은 공간만을 쓰는 몸이다. 앉을 때도 무릎을 오므려, 먹을 때도 작게 입을 벌리고 작은 동작으로 씹으며,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작게 웃으며 그 중 최고는 눈으로만 웃는 웃음이다. 의탁하기 위해 작아진,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기도 하다. 본래 여성의 신체는 남성에게 비해 열등하다는 연구가 있으며 그 반대도 있다) 의탁하다보니 약해진 여성의 몸에 대해 어떤 남성은 "여자가 어디 때릴 데가 있다고" 라고 기사도를 펼치는 동시에 "이걸 그냥" 하면서 오른손을 확 올리는 것만으로도 겁을 주기도 한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은 자기방어와 공격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마련이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은 축구나 농구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 태권도와 같은 무술 등 타인과 몸을 부딪치며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느낌과 방법을 습득하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와 같은 몸을 사용하지 않는 놀이를 하도록 권장된다. 몸을 사용하여 타인과 세상을 만나는 것에 익숙치 않은 여성들은 몸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를 내 몸을 통해 격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된다. 격렬한 동작

을 수행하는 나의 몸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격이 가능하다는 생각, 훈련

그런데 내 몸을 의탁한 대상들이 가해자들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현실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된 여성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성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문제라고 떠들던 세상의 목소리가 나의 몸, 나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다른 욕구를 갖게 된다.

기존의 '호신'이 '목숨보다 소중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 여성들이 위협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 및 기술 습득을 의미했다면, 여성주의 자기방어는 여성들로부터 박탈되었던 자기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여성의 것으로 되돌리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는 통금 시간을 정하여 '보호'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통제하는 방식과 달리,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고 스스로 삶의 기획자가 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주의 자기방어는 '여자다움'의 배일에 가려져 잊혀진, 드러나지 않았던 분노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많은 여성들은 공격의 상황에서 자신의 반격이 공격자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에 대해 걱정한다.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끝없는 배려'라기보다는 '내 몸'과 '내 공간', '내 삶'을 공격해온 공격자에 대한 내면의 분노를 느끼고 표출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공격받았을 때 반사적으로 위축되던 여성의 몸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 신속한 판단과 방어, 공격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한다. '여자다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이탈, 규범적 여성상에서의 잦은 탈주.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습관이 된다.

공격자를 위협하기 위해 눈을 부라리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내 목숨을 위협한 사람의 팔과 다리를 꺾는 여자, 가해자의 눈이나 성기와 같은 급소를 가격하는 여자는 자신을 '여자다워야'한다는 틀에 가두는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다른 여성 되기, 즐거움

자기방어훈련은 자기방어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성의 몸이 반격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경험과 훈련은, 짜릿한 즐거움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과정은 더 많은 것을 생성한다. 자기방어의 상황은 다양한 의미로 분화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위협적인 상황인가? 어떤 상황이 공포스런 상황인가? 어떤 상황에서는 반격을 포기하는 것이 나은 선택인가? 헤아릴 수 없는 무겁고 커다란 덩어리였던 공포는 세분화되고 쪼개진다.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못할 지라도 누구의 판단에 의한 누구의 선택이었는지는 상황을 다르게 만든다. 자기방어 훈련의 내용 역시 다양해 질 수

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어떤 것이 나를 상처입게 하는지, 어떤 것까지를 내가 다루어 볼 수 있을지 알게 됨에 따라 훈련은 자기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 과정은 쉽지만은 않다.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 사회를 역류하여, 혹은 그것에서 이탈하여 사는 것은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몸으로 하는 훈련은, 가부장제에 상처받아서 시작하게 된 자기방어훈련이지만, 한 번의 반격, 혹은 한 번의 결정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몸-훈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와 즐거움을 주며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끈다. 이것이 '자기방어훈련'이라는 이름이 한계적인 이유다. 우리는 이것을 '몸과워 훈련'이나 또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르려고 고민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판이 아닌 전혀 다른 판에서 즐거움과 자신만의 힘을 만끽하는 여성들의 다른 가능성, 다른 상상력, 다른 실험은 강간문화의 쉽고 뻔했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

2 주 차,

물 샀어?

- 이성애중심주의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 동넬 / 2006
▶ 벽장 비우기: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와 이성애주의
「엠 아이 블루?」 메리언 데인 바우어 외 / 낭기열라 / 2005
▶ 거꾸로 추는 춤

벽장 비우기

레즈비언 셰슈얼리티와 이성애주의

한채운

1. 들어가며

언젠가 어느 페미니즘 강좌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보니 강좌의 부제가 '레즈비언 여성인가?'로 잡혀 있었다. 왜 이런 엉뚱한 제목이 달렸을까 싶어 물었더니 "그래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수강할 것 같아서"라는 소박한 답변이 돌아와 너털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나는 기획자의 흥행에 대한 압박감을 이해하고 부제를 그대로 두었다. 어찌 보면 속뜻이 깊을 성도 싶었다. 레즈비언 입장에서야 '같은 여성'임을 당연히 부르짖지만, 여성의 대명사를 차지하고 있는 이성애자 여성들도 과연 레즈비언을 '같은 여성'으로 여길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같은 여성'이란 말 자체가 이미 모순일지도 모른다. 대체 나와 나는 같은 여성이다'라는 것이 '최소한 남성은 아니다'라는 것 외에 어떠한 동일성을 더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집안, 학벌, 직업, 사유재산, 외모, 나이, 결혼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재능, 성격,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천차만별일 텐데. 역으로, 설사 레즈비언도 여성이라고 쉽게 인정한다 해도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인정하지 아니할만 못할 수도 있다. 가령, 그동안 여성학에서 해 온 논의나 연구의 카테고리는 성폭력, 성매매, 자위, 피임, 임신, 낙태, 출산, 이혼 등과 함께 레즈비언도 하나의 주제로 나열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폭력, 자위, 임신 같은 이른바 '여성 문제'들을 이성애자의 고유 영역으로 보이게 하고, 레즈비언을 여성의 여러 문젯거리 가운데 한 종류로 인식하게 한다." 이것 은 레즈비언의 삶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기보다 박제되어 진열될 새로운 인간 유형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그런 까닭에 동성애자 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법적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주장하는 근래의 변화에 마냥 신뢰에 찬 는길만을 보내기는 어렵다.

동성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성애자가 누구인지 세심하게 보여 줌으로써 편견과 무지를 몰아내고 이해와 배려를 확장하는 전략은 잠깐 효과 있을 거두는 듯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임무'다. 세상은 '착하게 살아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며, 동성애자가 정의의 이름으로 무릎 꿇아 할 약당이 이성애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빈틈없이 이해시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며, 동성애를 이해시키려 할수록 자칫 이성애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성애와 동성애가 다름 바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동성애가 정상적 이성애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지름길도 아니며,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서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도 없다. 오히려 이 글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이성애자가 다수이고 정상'이라는 그 대전제부터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자 한다. 정말 이성애자가 다수이고 정상일까? 동성애가 무엇인지 레즈비언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설득

라고 보아야 할까? 우리는 대체 몇 살 때부터의 그녀를 '레즈비언'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상상의 범위를 넓혀, 만약 이 여성이 서른두 살 이전에 남성과의 연애나 성폭력, 성희롱 또는 피임, 임신, 낙태, 출산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자. 만약 서른두 살 이전에 그녀가 어느 연구자의 인터뷰 대상이 되었다면 그 경험들은 분명 (이성애자) 여성의 성격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서른두 살 이후의 인터뷰에서 그 경험들은 그녀를 레즈비언으로 만든 계기나, 그녀가 양성애자라는 증거로 분석될 것이다. 다시, 과연 레즈비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당신은 동성애자입니까, 이성애자입니까?"라는 질문과 "동성애를 사랑한 적이 있거나 동성애에게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나 "동성애와 삼입 성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 가운데 어느 것이 동성애자를 찾아낼 수 있는 정확한 질문이 될까? 그 어느 질문도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성애자를 찾는 일은 어떤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누구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누워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게이나 레즈비언을 가려 내려고 하진 않는다. 태어나는 순간 자연스럽 게 이성애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이성애자가 된다. 성장 과정에서 과거의 성경험, 은밀한 개인적 애정사를 시시콜콜 털어놓 으며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단지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듯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나누어 부르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동성애자가 누구인지 정의하거나, 동성애자끼리의 공통점을 묶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가령, 과거에 남성과의 성경험이 있어도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규정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현재 동성 애인이 있고 남성을 좋아해 본 적도 없지만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여섯 살 때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했다는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이 글의 목표가 아니다. 이 글은 이성애 섹슈얼리티의 정상성에 대한 문제제기며, 또한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다.

2 성 정체성 형성 과정의 차이

1) 과연 누가 동성애자인가

생각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여기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서른두 살에 처음으로 동성애 사랑에 빠진 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처음엔 낯설겠지만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명명하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질 것이다. 레즈비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레즈비언 바에도 나가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뛰어난 이반, 땀이나 부치와 같은 단어도 배우고, 애인과 어떻게 섹스를 해야 할지, 동거는 어떻게 할지, 커밍아웃은 언제쯤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로서의 자긍심을 점차 키워 나가다 학술 연구에 쓰인다 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고발한다는 좋은 취지의 사진전이 있다면 용기를 내 모델로 나설 수도 있다. 이제 그녀는 대외적으로 '레즈비언'이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다시 생각해 보자. 스스로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서른두 살 이전의 삶이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분석 자료로 쓰이는 것이 타당할까? 만약 타당하다면 서른두 살 이전의 그녀의 삶은 이성애자로 착각하고 지낸 동성애자의 거짓 인생이라 볼 수 있을까?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과연 어느 연령대에 파악한 정체성이 진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다음에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식했다는 경우도 있다. 성적 행위, 성적 호감, 성적 욕망, 정서적 결속감, 애정적 끌림을 느끼는 대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할 대상과 동거할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레즈비언 가운데서 이른바 '그녀애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녀애자'란, 자신이 동성애자라서 같은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그녀(현재 사귀는 예인)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끼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여성에게 조금도 성적 관심이나 호감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성에게 끝난 적은 많으면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역설한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선녀가 자기는 원래 하늘에 사는 선녀인데 잠시 땅에 내려와 지내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처럼, 동성을 사랑하는 것과 레즈비언으로 규정되는 것을 분리하고 싶어한다.

2)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성애주의의 사회다. 이성애주의란 이성애만을 정상이라고 전제하고, 인간은 본디 이성애자라고 간주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야 한다'는 강제 아래 비이성애적 행위, 정체성, 교제 관계, 공동체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낙인찍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²⁾ 이성애주의는 사회의 전반적인 관습과 제도 안에 깊게 뿌리 내려 있으며, 남성 우위주의적 태도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한다. 누구든 사회 문화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성애주의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배우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성애주의는 동성애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동성애자를 처벌함으로써 이

성에적 질서를 다지고 이성애를 우월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곧 이성애의 정상성은 이성애 자체의 가치와 정당성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 외의 것들에 비해, 도덕, 비정상이란 딱지를 붙이면서 합리화되는 것이다.³⁾ '비정상'이 아니므로 '정상'이 되는 논리다. 그런 탓에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에 시달린다. 어쩌다 동성애자가 되었는지, 왜 이성에게 끌리지 않는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 영향 때문인지, 고칠 수는 없는지, 참아 볼 수는 없는지, 후회하지 않는지 하는 수많은 질문들만 쌓인다. 이에 비해 이성애란 무엇인가, 이성애자란 누구인가 따위의 질문들은 제기되지도 유통되지도 않는다. 이런 시스템은 너무도 완벽하고 편안해 보여서 '이탈'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⁴⁾

그런 탓에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흔히 생 각하는 것처럼 '아! 내가 동성애자구나'라고 인지하는 과정이 아니다. 자신이 남들과 달리 '그다지 이성애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의지를 시험하고 진실을 부정하려 애쓴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 고뇌와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남들처럼) 이성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므로써 비로소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⁵⁾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는 경로와 방식은 모두 다르다.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각자 저마다 다른 '(하)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그 시대의 가치관, 동성애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태도,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필요할 때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각기 처한 주위 환경(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에 대한 반응(수용, 저항, 갈등, 협상)으로, 조건의 변화에 따라 함께 재구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도 아직 가시발길이 남아 있다.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억

압게 되는 때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곳을 박차고 나가 동성애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안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비장은 온통 이성애자로 가득 채우고, '온폐'와 '외장'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공간인 것이다. 비장이, 그 공간 자체가 이성애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없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성애자인 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성애자는 비장 밖이 아니라 비장 안에 있다. 아니, 사실은 세상 전체가 거대한 비장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커밍아웃은 놀라운 것이다. 비장 밖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커밍아웃을 뒤집어 보면 흔히 '이성애자=다수=정상'이라고 믿는 공식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과연 이성애자란 누구인가? 이성애자로 통칭되는 거대한 집단에는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이성애자인 척하는 사람, 이성애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직 동(양)성애자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 같은, 동성애자임을 말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 결국 비장은 '외장'과 '침묵'의 공간일 뿐 아니라 '착시'와 '허구'의 공간인 것이다.

"언제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알았는가? 이성애자가 된 계기나 원인이 있는가?", "동성애를 경험해 보지 않고도 이성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는가?", "왜 이성애자는 동성애를 못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비장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장 밖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비장 밖에서 서 있는 이들이 비장 안을 향해 외쳐 묻는다. "당신의 성 정체성은 무엇인가?"

실제로는 이성애자들도 비장 안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각성하는 일이 두려울지도 모른다.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도 두려움, 자신이 누구인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낯선 환경으로의 변화도 두려울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마치 동성애자를 매우 위험하고 혐오스런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공포증)로 착색되고 위장된다. 그것은

않은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수치심, 알려지면 무시·경멸·구타당하거나 성 정체성 전환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우울, 주위의 편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설득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고통이다. 특히 '결혼'이 효과와 인종의 근간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내외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부른다.

3. 커밍아웃과 비장 속의 이성애자들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는 '커밍아웃'이다. '비장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동성애자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게 된다는 '해방'을 뜻하기도 하지만, 공포를 계도 커밍아웃과는 무관한 이성애자들을 '이미' 비장 밖에 나와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정말 이성애자들은 비장을 나올 일이 없는 비장 밖 사람들일까?

여기서 '비장'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보자. 동성애자가 비장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당당해지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비장은 동성애자임을 부끄러워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자신을 숨겨 두는 은밀하고 어두운 공간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장은 아무나 볼 수 없는 폐쇄적이고 격리된 곳인가? 용기 없는 동성애자들만의 은신처인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거나 이성애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마침내 동성애자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성애주의, 이성애 제도, 이성애 규범이 가장 좋은 시스템도, 가장 안정적인 사회 체제도 아님에도 그 안에 안주하게 만든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성애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당한지 읊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하는가를 역설하는 것은 자칫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작업이 될 수 있다.⁶⁾ 동성애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동성애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하는 식의 논의를 태연스레 하고 있지만, 애당초 그런 논의를 할 자격이 있거나 하며, 있다면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성애자가 서 있는 자리와 동성애자가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 않다. 그 기반은 똑같이 취약하다.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이성애자 역시 만들어진 '이름'이고 뒤늦게 규정된 개념일 뿐이기 때문이다.⁷⁾ 그러므로 '변화'는 이러한 최소한의 자기성찰 없이 는 이루어지지 어렵다.

앞에서 커밍아웃을 통해 비장 밖으로 나왔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이 물리적 공간까지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커밍아웃을 해도 여전히 같은 집, 같은 학교나 직장, 같은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여전히 이성애주의 사회 안에 있는 것이고, 비밀을 털어놓고 정체를 노출시킨 대가를 아끼고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대신 비장 안에서는 빼앗기고 무시되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커밍아웃은 이성애주의의 벽에 구멍을 내고,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고,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행위다. 어쩌면 커밍아웃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에게 필요한 계기이며 평등한 기회다. 커밍아웃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성애주의와 호모포비아를 경계하고 거부하고 지워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장은 비워져야 한다!

로 유행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성적으로 유약하고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⁹⁾

그렇다고 레즈비언의 몸을 향한 시선이 이런 경위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많은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밝혀지면 공간을 당하지 않을 수는 두려움을 느낀다. "아직 진짜 멋진 남자를 못 만나 봐서 그런 거지"라는 말은 레즈비언들이 흔히 듣는 말이다. 나는 직업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다 보니 레즈비언과 한번 자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대놓고 고백하는 남성들도 심심찮게 만난다. 그들에게겐 예쁜 얼굴과 행복한 몸매보다 레즈비언으로 정체화된 몸을 가져 본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마치 여태껏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금단의 열매를 탐하듯, 자신의 이력에 올릴 무용담을 원하는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야말로 그녀를 진정한 여성으로 태어나게 해 줄 영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꿈꾸는 듯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레즈비언의 몸은 소녀의 몸과 통한다. 진짜 성숙한 여인이 되기 전의 상태로서.

레즈비언과 소녀의 이미지를 연결해 어필하는 상업적 전략이 2003년 러시아 출신의 듀오 '타투(tatu)'에 의해 시도되었다. 영국에서는 짧은 체크 무늬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빗속에서 키스를 나누는 타투의 뮤직 비디오를 두고 이동 포노라니, 동성애를 조장한다느니 하며 방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역시 10대에 데뷔한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크리스티나 아길레나의 농담하고 도발적인 뮤직 비디오는 전 세계 수많은 남성 팬들의 자위를 돕고 있지만, 이런 논쟁을 불러오지 않았다. 오히려 세시미와는 거리가 먼 두 소녀가 키스를 하고 서로 안아 줄 뿐인 뮤직 비디오를 두고 아단법석을 떠는 것이 정말 몰리타 신드롬 확산을 직접한 탓일까? 그렇다면 걸스카우트 소녀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중년 남성들을 막기 위해 걸스카우트를 해체하려는 운동은 왜 펼쳐지지 않는단 말인가?

서 주목할 것은 사건의 진행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청년의 집의 태도와 교육위원회의 합리화 논리다. '동성애자가 공공시설인 청년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교육위원회 측은 평등한 대우의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청년의 집에는 남자가 한 방에 묵을 수 없다는 '남녀 별실' 내규가 있는데, 이는 남자가 한 방에 묵을 경우 성관계를 맺을 우려가 있어 정한 것으로, 동성애자는 동성간의 성관계 우려가 있으니 동성애자들의 동성 합숙을 금하는 것이 결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이성애자로 '보이는' 한 청년의 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라고 '밝혀'는'한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차별을 낳게 된다. 아카의 투쟁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게이 스타디즈(게이·스타디즈)》는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호모포비아가 작동하는 방식인 '무지의 가광'과 '이는 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 책에 따르면, 처음 아카가 다른 단체 이용자들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청년의 집 직원은 "나는 오랫동안 장애인 문제를 자주 접해서 당신들의 입장을 잘 알아요. 선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지자 "이젠 지쳐 버렸어"라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켜 버리려 했다. 이에 아카의 한 회원이 "그 정도로 지쳤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20년간 계속 지쳐 왔으니 벌써 목이랑도 매달았겠군요"라고 하자, 그 직원은 바로 "그런 말을 하면 당신들은 사회 안에서 고립되는 거야. 나니까 이 정도라도 알아 주는 거지. 일반인들에게는 통하지도 않아"라고 말했다.

그가 처음에 알았다고 말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잘' 안다는 것이었을까? 또한 역으로 청년의 집 소장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깊지는 않습니 다만"이라고 전제한 후, 《코우지엔(일본어 대사관)》에도 동성애가 "동성에게 성

이렇듯 레즈비언의 몸은 이중적 낙담스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게이에 비해 레즈비언에 대한 관심과 처벌이 적었던 것은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욕망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여자들끼리 좋아해 봐자 달리 뭐 하겠어"라고 무시하거나 레즈비언의 감정을 로맨틱한 우정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레즈비언 이미지가 포르노를 필두로 광고와 영화에서 남성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성애화된 모습으로 적극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 '금기'를 건드린다는 매력도 있지만, 남성의 시선에 맞추어 끊임없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려는 시도의 연속이기도 하다. 레즈비언이 남자의 여자를 뺏을 수 있는 경쟁자로서 승부를 걸어오는 것만 아니라면, 남성은 어떤 여성을 상대로든 키득거리거나 흥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듯 레즈비언의 몸과 이미지는 이성애주의를 완전히 가로질러 걸쳐져 있다.

5. 이성애주의, 우아한 호모포비아의 진실

1) 아카와 엑스존의 중언

1990년, 일본에서 '행동하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모임(이하 아카)'이라는 한 동성애자 단체가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의 집' 이용을 거부 당해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까지 벌인 사건이 있다.¹⁰⁾ 사건의 발단은 아카가 합숙 스타디움 하기 위해 청년의 집에 묵은 날, 청년의 집을 이용하던 다른 사람들에 놀림과 조소를 받은 것에 대해 보호와 시정을 요구하자 오히려 앞으로 동성애자들은 청년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일이었다. 이 재판에

욕을 느끼는 이상 성욕'이라고 나와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곳에서 청소년에게 올바르게 올바른 영향을 주는 일을 하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그가 동성애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 것이 국어사전을 뒤적거리는 것 말고는 없다는 말이다. 이는 자신의 '무지'가 사회 통념에 따른 것이므로 전혀 위험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는 진실을 깔고 있다. 소수자의 차별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돕겠다는 것이나, 나쁜 의도는 없지만 동성애에 대해 잘 몰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중립적이고 평화로우며 정치적으로 무해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치적인 가학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게이 스타디즈》의 저자들은 지적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엑스존(http://exzone.com)'과 '청소년 보호법'이었다.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는 엑스존이 정보통신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결정, 공고가 난 것을 뒤늦게 알고 2002년 1월 행정처분 무효 소송을 걸었다.¹¹⁾ 이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내 유해 매체를 심의 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된 것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카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동성애를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매체를 단속하기 위함일 뿐이지, 결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펼친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매체를 단속한다는 명목이 이성애를 조장하는 매체물이란 개념으로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 이성애주의에 기반해 만든 규칙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결코 평등일 순 없다.

자신은 비록 이성애자이지만 동성애에 대해 편견이 없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객관적이고 올바르다는 위양스를 풍기는 소위 '우아한 호모포비아'¹²⁾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동성애가 청소년이나 에이즈와 관련될 때 더욱 자주 나타난다.¹³⁾ 청소년 성상담 관련 토론회¹⁴⁾에 갔을 때였다. 토론자로 나온 한 정신과 전문의는 자신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다며 "엄격히 말해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만족해서 치료 동기가 매우 약해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을 던지기도 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한 대학 교수가 "여성간의 동성애 대부분이 로맨틱한 우정 정도일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 교수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다른 글에서도 "서구의 '동성애' 개념이 유입된 이후 예전에는 '남만적 우정'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던 관계가 과도하게 성적 지향성을 가진 관계로 인식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¹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여자라면 학창 시절 누구나 한번쯤 겪는다고도 하는, 집착과 질투, 헌신이란 면에서는 사랑과 같지만 성적이지는 않은, 그래서 '남만적 우정'의 범주에 머물 수 있었던 '우정'이 동성간에도 상관관계가 가능하다는 동성애 개념이 등장하면서 '우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그런 까닭에 '우정'을 느끼던 사람들까지 '내가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심을 품을 수 있다. '남만적 우정'이 동성애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왜 유감스러운 일인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왜 정체성 혼란인가? 그것이 꼭 '혼란'으로 불려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동안 동성애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재로 동성애자들이 겪어야 했던 정체성 혼란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만약 동성애자의 동장이 우정은 동성끼리, 예정은 이

끼이 공존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레즈비언의 성경험에서 쾌락만을 꺼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럴 때만 '같은 여성'인가?

'나는 페미니스트인데 불행히도 남성을 좋아해서 피곤하다. 그래서 레즈비언이 부럽다'거나 '이성애자라서 미안하다'는 식의 매우 '인간적인' 발언도 종종 듣는다. 동성애를 비하할 의도가 없다 해도 이러한 발언들은 성 정체성을 단순한 성적 선호의 문제로 다루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무의식적으로 이성애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 행위, 성적 선호,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난해한 학술적 용어를 모두 빼고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다른 무엇이기에 이전에 '삶'의 문제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이 결코 낙락치 않은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결혼을 자처하며 "제가 이성애자라서 동성애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난다. 경협하지 못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좀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유쾌할 수 없다. 그 말에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자로서 이성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할 기회가 애당초 없는 것과 달리, 이성애자라는 사실이 동성애를 잘 모른다는 것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6. 마무리하며

성 정체성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어느 특정한 시기에 확정되어 죽을 때까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와 시기가 다르며,

성끼리라는 이분화된 구도를 쪼갠다면, 이는 오히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남녀간의 '남만적 우정'이 가능함을 시사해 주지 않는가?¹⁶⁾

2) 이성애주의를 횡단하라

레즈비언과 이성애자 남성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며, 여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여성에게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그런 공통점에 기반한 레즈비언과 이성애자 남성 사이의 연대나 유대를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런 공통점이 같은 사회적 위치를 보장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자세히 부연할 것도 없이 가부장제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겪는 성별 억압과 차별에 레즈비언들도 역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레즈비언과 이성애자 여성의 연대는 가능할까? 분명히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가 성 정체성을 지시하는 단어가 아닌데도 '페미니스트'란 말에는 이미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란 말은 쓰지만 '헤테로섹슈얼(이성애자) 페미니스트'란 말을 한국에선 아직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페미니즘은 레즈비언을 대안적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평등한 커를 관계의 이상적 모델이라거나, 비삼입 성교로도 만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거나, 특히 그동안 여성학이 여성의 성을 성폭력과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다루다 보니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쾌락을 간파해 왔는데 레즈비언의 성경험이 여성을 성적 쾌락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유의 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상하기도 하다. 레즈비언의 쾌락, 레즈비언의 사랑, 레즈비언의 존재, 레즈비언의 시각을 인정하고 기

삼아가면서 동성과 이성에게 끌리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섹스를 하며, 누구와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선택의 영역에 속한다. 동성과 섹스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로 규정하고 싶어하고 이성과 결혼한 사람을 이성애자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판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 정체성은 매우 불안정한 개념이므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이분법적 틀에 넣어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로 규정되는 순간,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각각의 특성과 차이가 그 말 안에 매몰되어 버리고, 잊지도 않은 공통점들이 생기면서 하나의 진행성 속에 갇히게 된다. 그렇다고 당장 성 정체성 구분을 없애는 운동이라도 벌이지는 건 아니다. 분류되고 이를 불여진 성 정체성 자체는 허구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부르고 나누는 주체와 그것을 위계화하는 권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성애주의가 허구가 아니고, 이성애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 생기는 불편함 역시 허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는 이성애적이지 않은 존재(비이성애자)로서 '동성애자'로 범주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통해 범주화를 넘어서 인식하는 것,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와 장애인인 연대해야 하는 이유를 주로 '공통적 사항'에 기반하여 강조하는데,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해선 '차이'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가령, 인종 차별, 성차별, 장애인 차별이 피부색, 육체적 성징, 기동의 불편함처럼 밖으로 드러난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달리 동성애자는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이성애자와 구별할 수 없다. 이렇듯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자는 억압과 차별에 덜 노출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대로 언제라도 발각되거나 폭로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항

상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게다가 더 쉽게 전향을 요구받기도 한다. 사람들은 여성에게 성차별이 심으면 성전환 수술을 하라고 할 수 없고, 혹은 여성에게 인종 차별이 심으면 피부색을 표백하라고 할 수 없지만, 동성애자들에게는 이성애자가 되라는 주문이 가능하다고 믿는다.¹⁷⁾ 이런 시도는 동성애 문제를 성적인 위선태의 문제로 보이게 하면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사회적 영역으로 밀어 넣어 국가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연대의 가능성은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의 차이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과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이란 정의에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¹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차이는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의 차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의 지점, 경험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의 차이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개개인을 다양한 차이를 가진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차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차이로 인한 차별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소통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좀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1) 레즈비언을 오로지 동성과 섹스하는 여성이라는 단편적이고 협소한 의미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마찬가지로 '절대 이성애와 섹스하지 않는 여성'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다. 또한 레즈비언만을 위한 전용 교육 시스템이나 행정 복구, 대입 시험 같은 레즈비언 입문 절차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성매매, 자위, 임신, 낙태, 출산, 이혼 등이 레즈비언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이성애주의', 성적 소수자 사전(http://www.kscrc.org, Copyright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 권센터, 2002 ~ 2004).

3)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우월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많다. 어쨌든 이성애는 종족 번식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지구의 어떤 생물체든 생식에 복무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가치가 높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적 행위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 종족 번식은 엄밀하게 말해 여성의 가임 기간 동안에 삽입 성교나 인공수정을 통해 남성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이성애는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양의 조화를 돌며이며 생물체들이 암수로 나뉘는 것이 이성애를 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음이 여성이고 원쪽이라든지, 양이 남성이고 오른쪽을 뜻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론법에 물론 고정관념일 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동성간에도 음양의 조화는 가능하다. 또한 수학적 조합의 가능성을 따져 보더라도 a와 b의 조합은 ab만 있는 것이 아니라 aa, bb, ab도 최소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성별이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이성애만이 정당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논리 싸움은 지루하게 이어질 뿐이다. 아무리 적나라한 성별 역압의 증거들을 나열해도 결코 여성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마초들처럼, 진정으로 자기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

4) 이성애주의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유포하며, 동성애자임이 드러나면 비난, 경멸, 무시, 혐오, 불이익,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협에 시달리게 한다. 판단력을 미비시키고 동성을 사랑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여지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계기마저도 지워 버리는 것이다. 5) 물론 모든 동성애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을 좋아하는 사실을 처음 느낀 후 그리 어렵지 않게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였고 더욱 적극적으로 즐겼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마음가짐이 평생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 가면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6) 이것은 마치 골주려 배가 불룩하게 파어나온 아이의 희망 없는(그러나 친절한) 눈동자를물로 즈임하여 아프리카 기아난민 돕기 모금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방법은 골주려 고통의 전이로 보는 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골주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까지 체면하게 할 수는 없다.

7) '동성간의 성행위'나 '동성의 상대를 사랑하는 일'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지만 '동성애자'라는 명칭, 곧 투쟁한 카데그리와 정체성이 생긴 것은 19세기 말에 돌아와서다. 동성애자를 뜻하는 '호모섹슈얼(Homosexual)'은 1869년 헨리크트라는 한 의사가 고안한 단어이고, 이성애에 해당하는 '헤테로섹슈얼(Heterosexual)'은 오히려 그보다 늦은 1892년에 제임스 키에트란이 시카고의 한 의학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처음 쓰였다. 당시 이성애의 정의는 '이성을 향한 비정상적이고 성도착적인 취향'으로, 1930년대 이전까지 웹스터 사전에도 그러한 의미로 기술되었다. 이런 과정은 Jonathan Ned Katz, *Invention of Heterosexuality*(Dutton Books, 1996)에 잘 설명되어 있다.

8) 영화 〈중독〉과 비교해 볼 만하다. 형수인 은수(이미연)를 사랑한 대진(이병헌)은 형이 우연히 교통사고로 죽자 '빙의'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서 형의 영혼이 들어왔다고 은수를 설득해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다. 빙의는 영화의 충격적 반전 장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관객의 관심이 은수(여성)의 정조 판넬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민와 '빙의'가 없다면 영화는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이 아니라, 두 형제와 동침한 바람난 여자 이야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사랑의 순수성을 해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육체'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동일한 영혼'이고, 영혼의 동일성은 금지된 사랑에 면죄부를 준다. 현실에서 '빙의'나 '환생'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영화는 이 '용납할 수 없는 관계—근원상간, 동성애'에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록 육체는 다르지만 은수는 한 남자에게만 몸을 허락한 것이고, 은수는 여전히 이상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화 관련 사이트에서 〈번지점프를 하라〉의 감상평을 보면 '이 영화를 동성애를 다룬 영화라고 해선 결코 안 된다'라고 부르짖다시피 하는 글들이 많다. 결국 가부장제 남성 우월주의나 이성애 중심주의는 같은 뿌리다.

9) 〈웹스터의 편집장인 이영재가 2003년 2월 23일 〈굿데이〉 신문에 올린 칼럼 〈레즈비언은 집정부의 이상행위〉란 글을 참고하였다. 글을 요약하자면, 남성들은 더 많은 여성들을 팔로워의 극치로 끌고 가는 것이 남성의 능력이라고 믿는데, 과연 자신이 까다롭고 예민한 여성들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며 속으로 전전긍긍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래서 레즈비언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10) 1990년 2월, 아카는 '부중 청년의 집'에서 스터디 합숙을 하였다. 이틀 단체들간의 인사 시간엔 아카가 동성애자 단체인 것이 알려진 후, 아카 회원이 목욕하는 장면을 일부러 구경한다든지, 스터디 도중에도 이유 없이 회의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복도를 지날 때 "이것들은 호모"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생겼다. 심지어 면전에서 "호모", "오카아(일본에서 게이를 비하해서 하는 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던지며 비웃는 행위가 이어지자, 아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회의한 후, '청년의 집'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제한 행동을 한 단체와 이야기하기 위한 임시 회의를 열어 줄 것을 직원에게 요청하였다. 하지만 어렵게 열린 임시 회의에서 기독교 단체는 〈성경〉 구절을 소리 내어 읽는다는지 하면서 모욕적인 행동을 했는데, 되레 이에 항의하는 아카가 제지당했다. 한 달 뒤, 아카는 '청년의 집' 소장에게 이 차별 사건에 대한 시정과 사과, 대책 마련 같은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소장은 다른 단체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동성애자들의 이용을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카는 마침내 1991년 2월 도쿄도 교

육위원회'의 '창년의 길' 이용 거부 결정을 위법으로 제소하게 된다. 이 재판에서 이가는 1994년 3월,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26만 7000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교육위원회 측이 항소했지만 1997년 2심에서도 승소하였다.

11) 엑스존은 2000년 8월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결정받고 그 해 9월 고시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운영자에게도 통보해 주지 않아 엑스존이 유해 사이트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둘러싼 싸움에서 엑스존이 유해 사이트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2001년 1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1항에 따라 전자적 표시 방법으로 '유해 사이트'임을 표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엑스존 운영자는 2002년 1월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2002년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엑스존은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2003년 12월 22일에 패소하지만, 판결문을 통해 "이 결정의 근거가 된 동성에 관련 조항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법원의 의견을 받아 내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심이 재류 중이다. 문제가 된 2003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 다항은 "수건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성 등 반대 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이 '다항'에서 동성에 항목은 2004년 4월 30일자로 완전 삭제되었다.

12) 호모포비아는 동성애혐오증과 동성애공포증. 그러한 혐오증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다.

13)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결시키는 것도 같은 차원의 문제다. 정부를 비롯해 에이즈 예방 단체와 언론은 호파적인 에이즈 예방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한 해에도 수차례 인제 민영 결립 바이러스(HIV) 감염인 수와 에이즈 환자 수를 발표한다. 그중 동성애자가 몇 명인지 밝히는 것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물론, 이성간 성접촉 비율도 함께 발표되지만, 이성애자가 다수이고 이성애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사회에서 이성애자가 어떤 질병에 감염되는 것 역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그것이 같은 무게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차이가 없다는 말은 그런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을 포함한다. 가령, 다음 네 문장을 서로 비교해 보라. ① 여성 이성애자가 여성 동성애자를 차별한다. ②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을 차별한다. ③ 여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여성이 여성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을 차별한다. ④ 남성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 남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여성을 차별한다.

립다. 단언컨대, 설사 감염인 가운데 99%가 이성애자라고 해도 에이즈 전파의 주범이 이성애자라는 분석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구별해지며 숙주를 선택하는 것도 아닌 다음에야, 혈액이나 정액 같은 체액으로 전염되는 수많은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에이즈에서만 유독 성 정체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까닭이 없다. 8형 간염의 감염 경로도 에이즈 감염 경로와 유사하지만 에이즈처럼 동성애자와 밀접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 사람의 동성애자 비율 따위를 따지지도 않는다. 부정할 바 없이, 에이즈에서 동성애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과 편견일 수밖에 없다. 에이즈에 대한 과잉된 두려움, 동성애의 과잉 성예화를 적시하지 않는 태도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이거나 그것 을 파악하지 못할 만큼 무지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14) 2003년 10월 16일, 한국청소년상담원 주최, 제24회 특수 상담 사례 발표회—'청소년의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15) 합인회, <서구의 게이/레즈비언 연구—'광금시대'를 열다> {이화대학원신문} 2003년 10월 15일자.

16) 이성애자 여성의 가장 좋은 친구로 남성 동성애자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흔하다. 이런 구도에서는 두 남자가 철사 침대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라도 성적 긴장감이 전혀 흐르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욕을 품지 않는 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두고, 서구에서 들어온 동성애 개념이 당연히 '별정적일 수 있는 예정' 관계에 과도하게 성적 지향성을 개입시켜 사랑과 우정을 혼동하게 만든 것이라 고 분석한다면 과연 타당하겠는가?

17) 지금의 컴퓨터가 가능하도록 첫 모델을 고안하고 인공지능이란 개념을 처음 생각한 영국 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1912~1954)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39세 때 동성애 혐의로 체포(역시 오스카 와일드에게도 적용되었던 법률인 '불만 행위 일반에 대한 위반'으로)되어 법원으로부 터 1년간 보호 감찰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주사를 명령받았고, 호르몬 주사를 견디다 못한 앨런 튜링은 결국 2년 후 청산가리를 주입한 시약을 배어 먹고 자살했다.

눈
메리언 데이 배우어
거꾸로 추는 춤

에니에게

어쩌면 나는 네 살 때 이미 내 자신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들이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말이다. 그해는 라인하르트 선생님의 어린이 발레 교실이 고향 마을 여성회관에서 공연을 올린 해였다.

나는 햇살이었다. 아니, 우리 모두는 햇살이었다. 우리 발레 교실 아이들은 모두 열 명쯤 되었다. 그날 우리는 노란색 공단 드레스를 입었다. 그때 입었던 옷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자그맣게 부풀린 소매부리와 짧은 주름 치마. 그리고 같은 색으로 받쳐 입은 팬티까지.

나는 팬티를 드레스 색깔과 맞춰 입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렇게 입은 날이면 팬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땀글땀글

거나 재주를 넘기도 했다. 아니면 그냥 치마를 들어올리고 서서 동네 남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쳐다보기도 했다. 그러다 오빠가 엄마한테 일러바치는 바람에 혼난 적도 있었다. 엄마는 화를 내며 나를 꾸짖었다. 드레스랑 팬티랑 색깔이 똑같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감추고 다닐 거면 색깔을 맞춰서 입는 게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그날 학예회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은 것은 의상 때문도, 팬티 때문도 아니었다. 그날 내 모습은 다른 햇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춤을 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제* 동작을 하면서 무대에 등장하기로 되어 있었다. 관객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나오면 공연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하고 있던 작은 방과 공연장 사이에는 커튼이 쳐진 문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관객이 어느 쪽에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디를 보며 등장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친구들과 한 줄로 서 있다 말고 몇 번이나 문 쪽으로 갔다. 그러고는 커튼을 들추며 공연장을 빠르게 들여다보기까지 했다. 사람들 얼굴이 어디 있지? 아, 맞다. 저기 보인다. 하지

*발을 끌면서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춤 동작.

만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금세 까먹고 말았다. 객석이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살다 보면 때로는 '이건 무조건 확실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런 순간이 아니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헛갈리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눈 딱 감고 한 방향을 정한 뒤 제발 맛기를 빌면서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설렘으로 온몸이 떨려왔다.

음악이 들려오자 우리 어린 발레리나들은 다같이 사세 스텝을 밟으며 무대에 입장했다. 선생님이 시킨 대로 객석을 향해 활짝 웃으면서, 나도 물론 사세 동작을 하며 들어갔다. 활짝 웃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벅을 보고 웃고 있었다. 관객들이 키클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여성회관을 찾은 아줌마들 모두가 지금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 엄마도 끼어 있다는 것도, 뿐만 아니라 아줌마들이 내 실수를 잡꼭하게 여긴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줌마들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니 어쩌면 웃음 때문에 나는 돌아설 수가 없었다. 지금은 춤 동작에만 집중해야 되는

민기치 않겠지만, 그러고는 난 웃어버렸다. 난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가 네 살 때 그랬듯이 열일곱 살인 지금도 내 자신에게 충실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스테판 마리 수녀님한테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날 일을 이렇게 건방진 투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성 마리아 여학교에서 누군가를 내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때는 1965년이었고, 수녀님들은 누구를 내쫓는 교양머리 없는 것은 결코 하지 않았다. 수녀님들은 신디와 나에게 학교를 떠나달라고 정중히 요구했을 뿐이다.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같은 애들은 다른 학생들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수녀님들과 나이 들어가

는 노처녀 선생님들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문학 수업 도중에 교실에서 불러 나왔던 순간은 등골이 어찌나 오싹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우리는 회극을 공부하고 있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작가는 메리엄 치는 늑대는 꺾어 오스카 와일드였다. 물론 아무도 그가 꺾어라

는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는 회극 작가, 말하자면 명망 높은 예술가였으니까. 꺾어에 대한 입장과는 상관없이 성

마리아 여학교는 명망 높은 예술가라면 높이 쳐줬다.

스테판 마리 수녀님의 오른팔인 브라운 선생님이 교실로 들

데 이제 와서 돌아서서면 뒤죽박죽될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춤을 췄다. 다른 애들과 똑같은 동작을 다른 애들만큼 멋지게 보여줬다. 끝까지 관객들에게 동을 보인 채로 말이다.

나는 춤이 끝나고 인사를 할 때가 되어서야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춤을 망치지 않고도 돌아설 틈이 생겨서 돌아선 것뿐인데 아줌마들은 더 벅잡을 잡고 웃었다. 난 무릎을 굽혀 절을 하면서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웃고 있는 아줌마들의 무례한

을 일깨워주려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마저 아줌마들한테는 잡꼭해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말을 꺼낸다는 듯이 한껏 낮춘 목소리로 물었다.

"테이아, 들어오기 전에 다른 애들을 한 번 쳐다보지 그랬

니?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춤을 봤으면 됐을 텐데."

난 정말이지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다. 내 방향 감각 외에 다른 것을 확인해볼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말밖에는. 내 방향 감각이 엉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다른 걸 확인해볼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디랑 내가 성 마리아 여학교에서 쫓겨나던 날, 나는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꾸로 춤을 췄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쨌든.

"테이 에반스와 신시아 오코넬은 스테판 마리 수녀님 방으로 나를 따라오도록, 지금 당장!"

반 아이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었던 마리 투스 선생님께서 기겁을 했다. 크나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스테판 마리 수녀님의 방에 불러 갈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브라운 선생님은 안경테 너머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며 얇은 입술로 입맛을 다셨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곤경에 빠졌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학생들이 교장 수녀님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여자 일생 최고의 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책을 쥔 채 교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브라운 선생님을 따라 복도를 걸어갔다. 우리는 이따금씩 어깨가 살짝살짝 부딪힐 정도로 바짝 붙어서 걸었다. 브라운 선생님은 바짝 마른 체격치고는 걸음걸이가 빠르고 힘이 넘쳤다. 우리는 감히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못한 채 허겁지겁 선생님의 뒤를 쫓았다. 교장실로 불러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앉거라."

스테판 마리 수녀님이 교장실로 들어선 우리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순진한 얼굴로 벽에 붙은 의자에 나란히 앉으려 하자 수녀님은 "아니!"라고 덧붙이더니 의자 하나를 가리키며 신디에게 말했다.

"넌..... 저쪽에."

그러고 나서는 나에게도 턱짓으로 다른 의자를 가리키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리고 넌 저쪽에."

신디는 수녀님이 가리킨 의자에 앉았고, 나는 멀리 떨어진 의자로 갔다. 벌써부터 나는 신디와 떨어진 것 때문에 가슴이 쓰라렸다. 신디는 내 룸메이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신디의 커다랗고 질푸른 눈망울은 슬픈 영화를 볼 때나 단지 너무 피곤할 때도 금세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고는 했다. 나는 그 현 신디를 세상에서 보호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여겼다.

브라운 선생님은 문 쪽에 자리를 잡고서 마치 교도관처럼 출구를 막고 서 있었다.

신디와 나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그리고 착한 학생이기도 했다. 성 마리아 여학교의 다른 학생들 못지않은 모범생이었다. 교장실에 있는 네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신디도 분명히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이

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노려보느라 색이 바래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카드를 쓴 거예요. 그냥....."

나는 숨이 차올랐다. 우리가 추궁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죄목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달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레즈 비언에 대해서는 몰라서 알고 있었다. 목요일에 노란색이나 초록색 옷을 입으면 동성애자라는 말도 있었다. 열일곱 살이 되도록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다. (물론 나는 목요일에 노란색이나 초록색 옷을 절대로 입지 않았다. 그건 신디도 마찬가지였다.)

신디가 나를 거들었다.

"그냥 재미 삼아 그랬어요. 재미로 카드를 샀던 거예요."

"정말 촌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초조함 때문에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갔다.

"너희 둘 다 교향에서 카드 보내줄 남자친구가 없단 말이니?"

브라운 선생님이 뒤에서 물었다. 밸런타인데이에 카드 보내주는 남자친구 하나 없는 게 무슨 죄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다.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선생님은 있어요?'라고 덧붙이고 싶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말도 어리석진 마찬가지였다.

있었다. 아무리 착해도 이번 일은 무사히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방 안의 공기 자체가 얼어붙어 있을 것만 같은 오랜 침묵이 흘렀다. 마치 우리 모두 점점 산소를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스테판 마리 수녀님이 입을 열었다. 수녀님의 부드러운 동그런 얼굴은 머리에 쓴 베일에 눌러 찌푸려지고 있었다.

"너희들, 이게 뭔지 설명해보거라."

수녀님이 밸런타인데이 카드 두 장을 들어올렸다. 우리가 찾은 가장 촌스럽고 레이스가 많이 달린, 낡살 뜯는 카드였다. 한 장은 내가 신디에게, 한 장은 신디가 나에게 쓴 것이었다.

나는 신디를 쳐다보았다. 신디의 뺨이 화끈거리며 빨개지는 것이 보였다. 안경 뒤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입을 열었다.

"장난이었어요."

우리 방의 메모판에 꽂아두었던 카드가 어떻게 수녀님 손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할 거들도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변명을 했다.

"밸런타인데이 때 교향에서 카드를 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남자친구한테서 말이예요. 아시잖아요?"

수녀님은 잠자코 있었다. 수녀님의 눈도 파란색이었지만 얼음처럼 창백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느라, 아니면 잘

"남자친구가 왜 필요하죠? 남자애들은 정말....."

"무식해요."

신디는 내가 찾던 단어를 말했다. 그건 우리 둘만의 버릇이었다. 상대방이 시작한 문장을 자기가 마무리하는 버릇.

수녀라면 그런 식으로 남자를 헐뜯는 말을 듣고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적어도 1956년에 나는 수녀라면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여자아이들을 성 마리아 여학교에 보내는 이유였으니까. 남자애들을 못 만나게 하려고 말이다. 그리고 이 방면에 대한 수녀님들의 책임감은 참으로 대단했다. 신디와 내가 모범생으로 인정받게 된 것도 몰래 시내로 나가 남자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점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스테판 마리 수녀님은 얼굴을 더 찌푸리기만 했다. 마치 누군가 입술을 실로 꿰매 평평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브라운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수녀님 책상 옆에 서더니 다 그치듯 물었다.

"그럼 너희들 침대는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침대요?"

신디와 내가 동시에 물었다. 오늘 아침에 침대 정리를 압박했나?

스테판 마리 수녀님은 녀석한 소맷자락을 흔들며 손을 빼내 깎지를 끼더니 책상 위로 몸을 굽혔다. 우리 침대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이 될 거라는 표정이었다. 수녀님은 은밀한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너희 방 바로 위층 세면대가 막혀서 물이 넘쳤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던 브라운 선생님이 혹시 아래층으로 물이 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너희들 방에 들어갔지." 나는 명청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이 새면가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침대가 어떻게 말이지? 브라운 선생님의 벌어진 입술 사이로 이가 번들거렸다. 선생님은 또 다그쳤다.

"왜 침대를 붙여놔지? 왜 침대가 원래 위치대로 각각 반대편 벽 쪽에 있지 않고 나란히 붙어 있지?"

왜라니? 나는 슬그머니 신디를 바라보았다. 신디는 바닥을 툭 어지거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정말로 수녀님이 의심하는 그 짓을 하다가 들켰어도 이보다 더 죄인 같은 표정은 못지않을 거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나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그냥..... 수다 떠는 게 좋아서....."

내가 듣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이었다.

"수다? 너희는 침대를 그렇게 바짝 붙여놔야만 수다를 떨 수 있단 말이나?"

수녀님이 다그쳤다. 바로 그때, 신디가 허리를 펴고 턱을 치켜들더니 심문을 끝내버렸다.

"우리 바짝 붙어서 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태연한 말투였다. 우리 행동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술가락을 포개어놓은 것처럼요."

방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사랑스러운 나의 신디! 겁쟁이 인 줄만 알았던 나의 신디! 그 순간만큼 신디가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그렇게 신디는 등을 곳곳하게 세우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우리가 성 마리아 여학교에서 보낸 시간에 종지부를 찍었다.

난 솔직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수녀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지를 신디가 이해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이해하고도 아랑곳하지 않은 건지. 하지만 어느 쪽이든 나는 신디 편이었다. 신디는 진실을, 우리의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 신디 말대로 우리는 낡은 기숙사의 습하고 서늘한 방에 나란히 누

워 있는 것을 좋아했다. 튼튼한 양팔로 서로를 감싸 안은 채 목 뒤를 간질이는 서로의 숨결과 살갗에 달라붙는 폴란넬 잠옷의 촉감을 느끼는 것. 그제 전부였다. 딱 한 번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누워 있다가..... 입을 맞쳤다. 하지만 너무나도 잠깐 놀라서 그 후로 다시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

스테판 마리 수녀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아니요!"

"아니라고?"

수녀님이 받아쳤다. 수녀님의 옅은 눈썹이 치켜올라지면서 베일 속으로 사라졌다. 수녀님이 조용하게 물었다. 하지만 수녀님의 질문에서는 내가 내지른 고향보다 더 강한 힘이 느껴졌다.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 어떻게 알았지, 테아?"

"어떻게 모르겠어요?"

내가 대꾸했다. 놀람게도 울고 있는 건 나였다. 너무나 침착하게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신디 대신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수녀님은 변태예요, 두 분 다 진짜 변태예요!'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입에 담기에는 가정교육을 지나치게 잘 받았다.

게다가 그 순간 나는 어떤 깨달음에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 다른 모든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심지어 부모님이 콜라봉은 사립 대학교에 합격하려면 꼭 필요했던 성 마리아 여학교 졸업장까지도 뒷전으로 밀려날 만큼 엄청난 깨달음이었다.

지금 신디와 나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짓을 했다고 비난을 받은 것이었다. 정말이지 그 순간까지 우리 둘 다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열린 가능성,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가능성에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난생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현실적인 사랑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이 수녀님과 부모님에게서 인정받는 것이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음을,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을 만큼 절실할 수도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교장실에서의 나머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수녀님은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끔찍한 소식을 전했다. "파님 이..... 그래도 철저히 감시하고 더 이상 못 만나게 하면, 언젠가는 펜슬이칠지도 모르겠습시다만..... 그때까진 저희 성

마리아 여학교가 그런 위험을....."

일부러 기억에서 지운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대부분 잊어버렸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은 신디와 내가 짐을 싸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을 때부터다. 우리는 너무나 순수하게, 그리고 너무나 아깝게 보내버린 세월이 깃들어 있는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섰다.

신디도 나와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방식으로 깨달았던 게 분명했다. 고개를 돌려 마주본 신디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채로 빛이 났다. 마치 학교 예배당의 스테인드글라스에 그려진 천사 같았다. 천사가 연주하는 하프의 현처럼 두려움과 황홀함이 우리 사이에서 떨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흐른 뒤, 우리는 팔을 벌려 서로를 안고서 길고도 달콤한 입맞춤을 나눴다.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성 마리아 여학교의 모든 방문은 장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아니, 생각이 났어도 무시해버렸을 것이다.

마침내 서로를 감싸 안은 팔을 내렸을 때 먼저 움직인 사람은 신디. 소중한 나의 신디였다. 나를 어루만지는 신디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비단 것처럼 곱고 따스한 살갓을 맞댄 채, 우리의 깊디깊은 교감이 시작되었다.

나는 1987년에 뉴베리 아너 상을 수상한 『명세할 수 있어』(On My Honor)와 1993년에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좋은 책'으로 선정된 『내 이야기는 뭐니?』(청소년을 위한 창작 지침서)What's Your Story? A Young Person's Guide to Writing Fiction, 그리고 가장 최근작인 『민중의 문제』(A Question of Trust) 등 열세 권의 책을 청소년을 위해 썼습니다.

『거꾸로 추는 춤』은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면서 꾸며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살 때 거꾸로 춤을 춰서 관객을 웃긴 부분은 실제 있었던 내 경험담입니다. 희극에 나는 그날 다른 아이들을 보기만 했어도 내 위치가 이른바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는 여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성당에서 운영하던 여름 수련회에서 교사로서 봉사한 경험은 있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수녀님들도 인정한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이 지나고 우리는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너무도 순수해서 성당에서 우리를 거절한 이유를 차마 입에도 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 사이에 꽃피울 수 있었던 달콤한 가능성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습니다.

1년 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열여덟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도 곧 같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뒤에야 나는 그동안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얻은 깨달음은 네 살 때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관객의 시선이나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출생입니다.

3 주 차,

같이 살자.

- 가족

『쥬이쌍스, 그녀들의...심장』 / Saybooks / 2004

▶ 엄마에겐 세뇌가 필요해

▶ 결혼이란 로또랑 뭐가 달라

▶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또 하나의 문화 제17호: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또 하나의 문화 / 2003

▶ 화목한 가족이 뭐야

“가족을 벗어나 ‘관계’를 꿈꾸다” 이승민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설을 맞아 가족주의와 전선을 긋다 - 그들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관계에 저항하기” 최현숙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엄마에겐 세뇌가 필요해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어딘가 캠프를 다녀왔을 때, 집이 좀 어려웠던 그때, 돌아온 나를 보고 열집 아줌마가 했던 이야기는 내가 듣고 싶을 때 꺼내는 단골 소재 중 하나였다. "두툼한 잠바를 못 사 줘서, 날도 추운데, 버스 타고 가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했다고 그러더니만 애 잘 다녀왔네"라고 놀리듯이 말하는 아줌마와 민망해하던 엄마, 그리고 웃을 여러 벌 겹쳐 입은 채로 내가 서 있던 장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다시 새 사업을 시작한 이빠와 생활비를 위해 김밥집을 차렸던 엄마. 집안일을 전혀 거들지 않고 방치해 둔 것도 어쩔지 자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부채감으로 혼내지 않았던 엄마. 그때,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애뜻한 마음이었다. 미디어에서 감동스럽게 다루는 그 '어머니 상'에 대략 부합해 버리던 내 엄마.

아, 그런 것도 마상 상황이 다치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런 마음과 따로 노

는 내 마음은 어서 독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득했고, 엄마와의 잦은 충돌은 지루했다. 대학에 들어가고 딸은 도통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다. 대학에 가면 좀 딸이랑 이런 저런 것들을 하겠지, 은근히 기대했던 엄마는 날이 갈수록 화가 났다. 매일 늦는 귀가에(하루이름이어야지) 지점지도 않은지 꼭꼭 전화해서 "어디냐, 왜 매일 늦냐"고 짜증을 내는 엄마, 왜 매일 자면 잠 중간에 깨서 전화를 하는지 답답하다고, 알아서 들어가니까 좀 자라고 대꾸하는 딸, 엄마는 딸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면서도 자꾸만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딸이 미운가 보다. 나는 나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엄마를 무척 임하게 방치해 두고 말았다.

엄마의 분노는 가끔씩 사뭇 '특이한' 곳에서 폭발하기도 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온 날, 평소의 걸음걸이와 옷차림을 모두 거론하면서 "너가 남자가 되고 싶냐"고 물었고 분명히 웃었는데 웃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 버리기도 했다.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아, 정말 말도 안 되지),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별짓 없다는 90년대 후반의 청바지 광고 카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냥 그게 편한 거다"라는 것 이상의 이야기, 그때 나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매척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말해 버렸지만,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마음을 모를 바도 아니라서 한없이 씁쓸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엄마에겐 '세뇌'가 필요하다고.

세뇌 1 가족은 좀 따로 볼 필요가 있는 집단이다. 사실 이전 좀 변변한 일일 수 있다. 엄마, 이빠, 나, 남동생 — 한국에서 권장되는 전형적인 형태의 이 가족

은 역시나 전형적으로 엄마를 '작취' 해서 여태까지 왔다.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고 돈도 벌었다. 그보다 더한 건 가족들을 전부 챙겨야 한다는 거였지만(솔직히 말해 기업 경영 따위보다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하여간 그렇게 모든 일에 가족을 우선으로 두고 싶었던 엄마에게 갑자기 자기 알기름 좀 한답시고 우리, 이제 좀 관심 끌고 살자는 건 차라리 배반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 설정이 필요한 건 맞다. 나는 몇 년 안에 독립하게 될 거고, 동생도 마찬가지니깐. 사실 지금도 대략 엄마가 살던 맥락에서 봉 뜯든 감이 있다. 30년 이상을 다닌 회사를 퇴직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앞서서 그저 '떨어져 버리기' 전략을 썼다. '일부러' 전 화기 꺼 놓고 외박해 버린 적도 있고(꽃겨났었지만) 하여간 엄마가 알아서 적 용해야지, 하고 있었다. 근데 그건 좀 아니었다. 주기적으로 엄마는 폭발했고, 싸웠고, 너무 많이 속상해했다 — 그러면 나도 속상해한 건 당연하고, 사실 꼭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게 2년 이상 지속되니 술을 든감해지기도 한다.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대화'. 원래 엄마랑 이야기는 많이 했다. 가끔 말이 붙으면 새벽 3~4시까지 얘기를 나누었으니깐. 아, 이제 또 제 밋는 게 이야기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 그 이야기는 '세뇌 2'에서 이어하기로 하고, 하여간 '엄마랑 친하기'는 섬세한 마음을 많이 풀어 주는 거라 참 팬찮은 일이다(아, 나는 너무 엄마가 내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나 보다). 나머지 는 엄마의 몫이다. 새로 생겨 버린 시간들과 공간들에 자리를 잡아 가는 건 엄마의 몫.

세뇌 2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_ 22살인 나로서는 앞으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으니까 또 그런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다, 했다. 한 20%쯤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를 후인가 했던 말은 나를 아주 배를 잡게 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왜냐면, 사람이 세스를 안 하고 살면 병이 생기는데(여자는 자궁에 병이 생긴다), 하여간 그것도 그렇고 세스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결혼 안 하고 세스하려면 안정적인 파트너도 없고 사람이 또 그런 거 함부로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였다. '엄마, 언제는 세스해 봤자 여자는 아프기만 하고 별로 좋지도 않고 한 번 하고 나면 남자가 자꾸 하자고 그러다고 손해니깐 하지 말라(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냥 '아빠가 연간히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 으하하. 하여간 엄마의 새로운 논리에 잠시, 아주 잠시 나는 두 손을 들기도 했던 거였다.

어린 여자애가 결혼 안 한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말로 비치고 말기도 하지만, 너무 크고 중요한 한 부분을 나는 아직 약간은 망설이면서 조심스레 결정해 놓은 거고, 엄마랑 그걸 나누고 싶다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만큼 사람 대 사람에서 '애증'으로 얹히는 관계도 없는 것 같다. 나한테는 무지 싸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 엄마는 여기 한국에서 거의 50년을 여자 로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니 그 절반 정도 살아온 나랑 또 너무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들도 정말 많은 거고, 또 무엇보다 내 엄마인 거다. 내 엄마. 이 글을 쓰다가 나는 한 달 후에 있을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두 장 예매했다. 괜히 엄마한테 예쁜 것이 하고 싶어 버렸다. 아유~ (1999)

'가족'이라는 게 꽤 커다란 이슈일 수밖에 없다. 혼자 살 건지, 누군가와 함께 살 건지,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그 형태는 결혼을 할 건지 등을 고민한다. 지금은 '결혼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한국과 같이 삶이 획일적인 사회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팔학교라든지, 비혼(非婚)이라든지(자발적인 비혼일 수도, 혼인이나 마찬가지로인데 남들이 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애를 안 낳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너무 커다란 일탈로 비추어진다. 뭐, 우리 엄마도 이런 가치관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대학 들어가니 술을 남자친구 안 사귀나, 연애를 미리 해 봐야 결혼을 잘한다부터 시작해서 너 괜히 나중에 시집 안 간다 어쩌다 하면서 엄마 속 썩이지 말라고 한다. 어디서 점을 보고 와서는 너는 니 짝을 엄마가 구해 주라더라는 얘기를 듣곤 없 이 하지를 않나 — 하여간 코미디다. 이려다 큰일나겠다 싶었다. 넌지시, 하나씩 이야기를 비추기 시작했다.

"나 결혼 안 할 건데."

그리고는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다. 솔직히 결혼해서 득 보는 건 남자잖아. '성공한' 여자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은 건, 일하느라 안 한 게 아니고 결혼 안 해서 신경 안 쓸 수 있어서 성공한 거잖아(아니 뭐, 내가 '성공'하겠다는 건 아니고). 엄마는 꼬덕인다. 맞다고, 결혼하고 나면 여자가 신경 써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 넌 지시 얘길 흘린다.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좀 지루하고, 하나의 진보를 이야기한 다면 — 얼마 전에 엄마가 그러는 거였다. '하긴 엄마 때야 결혼 안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지. 여자 혼자 먹고 살 수도 없고, 인간관계도 정말 전부 결혼을 하고 그거 중심으로 짜여지니깐. 근데 요즘 보면 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

결혼이랑 로또랑 뭐가 달라

"엄마, 이혼했어?"

그것은 딱 그만큼의 의미였다. "네"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쉬운 질문. 내게 그 말은 마치 밥 먹었어? 와도 같은 의미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다. 대신 전혀 맥락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TV를 켜고, 주말 드라마를 지독히 싫어하던 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또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처마다 지남하고도 끈적한 사정 속에서 가족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복잡해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나 역시도 내 인생에서 그런 실패의 요소들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가족을 이야기할 때의 나를 보면 클라기 짝이 없다. 사실 이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긴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고 자신의 이기적인, 못된 성질을 여실히 반영한 결과이다.

우리 가족은 결코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꽤나 동서고금에 오래 쓰이는 이 말을 보며 나는 "피도 피 나름이지"라며 피식 웃는다. 가족 모두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는 우리 아빠와 정말 인간적으로 잘 맞지 않고, 다시 태어나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만난다면 절대 친구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은 대학생이 된 지금 더욱 심해져서 아빠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은 지는 4년쯤 된 것 같다.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나는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그와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마 때문이다. 나는 편식이 심하다. 사람도 음식도 애정도.

부모가 화목하지 못할 때 아이는 일찌감치 가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 가족의 핵심은 부부라고들 하지만 그 부부의 화목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80년대, 정말로 사는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답답던 노총각과 노처녀가 주위의 기대에 떠밀려 몇 번 만나 보고 결혼을 결정했다면, 그 만남이 성공적일 화목이 대체 몇 퍼센트일까. 대부분의 결혼은 로또와 같은 것이다. 부부 간의 차이에 대해 그와 그녀의 부모들은 '참고 맞추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쉬운 리 없다. 나의 아빠와 나의 엄마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내 부모는 꽤나 자주 싸웠다. 그들의 결혼은 마치 콜라에 밥을 말아먹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완벽에 대해 일종의 강박을 가지고 있던 나는 우리집이 동화처럼 화목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느라 꽤나 고생했지만, 이제 주위를 둘러볼 때 그렇게 그림 같은 집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나는 스스로 '행복'하게 자랐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실 프로이트식으로 설명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

림, 가족에 대해 눈곱만큼의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에게 나는 동화 같은 가족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은 가족이 화목한 가정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신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사실 그 과정은 무척 힘든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왜 더 빨리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그 책임의 모든 부분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끈을 놓아 버리지 못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번지르르한 절포장을, 사실 나는 엄마가 그토록 맞지 않는 그와 왜 이혼하지 않았을까, 혹은 못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꽤나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일단 '갈라서자'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서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암묵적 룰이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발로 끝이 났다. 그들은 애초에 헤어질 생각이 없던 것이다. 나는 왜 그토록 똑똑한 그녀가 그 지난한 인간관계를 끊어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하물며 피로 맺어진 나조차도 그렇게 쉽게 끊어 버린 관계인데, 그녀는 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걸까.

물론 분명히, 정말로 분명히 내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그저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모든 것인 어린 시절에 그녀가 이혼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에게 다행이다. 만약 그때 그녀가 이혼을 했다면 그녀가 아무리 내게 사랑을 주었다고 해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묻혀 프로이트가 원하는 대로 자랐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녀도 코를 흘리며 엉엉 우는 작은 계집애를 데리고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것이 사인 곡선처럼 반복되면서 나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혼'이란 말이 TV에서 보던 <올리버 트위스트>와

정 환경에 있었던 나는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성인이 되어야 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다(사실 완전히 '아니다'라고도 말 못하지만). 요컨대 나는 남들이 말하는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사실 별로 불행할 것이 없었다. 부모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 '배타적인' 인간관계에 힘입어 내 편을 꽤나 명확하게 정해 두었다. 엄마는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는 가끔씩, 아빠를 거론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어려움이나 자신이 특별히 베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이미 나는 필요한 걸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된 한 가지는 내가 로또에 걸리는 화물로 부모를 선택할 때 그 부부가 화목할 화물이 꽤나 극미하다는 사실이었다. 운이 좋아서 그림 같은 집에 태어났으면 좀더 좋을 뻔했을지도(과연, 정말?) 모르지만, 처음부터 안 맛을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강박적인 화목을 기대하는 건 별로 생산적인 일은 아니다.

어린 나의 눈에도 아빠는 우리집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보였다. 그는 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어린애랑 놀고 정원을 가꾸고 가족 여행을 가는 것보다 그의 친구들에게 더욱 관심 있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며 밤새 돌아다닐 만큼 그는 친구들이 좋은 호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금씩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가정이고 싶어했던, 허울 좋은 남편과 아빠, 그는 가족이 아니었다. 이미, 가족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혹은 가족이기 서투른 사람에게 무언가 정형화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피곤한 일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고 마구 거리를 활보하는 것처럼

<엄마 찾아 삼만리>에 나오던 애들의 불쌍한 이미지와 함께 떠오르며 나를 괴롭히던 그 시절은 분명히 지나갔다. 부모가 꽤나 심하게 싸우면 청소년기의 어느 여름날, 그 열에서 나는 그들이 이혼을 하면 누구의 성을 따라야 될지를 생각하며 더위를 식혔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문제가 나와는 거의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일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또다시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녀가 이혼의 문제에, 이제는 그와 관계조차 맺지 않고 있는 나를 자꾸만 끌어들이는 이유는 사실 그녀에게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그녀의 약함을 가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믿음 속에 살고 싶은 거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남고 싶은 그녀의 소망과 현실의 괴리는 아마도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한 계속 보게 될 그녀의 딜레마겠지.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나의 심정은, 조금은 안타깝고 조금은 무관심해지려고 한다는 게 맞다. 나는 이미 집을 떠났고 가족은 내 생활의 중심이 아니니까. 그냥 '물라'라고 말해 버려도 상관없지만, 역시 그녀가 내게 쏟은 애정과 내가 그녀에게 줬 버린 내 마음이 계속 그녀를 바라보게 만든다.

"엄마, 멋진 남자랑 새로 연애하고 싶은 적 없어?"

전국의 아줌마들을 불륜의 세게로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모 방송국의 드라마 열풍이 한창일 때 엄마에게 넘기지 못했다. "애는 무슨...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돼." 기겁을 하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웬지 모를 짜증에 "이 드라마 진짜 거짓말이야!"라고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너는 꼭 좋은 남자 만나서 잘살아야 해, 알겠지?"라고 당부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문득 로또에 당첨되는 기술을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2004.02.20)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을 쓰기 시작하면 괴로웠다. 나는 아프기 싫었고, 주위에 답을 쌓았다. 가족은 그 답의 바깥 존재였다. 나랑은 상관없는 타인

“엄마 사귀는 사람이란 같이 사는 거 아니니?”

수능 시험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에 엄마는 ‘오늘 어디 나가니?’와 같은 말투로 말을 툭 던졌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짝 죄고 있을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엄마의 귀가 시간이 늦어질 때부터, 손뼉야 하는 전기 배선이 말끔해질 때부터 엄마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다.

“사귀든 말든 상관 없지만, 같이 사는 건 싫은데.”

엄마가 누구를 사귀든 말든 관심 없었다. 하지만 아빠가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겨우겨우 조용해진 집 안에 외부인을 들이는 것은 싫었다. 내게 그 사람이 나의 새이빠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엄마의 새로운 남편이었을 뿐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얼마마져 밀어내고 혼자 살기를 열망하던 나였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니.

“왜...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너도 사랑해 줄 텐데.”

나를 사랑해 주고 말고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다만 — 형식적일 뿐이라도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다. 하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더 이상 반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가족 구성원은 다시 한 명이 늘어났다.

엄마는 아빠의 둘째 부인이었다. 학교에서 호적을 떼어 오라고 할 때마다

아내 자리에 쓰여 있는 낯선 이름은, 제일 밑에 있는 칸에 엄마와 나의 이름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은 어린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몇 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집에 찾아왔던 아주머니와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사라지던 아빠의 모습은, 불안하게 창 밖으로 그 모습을 보며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 주지 말라던 엄마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 있던 가족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아빠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왔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매일 저녁 퇴근하는, 흔하디 흔한 아빠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는 매우 생소했다. 왜 아빠는 매일 집에 오지 않는다는 나의 질문에 엄마는, 아빠는 사업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간다고 대답했었다. 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을까 봐 엄마는 나에게 아빠의 나이조차 속였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가끔씩 가는 외식이나 여행까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그러진 첫 시작은 정확히 10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9살 때, 아빠는 술에 취해 엄마에게 트집을 잡았고, 엄마와 다투고 집가를 내던졌다. 그날 저녁, 내 방 침대 속으로 엄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빠와 이혼하면 누구를 따라가겠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안 따라가. 혼자 살 거야.”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아빠도 싫었고, 같이 싸운 엄마도 싫었다. 엄마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많이 어렸던 나는 그런 엄마에게 싫다고 말했다. 싫다고. 그때 나의 말 한마디가 엄마의 인생에서 10년을 빼앗는 무서운 결과를 낳으리란 걸 미리 알았다더라면, 조금만 더 참아 들었더라면, 그날의 일이 그날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질 줄 알았더라면 나는 결코 그때 싫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아빠와 엄마의 다름은 늘어만 갔고, 가끔씩 아빠는 엄마에게 손찌검도 했다. 언젠가부터 아빠가 들어온 날은 집 안의 평화가 깨지는 날이었고, 나는 차라리 아빠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다. 아빠가 왔다 간 다음 날이면 나는 아빠에게 엄마를 믿지 말라는 전화를 받아야 했고, 엄마에게는 하루 종일 아빠 목을 돌아야 했다. 젊은 엄마를 불안해하는 아빠를 증오했고, 같이 싸우는 엄마도 미웠다. 율면서 둘을 말리는 것에도 이골이 날 무렵부터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귀를 막았다. 저 둘의 문제는 나쁜 남편과 나쁜 아내의 문제일 뿐, 나의 문제는 아니다. 나에게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이면 됐지, 그 이상은 내가 간여할 바 아니다.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끝없이 되뇌었다.

엄마는 첫 다름이 있던 그날 이혼했어야 했다. 그때 이혼했다라면 엄마는 이후의 다름과 폭력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6년 전부터의 긴 외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 10년 간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중학교 때부터는 제발 둘이 이혼하기를 비유했지만, 차마 말로는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왜 이혼하지 않는지 단지 지긋지긋해했을 뿐이었다. 그때라도 말을 할 것일. 나는 편찮으니까 제발 이혼하고 엄마 갈 길 가라고.

정확히 10년이 지난 아침, 엄마가 조심스레 만나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내가 막 수능 시험을 치른 후였다. 엄마는 나에게 상처를 줄까 봐 자신의 10년을 버리고 내가 자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너 때문에 살았다”는 말을 하는 엄마에게 “누가 그렇게 살래?”라고 내뻐

고 말었지만, 말 그대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할 수는 없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숨이 막히면서도, 엄마 인생은 엄마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내가 빼앗은 10년의 무게 때문이다. 그 말은 영원히 나를 옥죄릴 것이다.

아빠와 엄마는 요새도 나를 핑계로 가끔 만난다.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아빠와, 아빠한테 잘하라며 아빠 걱정을 하는 엄마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서로 시달리고도 끊어지지 않는지. 그 질긴 가족 관계의 생명력을 내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끔찍해진다. 나 역시 그 질긴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끈의 한 끝에는 내가 빼앗은 엄마의 10년이 무거운 바윗돌처럼 매달려 있다. (89~90쪽)

가족이 뭐야 화목한

X

노래하고, 춤추고, 빈틈없는 사람들과 있는 자리를 좋아하고, 맛있는 것 안에서 분위기 잡고 나누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화가 난 여자, 고통에 빠진 여자, 결박한 여자, 폭박한 처하는 여자들의 손을 업혀 잡고 싶지만 내공이 부족하여 나가떨어지기를 종종 한다. 그래도 뽕속 깊은 데서 우리나라는 그 여정이 식을 줄 몰라 가끔 스스로 칭찬하기도 한다.

결혼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결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쫓는 편이라 성질을 죽이는 쪽으로 산다. 그렇게 결혼한 후로 집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하거나 하는 일은 풀었지만, 가족이나 결여된 친목력이 재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나는 전사인에 전투력이 없어서가 되겠는가.

지금은 유물유물한 직장인으로 잠시 변신해 있지만 조만간 어둠을 다녀와서 본업에 매달릴 예정. 시라 핵핵불리아 했던 '헬리스 폭어' 아시아 투어를 만들고 싶다. 다양한 여성 음악가들이 뜻을 모아 아시아를 순회하여 이 도시, 저 도시에 들려 그곳 소녀들과 가슴 터치 도록 파졌한 콘서트를 하고, 캠프도 하고, 음반도 내고... 더불어 여자 아이들이 솔자라 안 가면서도 가수 하고, 성질 좀 드럽고 싶 좀 쫓아도 가수 할 수 있게 참여하는 카리스마 사장이 되고 싶다. 오~ 강단 있어 보이는 여자 가수를 사단! 그림 좀 나오지 않는가? 예 구, 잘 길이 없다. 열심히 살자.

"러브 미 텐더 러브 미 스위트..."

기타 연습을 하고 있는 언니 옆으로 모여든 가족들. 서로 다정하게 바라보며 부르던 이 노래는 얼마나 스위트했던가. 내 나이의 엄마 아빠가 간직하던 소중한 줄처럼, 나의 가족은 자신의, 그리고 서로의 '스위트 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런저런 불편함을 이겨 내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아빠는 자신들 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길 바랐고, 자신이 만든 가정이 나와 언니 의 삶에 풍요로운 기반이 되길 원했다.

아빠의 꿈 '스위트 홈'

그런 꿈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엄마는 아빠에게 좋은 동반자였을 것이다. 그 둘은 자유롭고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꿈은 신념으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기적인 가족 회의와 중요한 일 함께 상의하기, 아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어주고 최대한 협조하기, 아이가 한 소소한 일도 칭찬해 주기... 이러한 것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침들을 나의 부모는 모범적으로 이행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난 엄마 아빠와 동등한 딸로, 화목하고 자유로운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다.

아빠는 늘 우리를 자랑스러워했고, 자유로운 아이들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래서 아빠의 일 관련 행사나 가족 모임들이 있으면 그 행사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언니와 나는 사회자로 또는 촬영 기사로 불러 다녔다. 아빠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기 바빴고, 청중을 압도하는 이야기들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알콩달콩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에 부응이라도 하듯 언니와 나는 자신 있고 건강한 딸의 모습으로 어른들의 질문에 푹푹하게 대답했다.

그런 자리들이 항상 즐겁고 뿌듯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빠의 우울했던 성장 과정, 화목한 가정을 꾸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그 꿈을 생각하면, 난 기꺼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또 존중받고 신뢰받는 아이로 증명되는 내 모습은 같이 자리한 또래 아이들 앞에서 우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고, 난 그 짜릿함을 즐기기도 했다. 우리 가족은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믿었으며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다른 구성원 모두가 그래 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의 삶에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눈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사기야!’

언니에게서 들어서 또는 어디서 주위 읽은 책들을 통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던 내가 처음 하게 된 고민은 엄마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 아직은 나를 여자로 보는 사람도 없었고 나 역시 나를 여자라고 인식하기 전이었던 그때, 난 우리 집의 대표 여자인 엄마의 인생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었고, 가족에 대한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다. ‘화목한 가정이 뭐지?’라고 원론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난, 너무 많은 문제들을 어색하게 마주해야 했다. 아이돌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포근한 품이 되어 주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모르는 체해야 했던 엄마. 권위적인 가장이 되는 걸 싫어했으면서도 ‘화목한 가정’의 유지라는 이유로 기부장의 권력을 이용해 번번이 엄마의 사회 진출을 좌절시켰던 아빠. 경제적으로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고 있는 아빠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아빠로 인해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엄마는 결혼 전 사회 활동의 기억을 추억 삼아 세련된 가정 주부로 살고 있었다.

라” 하며 소리를 질렀다. 우린 서로 기막혀 하며 시간이 흐름수록 바보 같은 말들만 해댔다.

전천히 변하는 것들

지치고 소독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되었고, 내가 얼마나 전략 없이 뛰어 들었는지도 깨달았지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거나 재회해 내지는 못했다. 나는 그 투쟁이 나의 어설픈 반항으로만 일하는 것은 아닌지, 괜히 여성주의에 대한 이상한 거부감만 남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나의 거친 문제 제기는 의외의 파장을 만들어 냈다.

폭풍 같은 시기가 지나고, 아프고 난 뒤 덩그러니 맞이하는 낯선 일상처럼 우리 가족에겐 새로운 막이 올랐다. 서로 어색하기 짝이 없었던 시간 동안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생각들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변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화목한 가정’이란 이미지를 쫓기 위해 ‘친한 척’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 우습게도 정이 많은 나에게 힘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없었던 것으로 돌리기에 이미 늦었다. 그동안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하자고 각자의 생활을 크고 작게 포기해야 했고 참견해야 했다. 아빠만 원망할 노릇도 아니었다. 나 역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함께 하길 바랐고 때로는 억지도 부렸다. 그 많은 욕심의 순간들을, 화목하고 자유로운 가정의 추억으로 기억할 수는 없었다.

많은 것이 천천히 변했다. 어떤 것들은 크게 달라졌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고, 사람들 앞에서 ‘화목한 가정’을 증명해 보여려는 아빠의 모습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기부장으로 비쳤다. 그리고 난 더 이상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완전히 낯선 시각으로 세상과 가족을 보기 시작하자, ‘화목한 가정’에 대한 환상과, 낯다른 자부심까지 가졌던 나의 믿음이 중박해 버리는 것은 순간이었다. 믿음은 증발해 버리고 의혹만 가득한 나의 머리와 가슴은 슬프기보다는 화가 나 있었고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난 정리도 안 된 머리를 흔들며 미친 듯이 이것저것 돌고치고려고 달려들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매우 거친 문제 제기가 분명했다. 토끼 같았던 딸이 “다, 전부 다 사기야!” 하며 달려드는 것을 보며 아빠는 인생에 실패한 느낌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런 나의 거친 행동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엄마에게도 반감기보다는 불안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아빠와 나의 힘든 싸움은 시작되었다. 이 싸움이 아빠와 나의 싸움이 된 것은 전략적이기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성난 짐승처럼 날뛰는 나에게서는 심정적인 지지자인 언니가 있었지만, 언니가 싸움에 개입하면 아빠는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을 것이다. 이미 그것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선 싸움이었고, 2대 1 구도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거부 반응이 강해 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는 듯했지만 감정이 움직이기에는 나의 방법이 너무 서툴렀고, 엄마에겐 아빠와의 관계도 무척 중요한 것이었다. 그 시기에 아빠와 나는 서로 많은 상처를 입히며 치렀고 괴로워했다. 나는 ‘아빠도 별 다르지 않은 기부장적인 남자더라, 아빠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아빠가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 불행했었다는 듯이 말해댔다. 아빠 역시 여태 나에게 보여 주면 신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자유스럽게 키워 냈더니 버릇만 없어졌고, 어디서 못된 짓을 배워 왔다. 기가 막힌다. 집이 싫으면 내가 나가서 돈벌고 살아

기도 하다. 크게 달라진 거라면 엄마가 공부를 시작한 것들을 들 수 있겠다. 방송 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는 엄마는 친구들과 하느 스티디에도 열심히고, 새벽이면 회화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공부에 열정을 쏟기 시작한 엄마는 아빠와의 관계에서도 ‘쿨’한 모습들을 보이며 한결 생기 있는 모습이다.

아빠는 우리와 동성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 해도 과시하기 위해 우리를 동원하기보다는 자리의 성격을 설명하고 생각이 있으면 참석할 것을 권유한다. 또 그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도 화목한 가정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유를 보여 준다. 나 역시 익숙한 것들에 경계하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며 내 익숙한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나는 엄마 아빠의 집에서 나와 전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 불쑥 “아, 그냥 엄마 아빠에게 예쁨 받으며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망각 비슷한 감정이라는 것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는 한다. 나도,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혼자서 씩씩하게 지낼 수 있을 때 다 같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❶

가족을 벗어나 '관계'를 꿈꾸다

- 나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한걸음

[여성주의 저널 일다] 이승민

'독립'이라는 말을 써놓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독립이라는 단어에는 나의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독립을 바라며 지내왔던 시간, 감정, 나의 경험들.

나에게 있어서 독립은 많은 부분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함께 떠오른다. 지금 내가 꿈꾸는 독립은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혈연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나에게 휴식의 장소도, 에너지를 내어 무언가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면서 떠나서도 안 되는('외박'을 해서도 안 되는) 곳이다.

내가 바라는 독립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를 가족에서 벗어나서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고 싶다는 의미이다.

남동생과 내가 차지하는 자리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왔다. 물론 지금까지 부모 집에서 살고 있고, '집'의 생계비를 부모와 함께 분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집 밖에서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해결해왔던 점은, 내가 집에서 일정 부분 '발언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다.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쥐어진 돈은 얼마 없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에서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 부모가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을 조금씩 만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부모님과 나의 생각은 달라서, 여전히 귀가시간을 통제하려 하시거나 '언젠가는 결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대해 거부의를 밝혀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 말을 해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었던 것은 나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환경 때문이기도 했다. 대학 등록금을 내준다거나, 용돈을 대출 만큼 집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게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남동생의 경우 더 마음에 드는 학교, 소위 '학벌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4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몇 년 동안 그 애는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가족에게 자신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유명 메이커 운동화를 비롯해 용돈을 집에서 알아서 챙겨주었다. 수험생인 동안,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를 위해 엄마가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을 담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힘들었다. 얼마 전 그가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5수'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그가 집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젠가 그 애가 출세하면 그 동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다. 부모님에게 그는 일종의 '로또'인 셈이다. 반면 부모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들'도 아니고, '출세'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나는 때때로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얼마 전 친구에게 우리 집의 공간은 "로또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갖고 있던 책들은 꽃을 곳이 없어 박스에 들어가 있던 상황이지만, 책꽂이에는 그의 먼지 쌓

인 책들이 준비하게 놓여 있었고, 보지 않는 책을 좀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책꽂이 한 줄을 차지하기 위해 그와 세 시간 동안 싸웠던 적도 있다. 그 날 남동생은 부들부들 떨었었는데, 요구를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는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독립을 위한 한 발, 한 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힘들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내가 너무 정정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번 경험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일상의 타격은 작지 않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살아온 시간들은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했다.

친밀한 친구나 연인과의 동거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독립된 공간을 갖게 된다면 혼자 살아보고 싶다. 스스로를 위해 일하고 설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을 때 꼭 함께 살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나는 독립을 위한 또 다른 한 발을 내디뎠다.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것이다. 청약저축 신청을 위해 친구 집으로 주소를 옮겼던 날, 세대주와의 관계에 '본인'이라고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실 임대주택 전세금도 나에게겐 만만하지 않은 돈이어서 언제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인 '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것이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조금씩 준비를 할 것이다. 언젠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해왔던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갔다가 어머니를 보고 '아, 저 사람도 한 사람의 외로운 여성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젠가 내가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될 수도 있을까.

여전히 나에게 '독립'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단어다.

2006/08/29 [20:08] © www.ildaro.com

[기고] 설을 맞아 가족주의와 전선을 긋다

- 그들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관계에 저항하기

[여성주의 저널 일다] 최현숙

곧 있으면 설이다. 설을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던가? "민족"이라는 혈연주의적 공동체 속에 동성애는 없거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동성애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성행위이거나 혹은 성행위조차 아니다. 여성동성애자, 더구나 기혼이었던 여자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저들에게 여성은 기껏해야 남성의 성적 대상이자 모성이며 마지막까지 가부장제의 안녕을 위해 봉사해 줄 무보수의 가사 노동력일 뿐이다.

설을 닦치며 벌어질 두 자녀와 전 남편, 전 남편의 형제들, 내 형제들 및 부모들과의 버거거림과 갈등과 정리들이 심란하다. 그러면서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을 최대한 정리하자는 다짐을 한다.

설을 며칠 앞두고 마치 전초전처럼, 친정가족들의 모임이 있었다. 친정아버지의 생신 모임. 형제자매들에게 커밍아웃과 함께 이혼 추진과 가족과의 별거를 통고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 친정 모임이었다. 내키지 않는 자리였지만, 저들이 부른 이상 일단은 가기로 했다. 그들이 부른 의도와 내게 대한 태도도 확인해야 했고, 소위 "혈연"이라는 생물적 끈을 계속 드리워 놓아야 할지를 확인해야 했다.

내게 레즈비언이란 몸과 마음으로 여성을 사랑하는 것임과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이성애주의를 나의 삶을 통해 저항하는 것이며, 이 저항을 더 많은 레즈비언들과 함께 힘을 모아 더 넓게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들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내겐 여차하면 저들의 견고한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이성애주의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하는 행동일 수 있음을 변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을 근거를 그들과 내 앞에 확인시키고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커밍아웃한 여성동성애자가 부딪쳐야 할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구체적 일상 속에서의 몸과 마음의 부대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모임에는 가기로 했다.

이는 저들에 대한 아직 끊어내지 못한 나의 배려다. 유일한 이유는 '늙은' 부모다. 일흔 셋과 일흔 일곱의 부모는 아직 나의 동성애 정체성과 이혼 추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단지 늙었다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만이 내가 부모에게 나의 정체성을 알리지 않고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유일한 이유다. 따라서 부모의 혼란의 시기를 최대한 미루는 것 이외에 서로가 함께 하고 싶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그들이나 내게 분명히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 그들 편에서 먼저 나의 근황에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었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만을 그들과 공유하길 원했다.

이미 버리고 떠난 저들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이성애주의는 실로 견고한 벽이었다. 더구나 소위 부자와 지식인들의 세련되고 내밀해서 더욱 탐욕스러운 물질적 풍요와 욕망까지... 알아들을 수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거나 내겐 적용 불가능한 저들의 대화. 마음이 그렇다 보니 부모의 건강에 대한 염려조차도 내겐 망연하게 들릴 정도였다.

이미 자본주의를 상당히 거부하고 이제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이성애주의에 전선을 긋고 그 맞은편에 서서 싸워나가기로 한 이상, 나의 지난 가족 역시 내게는 맞은 편에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소위 "저들"일 수밖에 없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예민한 사회적 분석과 차가운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고 가는 돈과 돈 이야기들(주로 주식 이야기와 수입과 세금 이야기)에, 뽕겨 나오고 싶은 지루함과 존재의 이물감을 느꼈다. 그들의 두툼한 봉투와 선물들 옆에 나도 얇은 봉투를 내놓

았다. 사실은 그 조차도 아까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요즘의 내 경제상황도 그렇지만 돈의 용처를 생각해도, 다른 4명의 부유한 형제자매들이 잘 부양하고 있는 부모에게 나조차 돈을 보태는 것은 내겐 사회적으로 마땅치 않다. 그들에겐 알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겐 몇 번이고 쪼개어 쓸 액수다. 그 돈이 더 마땅하게 쓰여 질 곳은 수도 없이 많다. 더구나 이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추락에 대해 저들은 관심이 없고 나 역시 저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싶지 않다.

그들 앞에서 나의 일상과 생각을 언급하지 않는 한, 그들은 나를 그들의 모임에 계속 끼워 넣으려 함으로써 그들의 안녕을 연장시키고 싶어한다. 그들의 나에 대한 침묵은 나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다.

부모자식 혹은 형제자매 간의 인정에 대해서라면, 나는 그 가족주의적 온정을 털어내는 혼련을 끊임없이 해왔다. 전 남편 상대적으로 저들에 비해 경제 사회적 계급에서 훨씬 하위인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 집을 나오면서부터, 나는 그들에게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분리됐다. 그 이후의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내 편에서는 마지못한 관계였다. 더구나 사회운동으로 이어진 나의 삶의 과정에서 내가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는 거의 없었다.

지독히 비정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나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다. 소위 "사람 노릇"이라고 일컫는 "인정주의"는 차라리 내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옳다고 인식되었고, 늘 부족했지만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보통의 사람들에게 가장 친밀한 기초공동체 라면 내겐 사회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 가난과 차별과 억압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이상의 친밀한 유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저들 속에 속해 있는 여성? 가부장적 이성애자들이고 부자들이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차별 받는 여성의 이름으로 언제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나의 문제와 생각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들이 누리는 가부장 속에서의 자신들의 안녕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균열을 내기 시작할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들 역시 내겐 "저들" 일 뿐이다.

이혼한 여동생은 최근의 재혼을 통해 가부장의 가족 울타리를 새롭게 만들어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갔다. 남편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울케는 바깥바깥 말라가면서도 남편이 제공하는 안녕을 벗어날 엄두를 내지 않는다. 평생 남편을 미워하며 살아온 엄마는 최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가부장 하나를 만들어 남편을 끌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들 모두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희생자들이지만, 그녀들이 전선의 이 편으로 내미는 손만큼만 나를 그녀들을 잡을 수 있다. 그녀들이 저들 속에 여전히 남아서 그 속을 고쳐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태를 악화시킬 권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사태를 개선시킬 권력을 갖게 되리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이미 성장한 자식들. 그들과는 이제 어미와 새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이성애주의 세상 속에서 이성애자 남성과 동성애자 여성으로 만나고 싶다. 전선의 어느 편에 설지는 이제 그들이 정할 차례다.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와 그 주변 그리고 내가 존재하게 한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미 상당히 완결되었다. 육체의 관계가 아직 남았다면 서로 합의되는 선에서 관계 맺기를 다시 할 일이다. 정신의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전선의 저 편에서만 통용되는 관계 맺기에 나는 이제 저항한다.

나는 저들의 세상에서 걸어 나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4 주 차,

바꿔보아-

- 여성노동

「언니네 방」 언니네 사람들 / 갤리온 / 2005

▶ 유능한 여자로 산다는 것

「언니네 태그놀이」 언니네트위크 / 또 하나의 문화 / 2008

▶ 펴냄: 사랑합니다, 고객님

▶ 커피: 좀 부탁해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권성현, 김순천, 진재연 / 후마니타스 / 2008

▶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건 모멸감이에요

▶ 삶 자체를 다르게 구성하는 운동을 꿈꾸다

「곰들의 434일: 끝나지 않은 뉴코아노동자의 투쟁」 권미정 / 메이데이 / 2008

▶ 434일 뉴코아 투쟁을 돌아보며...



유능한 여자로 산다는 것

A사에 입사해 내가 처음 들어간 부서는 해외로 설비 수출을 하는 곳이었다. 그 부서는 원래 해당 지역 언어 전공자인 신입사원 한 명만을 원했다. 여자 영업사원을 원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난 이곳저곳 쫓아다니니 한 곳을 집중공략하자는 전략을 택했고, 인사부엔 "난 그 부서 못 가면 회사 그만둔다"는 배 짜라 전략을, 해당 부서엔 해외 현지 지사들을 동원한 집중적인 로비를 펼쳤다. 로비라 함은 그 지역에 신입사원 연수를 가서 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자저자해서 그 부서는 해당 지역 언어 전공자 한 명과 함께, 없는 자리를 만들어 나를 뽑았다.

너 달이 넘는 연수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동기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끈끈한 우정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동기사랑'이라고 하는 연대감

같은 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년을 같은 부서에서 책상 나란히 하고 함께 지낼 동기인 B군과는 특별히 친한 편이 아니었다. 그놈이 어떤 놈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B군에게 난 손을 마주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여자에 대해 편견 같은 건 없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아, 이런 명청한 질문이라니! 누가 이럴때 나 편견 있어라고 하겠어)

"없어. 요즘에 누가 그런 생각해."

그의 명쾌한 대답에 난 순진하게 안심했다.

나보다 한 살 많은 B군은 실없는 농담 잘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열혈이 하얗고 멸숙한 데다 늘 웃는 상이라 부서 내 여자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편이었다. 그런 B군과 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던 대로, 난 처음 몇 달 동안 특별히 B군의 여성외식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뒤늦게 맛으면 더 아플 텐데도 말이다.

늘 직속 선배 옆을 졸졸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다가, B군이 처음 단독으로 거래처를 상대하게 된 날이었다. 거래처 담당자가 오자, B군은 다이어리를 쟁겨들고 회의실로 향하면서 그의 파트너인 C양에게 차 두 잔을 부탁했다. A사는 영업사원에게 고졸 여직원을 파트너로 붙여주는 데, 파트너의 역할이란 영업사원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갖 보조업무를 해주는 것이다. 오래된 파트너 관계를 보면 거의 비서 같은 수준이다. 물론 나도 파트너가 있었는데, 나는

사내 유일의 여-여 파트너 관계였다. 당시 B군을 길들이는 중이던 C 양이 바쁘다고 거절하자, 잠깐 당황해 하던 B군은 내게 다가와 같은 걸 부탁했다.

나 : 왜?

B군 : 어?

나 : 왜 그걸 나한테 부탁해?

B군 : 동기잖아.

나 : 니가 해.

B군은 얼굴빛이 변하더니 훌쩍 나가버렸다. 난 그가 처음으로 맞은 거래처 담당자에게 체면을 세우고 싶은 거였다고, 자기 파트너가 거절하니 급한 김에 나한테 부탁했나보다고 생각했다.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는 내 부탁을 들어줄 텐데, 내가 거절해서 망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 같은 상황에 처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 손님 차는 내가 타다주니까 말이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차 시중을 부탁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거래처 손님이 돌아간 후에 꼭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후 상담이 끝나고 돌아온 그는 거칠게 책상에 다이어리를 펴고 치면서 내게 말했다.

B군 : 넌 동기가 되서 그런 것도 못 해주나?

나 : 그 상담이 시각을 다루는 급한 일이었고, 거래처 손님이 여러

없었지만, 그 생수통은 날라본 적이 없었다. 사실 아무도 내게 부탁하지 않았고 나도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생수통 같기와 차 타기를 같은 선상에서 본다니, 남자가 차 타기 같은 걸 어떻게 하냐는 말에는 여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같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불공평하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내가 갈아주겠어. 14킬로그램이 넘는 조카도 번째 번째 안아주고 비행기 태워주는 내가 뭐, 그깟 물통 못 들 줄 알고?’

그래서 생수통은 내가 갈았다. 처음 생수통을 들고 와 올리려고 하니 주위 여직원들이 말리고 다른 남자 직원 부르고 난리였지만 정작 별 무리 없이 올려놓으니 그 다음부터 그러려니 했다. 나중에는 내가 갈 때 같이 도와주는 여자들까지 생겼다.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 아냐. 여자는 힘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럼 들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차는 너희들이 타라.’

그런데 이런 시작에 불과했다. 그 B군과 한 팀에서 책상을 나란히 하고 3년을 같이 근무했다. 자주 의견충돌이 있었지만 서로 돕기도 잘 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우린 회의실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몇 시간이고 싸워서 풀어냈고, 한 쪽이 퇴근을 못하고 있으면 ‘원래? 뭐야.’ 하고 경정거리며 서로 도와줬다. 나름대로 각자 편한 거래처들이 생겨서 B군이 걸끄러운 거래처들을 내가 처리해준다거나 혹은 그 반대거나 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분업도 했다. 난 그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 부서에서 믿을 놈은 이놈밖에 없다

명 찾아와서 차를 한 열 칸은 타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난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 달랑 한 명 찾아온 손님인데, 네가 차 두 잔 타 가지고 다이어리 위에 앉아서 회의실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워?

B군 : 남자가 어떻게 차를 타나?

나 : 그러니까, 남자라서 차를 못 탄 거야? 내가 여자 동기니까 부탁한 거고? 아마 남자 동기였으면 부탁 못 했겠네?

B군 : ??? (역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 한다)

나 : 너 여자한테 편견 없다며?

B군 : 이게 무슨 편견의 문제야? 남자가 하면 더 잘하는 일과 여자가 하면 더 잘하는 일이 있잖아.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여자 일이 있고 남자 일이 있는 거지. 난 남자니까 생수통 갈잖아.

나 : 아, 생수통. 그래. 그거 내일부터 내가 갈게. 미안하다. 내가 너보다 물도 훨씬 많이 마시는데 당연히 내가 갈아야지. 그리고 커피는 네가 타. 솔직히 말해서 난 커피 안 마시니까 커피 탈 줄 몰라. 우리 집에서는 커피는 오빠가 타. 넌 커피 좋아하지? 그러니까 네가 훨씬 잘 타겠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업무 분담하자.

생수통 갈기는 물이 떨어질 때쯤이면 보조적 여사원들이 신입 남자 사원들에게 시키는 일이다. 나는 기계 매뉴얼이며 두께가 한 뼘이 넘는 서류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나르는 일들에서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고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3년차가 됐을 때, 대리 진급을 1년 남기고 전평이 일어났다. 우리의 영웅이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요, 정신적 지주였던 직속 상관이 상사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가서는 같은 시장, 같은 바이어, 같은 서플라이어를 데리고 사업을 시작해버렸다. 해당 해외시장을 처음부터 거의 혼자 개척했던 그 유능한 선배가 나가니 지금까지 그 지역에 심어졌던 현지 에이전시들과 심지어는 현지 지사원까지 우르르 달려 나가버리고 인간 관계를 증시하는 오래된 바이어들도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믿는 건 회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면서. 그리고 남은 건 해당 지역 언어 하나 잘한다는 것 말고는 하등에 쓸모가 없는, 민폐만 끼치는, 내게 성추행까지 했던 팀장과 우리를 보좌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 둘뿐이었다.

세로 과장을 하나 보내준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담당하던 해외 시장과 상품은 그렇게 쉽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니 결국 우리 팀을 끌고 나갈 사람은 B군과 나, 단 둘뿐이었다. 연간 몇 천만 달러의 매출목표에는 변동이 없었고, 우린 무서웠다. 파중한 스트레스와 밀어닥치는 업무 속에 폭발해버린 어느 날, B군과 나 그리고 본부 동기 한 놈, 이렇게 셋이서 술을 새벽 3시까지 퍼부었다. 허름한 뒷골목 달걀말이 집에 서 죽어라 술을 넘기던 B군이 그때 내게 한 말과 그 표정을 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난 네가 싫어. 정말 싫어. 진짜 싫어.’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목소리로 강하게 힘주어 내가 싫

다고 말하던 그놈. 아... 쓰다보니 그 때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 3년간 연애했던 남자에게서 '난 네가 정말 싫어. 단 한 번도 좋아했던 적 없어'란 말을 듣는 것과 약간은 비슷한 감정까지 들었다.

어쨌든 결론은, B군에게는 나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것도 3년 동안 밀바닥부터 키워오다 끊어 터진 증오심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었다.

하필도 영어실력도 자기보다 좋고, 나이가 1년 어린 데도 다른 직장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서 업무 적응력도 빠르고, 하다못해 엑셀 사용 능력까지 좋아서 건딜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콤플렉스의 배후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보다 못하다'란 말은 들을 수 없다는 B군의 절실함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이없는 것을 넘어서 허탈하다가 나중엔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 콤플렉스는 근거가 없었으니까.

하필? 할 말 없다. 영어실력? 그래, 나 B군보다 영어 잘한다. 근데 B군은 해당 지역 언어를 전공해서 유창하게 한다. 거기다 영어도 한다. 현 나? 그 나라에 가서 택시 타고 호텔 찾아갈 정도만 현지 언어 한다. 난 지어로 상담? 어림없음이다. 그리고 우리 바이어는 영어 못 한다. 난 통역 없으면 시체다. 업무적응력? 초기엔 내가 땀났다. 그 전 직장에 서 기본적인 일처리는 배웠고 컴퓨터도 내가 조금, 정말 조금 더 잘다웠다. 그런데 이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B군이 컴맹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내 남자친구 말로는 나도 컴맹이란다.

하지만 B군은 금방 그걸 넘어섰다. 난 거래선 설득할 때 온갖 시장

고 내가 미운 정 고운 정 타령할 때 그는 호시탐탐 내 발을 걸 기회만 노렸다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미운 동기가 유일하게 기댈 동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니. 그 날의 고백은 술 취한 김에 한 것이지만, B군으로선 증오의 창산 같은 것이었다. 동지로 넘어가기 위한.

그 날 이후로 내가 부서를 옮기기까지 반 년 남짓 B군은 내게 신뢰를 키워주는 듯했다. 내가 다른 부서로 간 이후에는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낸 전우애라도 느끼는 것처럼 더 그랬다.

하지만 난 자주 싸우고 혼자 욱도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B군을 미워해본 적은 없었다. 나는, B군이 내가 싫다고 선언하던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부서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나선 결코 그 날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는 건 잘 알지만, 나는 앞으로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에게 예전처럼 순수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몇 년이 흐른 지금, B군과 나는 내가 한국에 올 때면 전화 정도는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면 그는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시집은 안 가냐?" 하고 인사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B군도 피해자였다. 3년간 여자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자기 혼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리 모진 놈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자료를 수집, 분석해가서 몇 시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남자들은 통상용 기서 출추고 노래 불러주고 여자 붙여주면서 "형님, 형님과 저 사이에" 이러면 바로 해결되기 심상이었다. 거기다 난 그런 게 있다는 걸 그 부서를 떠날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 심지어 거래처에서도 온근히 보이지 않는데서 작업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기 편한 남자를 선호했지. 감히 뒷거래 같은 걸 하기 힘든 나는 불편해했다. 거기다 B군이 나보다 능력이 못한 것도 아니오 일을 열심히 안하는 것도 아니니, 그놈의 완성이었다.

결국 난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서 간신히 B군과 보조를 맞추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성에 안 찼던 거다. 확실하게 날 밑에 두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다. 더욱 압권은 뭐였냐면,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난 '회의실 문 걸어 잠그고 싸우기'로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가 풀렸다고 지난 3년간 굳게 믿고 있었는데, B군은 "에이씨, 오늘도 내가 저것의 화려한 말발에 놀려서 졌다. 다음엔 꼭 저 기면을 벗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게 해야지" 하고 결심했다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무슨 본색? 내가 무슨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물라. 넌 늘 당당하고 하나도 지려고 들질 않잖아. 난 네가 옆에서 는 꼴을 보고 싶었어."

"나 그렇게 싫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니?"

"....."

그러니까, 서로 도운 건 내가 먼저 도와주니 빚지기 싫어서 값은 거

에필로그

이 글을 쓰고 5년이 흘렀다. 당시에 내 가슴에 남아있던 상처가 글에서 느껴진다. 하지만 이젠 상처는 없다. 내게는 이것도 이제는 추억이다. 나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깊어진 만큼 B군도 그럴까? 애증은 시간이 흐르면 증은 사라지고 예만 남나보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한두 번 얼굴을 볼 때마다 B군이 날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었나 보다. 조금 미안해지네.

- 2013년 1월 -

않는다.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하나를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비혼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아버지의 자식으로 혹은 오빠의 자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성별 이분법적 제도하에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현행 신분 등록 제도에 의해 삭제되고 있을까.

나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불리고 보일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사생활권의 핵심이다(나는 국가에 의해 2로 규정된 생물학적 성별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국가의 현행 신분 등록 제도 분류 체계에 걸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생활권을 이미 침해당하고 있다. 기본 사생활권이 이미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개념이었다면, 이제 사생활권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개인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되며, '있는 그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다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페이퍼운

저지 모금

“안녕 하시면 충분할 고객님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일단 말이지요.”

언제부턴가 114에 전화를 걸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의.”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한다니, 나는 미지의 인물에게 사랑 고백을 듣고 놀라 움찔하고 말았지요. 오랜 친구의 주장대로 어릴 적 까칠한 성격이 이제 와 다시 나타나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저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러다 곧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그녀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내뱉어야 한다니 말입니다.

이제 114 직원의 업무는 번호를 알려 주는 것에 아무렇지 않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 감정 노동이 더해집니다. ‘안녕’하시면 충분할 고객님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한단 말이지요. 예끼, 이런 몹쓸 자본주의! 하고 나서도 뭇가 찔끔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 노동은 유독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유니폼을 입고 고객과 대면하는 역할을 대체로 여성이 맡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돌봄 노동은 아이를 낳는다는 생물학적 특성과 참으로 끈질기게 결부되어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성에게 더욱 알맞은 일로 간주됩니다.

직업과 여성의 지난한 관계는 직장을 갖겠다는 여성들과 집에 앉아 살립이나 하라는 목소리의 대립에서 시작하여 전문직 비혼 여성을 칭하는 '골드 미스'라는 말이 생겨난 지금까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성의 경제 활동은 4인 가족 부양형으로 바라보면서, 여성들은 (결혼, 출산과 양육 등의 이유로) 인제는 사라질 수 있는 부수적인 인력으로 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직 준비를 하는 이십대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자기 개발서는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악마'가 되어 '프러다'를 입는 여성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골드 미스를 향한 비난 역시 끊이지 않고 있지요. 그녀들의 패션이나 자신을 위한 투자는 모성애나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과 정확히 대척점에 놓이고 후자의 미덕이 칭송될수록 그녀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여자가 됩니다. 신문에서는 <그냥 노는 남성 103만 명>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취업을 상승과 남성 취업을 하락 그래프로 비교, 분석까지 해 준 다니 손내가 변히 들여다보입니다. 혹시 이해하지 못할 이들을 위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에 밀려" 노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CEO의 등장은 분명 과거에 비해 나아진 상황이며 그에 대한 여성주의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여성주의가 '직업 여성'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지평이 단순히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나은 직업을 점하는 것'에 머무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성들의 직장과 노동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또 그 녀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고민까지. 각기 다른 위치에 놓인 직업 여성들의 다르면서도 닮아 있는 이야기가 여성주의 안에서 함께 이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 좀 부탁해

첫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름의 여성주의를 실천한 경험은 나의 진정한 독립이었다.

올해로 직장 생활 6년째를 맞고 있는 나는 이제 곧 3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6년이 되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조직 생활의 공포는 나이가 들수록 커져만 간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여성에게는 더욱더. 특히 확장 시절부터 여성주의 마인드로 가득한 우리만의 사회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여성주의자는 더욱 그렇다.

조직이라는 공간이 가진 파시즘과 싸워야 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그것도 잘리지 않는 수위의 대처 방법). 남자 동기들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먼저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난점은 동성의 동료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6년간 내가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가 앞으로 다니게 될 새로운 직장에 대한 공포를 조금은 덜어 주고 있다.

도 때도 없이 시켜 대는 차 심부름이었다. 요즘에는 늙으신 분들도 나를 마인드 있는 척하느라, 컷마디에 꼭 '미안한데'를 붙이고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패스 심부름보다 더 불쾌한 것이 바로 이 '차 심부름'이다. 더욱이 같이 들어온 남자 동기는 팽팽 놀고 있는데 짝 눈이처럼 늙으신 분들이 내게만 '호출'을 집중하시니 짜증이 날 수밖에. 처음이 중요하다고, 내 경우엔 '마지못해'가 바로 '불복종'으로 이어졌다. 좀 치사하지만 일부러 실수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만만한 남자 동기에게 시키기도 하면서... 물론 이 경우엔 일에 대해서만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술자리 문화 적응해야 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 '인맥 없으면 출세 못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에 나가서 가장 빠져리게 느끼는 고충이 바로 이 '인맥'이었다. 그 어디서보다 동창이나 선배가 중요한 곳이 직장이었고, 같은 고향이면 더더욱 좋았다. 물론 이곳에서도 소의당할 수밖에 없는 나(대부분의 인맥이 여성주의 판에 있으므로) 두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각종 뒤돌이, MT 등의 오프타임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나긋나긋한 여직원'으로 인맥을 쌓아 가거나 '이기적인 신세대 여성'이 되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후자를 택했지만,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다. 정말이지 술만 맡음하게 마시고 헤어지기만 했어도, 술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이 일에 관한 내용이거나, 아니 그냥 의미 없는 농담이긴만 했어도,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각자 술 따라 먹는 분위기만 됐어도 적극적으로 응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응답패설은 일상이고, 남녀 짝짓기 술 문화에 술을 따르

264 •

인적인 일이나 말을 최소화했던 나는 사실 외로웠다. '혼자 있어 대는 게' 마냥 불만투성이의 이단자 취급을 받거나 '조금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후일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했기에 외로움은 더욱 빠져리게 다가왔다.

그럼에도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을 처절하게 느낀 것이 또 한 직장이었기에 내게 진정한 동료나 친구는 있을 수 없다고 단념했다. 하지만(외로움이 쌓이면 맘이 약해진다고) 내 말을 하고 싶었다. 나를 알고 싶었고 직장 생활을 활기차게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차츰 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내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다. 통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처음의 생각은 '내 편'이 늘면서 희망으로,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기쁨으로 변했다.

여성주의와 교감하는 커리어를 쌓자

"언니네 일일 호프 티켓 사. 몇 장 살 거야?" 지난 1월 있었던 언니네 일일 호프 티켓을 직장 동료에게 팔았다. 회비를 내는 언니네 동음 회원인 그녀에게 '여성주의'는 이제 자신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얼마 전 그녀는 내게 "여성주의를 알게 되어 기뻐요."라고 고백했다. 또 다른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 얘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차 심부름을 아무 말 없이 하던 그녀는 그 일의 부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따로

266 •

는 건 여성이요, 받는 건 남성이라(갑게 받지도 않는다). 아주 가판이 있다. 게다가 모든 중요한 업무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더니, 비밀리에 오가는 협약들은 정말 술자리, 그것도 아주 더러운 술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나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핵심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였다(젠장).

'성지'에서 'XX 씨'로

첫 직장에서의 우여곡절을 모두 얘기할 순 없지만, 가장 낯설게 다가왔던 것은 호칭이었다. 언제나 '성지' '호빵' '푸근' '뽕싸' 등으로 부르고 불리던 호칭이 갑작스레 'XX 씨' 'XX 선배'로 바뀌게 된 것.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들어온 연차대로 직급이 결정되는 사회 생활에는 또 다른 '나이주의'가 존재했다. 학교 다닐 때 '나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우리만의 문화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적어도 하루 9시간 동안은 잊어 버려야 할 것이 되었다.

이런 호칭에 익숙해질 때쯤, 내 바로 위 선배가 회사 생활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녀와 같이 들어온 남자 동기가 자신을 제치고 대리로 승진한 것이다. 누가 봐도 일 잘하고, 나름 사회생활(?)에도 열심히 발맞춰 온 그녀에게 항상 놀기만 하던 그의 승진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십대 후반이던 그녀는 사직서를 내고 힘든 회사를 떠났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바랐지만, 사실 이 일은 내 일이기도 했으며 내가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이었다.

새로운 커뤼니티, '내 편'을 만나다

내가 속한 곳은 언제나 여성주의 판이라고 생각하며 회사에서는 개

• 265

또 같이 여성주의와 교감하고 있다.

공포스럽기까지 했던 첫 직장에서 고립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름의 여성주의를 실천할 수 있던 경험은 그동안 여성주의자들의 보호막에 싸여 있던 내게 새 희망이었으며 나의 진정한 독립이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진정한 동료들 만들지 못했지만, 6년 또 6년이 지나면 열 명이 훨씬 넘는 '내 편'이 생길 거라는 희망만은 잃지 않고 산다. 2004년 봄.

—성지

우리가 전달 수 없는 건 모멸감이에요

조희숙칼트집문회 조합원 4기 인터뷰 : 김순진

2007년 12월 28일 오후 5시 30분, 나는 신촌에 있는 작은 음식점에서 조희숙 씨를 만났다. 마른 거품안데도 비가 내릴 것 같은 싸늘하면서 젖은 느낌을 주는 그런 날이었다. 조희숙 씨는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합인여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엄마였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기이 상했다고 생각했다. 희숙 씨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처음에 나는 희숙 씨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언어의 시계를 희숙 씨에게 맞춰 느리고 깊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킨 일상 속에 깊게 박힌 '그들'에 대해서, 오죽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세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의미와 가치를 포착하기 힘든 것이었다. 쉬운 거품에도 스펀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회사, 중소 아주머니들을 하고해 쓰레기가 붙인 채 근무했던 일터, 빈도 제대로 얻을 수 없었던 심한 일의 강도, 손님이 최 가강해 자신들을 감시하는 모나터링계, 강제로 불리는 빨간 색 린스틱, 정규직만 회원 가입할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 손님과 회사 사이에서 장자해야만 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 볼 두렵고 뭉기는 상계, 말하기조차 구차하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고통과 모욕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언젠가 희숙 씨와 함께 상암 경기장 옆 한 술집에서 돌아에서 일했던 동료 여성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이 가정을 해임된 아주머니들이었다. 그 여성들도 조희숙 씨처럼 삶의 무게를 받고 있었다. 대부분 길게 도는 일거 무용증을 알고 있었다. 그이들을 만나고 나서 나는 어중어중은 김하다라는 말이 싫어졌다. 그들의 가슴에 쌓인 고통과 모욕을 깊고 심하게 들 여다보기 전에 '김할' 것을 강요하는 그 언어이 복제이고, 억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 용오까지 뒤섞인 그 복잡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복 주기를 원했다. 그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 세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싶어서 주었던 한 것이다. 그들이 처한 '언간의 공간'이 어떤 것인지.

카드투에서 홈에버로 바뀌고 나서도 장사가 너무 잘돼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고 자만하고 있었어요. 이상암장이 아시아에서 매출 1위였거든요.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바쁜데 우리를 어떡하겠어 자르기가 하겠어? 그리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억울했던 것은 이렇게 잘될 줄도 모르고 그동안 바보같이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울음) 근데 말 시작부터 눈물이 나오냐.

편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계속 몰다 왔어요. 총회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노조 간부들은 해고하면서 단순 가담자들은 복귀하라고 회유책을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다 같이 고생했는데 누가 어그러면 다 함께 들어가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오 늘 위원장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돼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대요. 그 이야기 듣고 다 울었어요.

아, 그랬어요?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몸이 좀 아프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지금은 달팽이관에서 돌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그래요. 생활비도 없어서 조금 통장 해약하고 쓰고 남은 끝돈 끌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은 신경도 안 써요. 남편이 그런 지 몇 년째인지 몰라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혼하면 어떻겠냐고 그러셔요. 내가 너 하나 살게 해주지 못하겠냐고 하시면서요.(다시 울음) 회사일 도, 내 건강도, 가정생활도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살면서 이렇게 어

러운 적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다른 가족들은 어때요?

딸이 하나 있어요. 열세 살이에요. 애를 정말 어렵게 낳았어요. 제가 차궁이 약해서 임신하고 골짜없이 누워 있었어요. 8개월이 넘어서 입원했다가 9개월 만에 수술해서 낳았는데 아이가 정말 주먹만 했어요. 1.9킬로그램이어서 인큐베이터에서 20일 넘게 있었어요. 이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이를 제가 이혼하면 편모슬하에서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이에게 미안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남편은 일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고 3년 만에 그러니까 IMF 때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집에서 계속 놀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남편하고 같이 벌어도 살림을 꾸려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남편이 놀고 있으니 살림이 어땠겠어요. 남편한테 돈대 줄 테니까 차라리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보더라고요. 그것 따서 부동산 중개업 한 다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보태 주는 건 없어요. 제가 답답하면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미안해하시면서 그러서요. 너 간다면 나 못 잡는다. 하지만 조금만 참자, 참자.

시어머니랑 함께 사세요?

시어머니께서 입주일에 두세 번 기사 도우미로 일 나가세요. 당신 용돈이라도 버신다고 애들 힘든데 손 벌릴 수 없지 않냐. 하시면서요. 어머니도 힘드시는지 저 있으면 슬기라 하나 놓아 주지 않으세요. 상 다

남편은 집에서 놀아도
살거지 한 번 안 도와
줘요. 나 있는데 내가
의 살거지를 하나, 하
면서요.

차려서 어머니 진지 잠수세요, 그러면 그때 나오셔서 밥을 드세요. 청소도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 없으면 애 진사하고 밥해 주시고 그 러로 남편은 집에서 놀아도 살거지 한번 안 도와줘요. 너 있는데 내가 의 살거지를 하나, 하면서요. 딸은 제가 일하니까 세 살 때부터 어린이 집에 맡겼어요. 초등학교 때는 시어머니가 중간에 일하러 나가니까 점심을 주는 병과 후 학원에 맡겼어요. 요새는 크니까 4학년 때부터 혼자 자내고 있어요. 무섭다, 그러면서도 혼자 있어요. 열쇠 가지고 다니면서.

모두 다 고생이네요.

딸이 커서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대요. 엄마하고 산대요. 그래도 제가 애 봐줄 테니까 결혼하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결혼하자'주었는데 지금은 능력 있으면 혼자 살 아라, 그렇게 됐어요. 결혼해서 너무 고생하니까.

일하러 집안일 하라 쉽지 않았어요.

오후 4시부터 일이 시작돼서 정산까지 다하면 새벽 1시 20분에 일이 끝나요. 집에 가면 2시가 넘어요. 씻고 나면 3-4시가 돼요. 애 학교 보내고 남편 내보내려면 6-7시에는 일어나야 해요. 식구를 밥해 주고 나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장보고..... 너무 힘들 때는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잘 때도 있어요.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안 자면 저녁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이나 간신히 먹고 반찬 만들어 놓고 만날 하루 하루가 다담쳐 젓바퀴 돌듯이 가는 거예요. 토막잠을 자니까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항상 예민해져 있고요. 게다가 서비스직 종이라 고객 컴플레인(불만)이 많아서 항상 긴장돼 있었어요.

오후 4시부터 일이 시
작돼서 정산까지 다하
면 새벽 1시 20분에
일이 끝나요. 집에 가
면 2시가 넘어요. 씻고
나면 3-4시가 돼요.

휴에버에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처니 때는 전화교환원으로 7년 동안 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생계비를 벌려고 GS 슈퍼에 다녔죠. 거기 야채 코너에서 2년 넘게 일했는데 하리 병이 났어요. 쌀 포대랑 술박 스랑 무거운 것을 막 들고 나르고 그랬거든요. 실업수당 받으면서 치료도 하고 좀 쉬었는데 GS 슈퍼에서 다시 오려고. 근데 거기는 오전 근무에 40-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걸 받아 가지고는 네 식구가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일했던 언니가 까르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밤에 일하면 택시비랑 연장 수당까지 합해서 100만 원은 받으니까 외라. 해서 그 언니 소개로 들어갔어요. 까르푸에서 일하다가 2006년 4월에 휴에버로 넘어갔고, 그해 12월에 정식 오른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나요?

저는 수납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돈에 관련된 일을 처음 해봤서 돈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돈 세는 게 긴장돼요. 첫날 배우고 이틀날 배우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디파게산 마감할 때 나은 총매출 금액과 계산원이 받은 돈의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됐어요. 디파 나면 예워야 되거든요. 저는 소량 디파가 나면 배우지만 액수가 너무 많으면 못 매워요. 그렇게 매워 버리면 월급이 정말 적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은 수표 한 장이 없어져 도 그걸 매워요. 저는 빈 돈이 너무 많으면 디파를 피워요. 원인을 모 르죠. 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때는 돈 주다가 아차 싶어요. 돈이 더 나가 있어요. 잠깐만요. 고객님, 5천 원짜리를 짜야 하는데 1만 원짜 라를 썼어요. 디파를 띄우면 팀장 면담을 해야 하고 사유서도 써야 해

지금도 돈 세는 거 긴
장돼요. 디파 나면 매
워야 되거든요. 그렇
게 매워 버리면 월급이
정말 적어지잖아요.

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하고요. 숙구 경기가 있으면 포스계산 대를 2-9원 포스 앞은 귀가 떨어져 나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혼이 나 기요. 그러면 정말 불안해져요. 나, 오늘 디파 안 나는지 몰라, 하고요.

아예 코너에서 수납으로 옮기니까 어떤가요?

처음에는 포스에서 혼자 일하니까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종을 거러 생 각했어요. 제가 내성적인 편이라 조용히 제 일만 하면 좋았거든요. 근 데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4시부터 일하면 최소한 네 시간 후인 8시에는 저녁을 먹어야 해요. 그래야 또 일할 수 있잖아 요. 손님이 7시 반, 8시에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9시도 넘고 10시 도 넘어야 밥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직원 식당이 있는데 7시 반에 문을 닫아요. 저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 지고 다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일은 노조에 가입하고 한 달인가부 터는 두 시간 일하고 15분 쉬고 한 시간 밥 먹고 두 시간 일하고 15분 쉬고 이게 된 거예요. 아, 노조 가입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몰랐 던 거예요. 미련하게 일만 했어요. 노조 가입하고 안 사실인데 저희가 근무일이 일주일에 5일이거든요. 이것도 전에 까르푸가 주 50시간 일 사기고 월급도 제대로 안 줬서 노조가 싸워서 얻어 낸 거라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저희가 회사 안에서 일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때 그때 정해 준 곳에 가서 일해야 돼요. 일요일 저녁 정도면 2주 스케줄 이 나와야 다음 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평일에 쉬기 때문에 말하 고 놀 계획도 세우고 친척 집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고요.

노조에 가입하고 한
달인가부터는 두 시간
일하고 15분 쉬고 한
시간 밥 먹고 두 시간
일하고 15분 쉬고 이
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하는 곳도 출근 시간이 꽤서 봉투랑 돈 가방 다 들고 가서 저 포스 몇 번이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일하는 자리도 조장이 마음대로 해요. 예쁜 애는 가운데 주고 미운 애는 앞 포스나 뒷 포스 소랑 계산대 주고 화장실 갈 때도 인터폰으로 조장에게 화장실 갈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해요. 안 된다고 하면 못 가요.

홈버로 바뀌면서 변한 게 있나요?

청소 아줌마들이 엄청 많았어요. 보안·키트·주차 요원들도요. 계약 해지되고 용역까지 다 합하면 전국적으로 1,000여 명쯤 된다고 들었어요.

1,000여 명이냐요?

1,000명에는 뉴코아에서 일했던 저희 같은 수납 직원 350명도 포함되 어 있어요. 이랜드에서 수납 부서를 외주화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 자른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얼마나 고용 불안을 느꼈겠어요. 저희 파업에 참여하게 된 건 그런 위기의식을 함께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랜드에서 없는 자본으로 인수하다 보니까 그 회사를 힘없는 저희 같은 사람에게 다 전가해 버린 거예요. 인건비 줄이려고 사람을 자른 거예요. 휴게실 청소하는 아줌마들만 아니라 바다 청소하는 아줌마들 까지 줄여서 휴게실과 화장실에는 휴지가 쌓였고 비 오고 눈 오면 매장 바닥에 줄이 백백 그어지고 비닐봉투가 쌓여도 못 치우는 거예요.

바뀌고 나서 회식 씨치럼 포스에서 일하는 수납 직원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어요?

66

화장실 갈 때도 언제 온으로 화장실에 화장실 갈 수 있냐고 물어 봐야 해요. 안 된다고 하면 못 가요.

77

없었어요. 홈에버는 뿔으라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너희 힘이 다 빠지면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요. 파업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2월 중순부터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던 학생들이 개강하면서 다 빠져나갔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30여 명 되거든요. 그러면 빠져 나간 자리에 인원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용역으로 돌리려고 인원을 안 뽑았던 거예요. 용역 전환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파업하고이 있었어요?

저희는 일단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원이 부족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눈썹 칠하고 입술 칠하는 색 까지 체크했어요.

입술 칠하는 색까지 검사했다고요?

사도우 같은 것도 브라운 계열로 해라. 입술은 무조건 빨간색으로 칠 해라. 그랬어요. 만약 입술을 안 발랐거나 다른 색이면 화장이나 수납 탭장이 와서 막 칠해 줘요. 빨간색으로 칠해야 이가 하얘 보이고 옷은 모습이 예뻐 보인단대서요. 박성수 회장이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라 는 말도 있었어요. 양말도 '키비' 신어라. 귀걸이 팔찌는 무조건 빨라. 그 래도 까르푸 때는 조그만 귀걸이는 했거든요. 그러고는 아침에 출근 해서 거울보고 인사 연습을 하래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얼 도와 드릴까요?' 등등을 웃으면서 하래요. 여지로 하려면 얼굴에 정련이 일 어요. 거기가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체크까지 하래요. 머릿도

66

입술은 무조건 빨간색 으로 칠해라. 그랬어 요. 빨간색으로 칠해 야 이가 하얘 보이고 옷은 모습이 예뻐 보 인단대서요.

77

잔머리가 나오면 애네들이 무스를 머리에 발라 줘요. 그런 게 정말 미 처 버리겠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홈에버로 바뀐 뒤로 모니터링제도가 강화되었다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고객으로 가장해서 우리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봉투 필요하십니까? 포인트 카드 있으십니까?" 고객님, 얼마입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거스름돈은 여기 있습니다. 고 객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 인사말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돼요. 인제 어느 때 걸릴지 몰라요. 계산기에서 영수증을 뽑으면 고객수가 나와요. 하루에 많으면 400명쯤, 적으면 280명 정도 되요. 그 정도 받 으려면 여덟 시간 정도 서서 긴장하며 고객들 항의를 들으면서, 두세 사람 묶을 혼자 감당하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면서 일해 야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친절이 나오겠냐고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날. 바쁘다 보면 기제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하나씩 배먹을 수도 있잖 아요. 안 웃었다. 봉투 한 손으로 찼다, 귀걸이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소랑 계산대 가면 고객이 더 많아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한 개 두 개 사는 사람들한테 일일이요. 집에 갈 때 되면 목 소리가 잠겨 버려요. 그중에 하나라도 모니터링 요원한테 걸리면 점 프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점프 교육이라니요?

지하 공간에 30명씩 기워 놓고 친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심한 경우 는 매장 안에 보안들이 서 있는 곳에서 창피하게 세 시간 동안 인사가 게 만들이요. 어떤 연나는 열 번 이상 하고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

66

여섯 시간 15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했 어요. 화장실도 못 가 고 저녁밥도 못 먹고 일했어요. 다리가 후 통통腫리고 어지럽 다리고요.

77

그런 상황에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가고 조장은 열거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그랬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회사 매니 저들에게 가서 항의하십시오, 저희한테 그러지 마시고, 고객들이 그 진도 안 해요.

일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수납 직원이 원래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수납 탭장이 한번은 그래요. 상암점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수납 직 원이 140명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고객도 장상으로 돌아가고 휴 식도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70-80명밖에 안 되니까 엄청 힘들죠. 까르푸 때는 그래도 최소한 110여 명은 있었어요. 까르푸는 인원을 뿔으려고 했지만 일이 어려워 입사 원서 내는 사람들이 별로

1부 다시로온 불만, 투정이 만개했다 25

66

회사 사람들이 고객으 로 가장해서 우리 일 하는 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77

홈에버로 바뀐 뒤 한층 더 강화
된다는 서비스 모니터링 제시
문. CF에서 관찰 학습하는 진경
사: 서비스는 어떤을 상상하면 (사
가 감시의 고통 속에서 영하는
진정한 공포가 대두된다.)
④이벤드앨빈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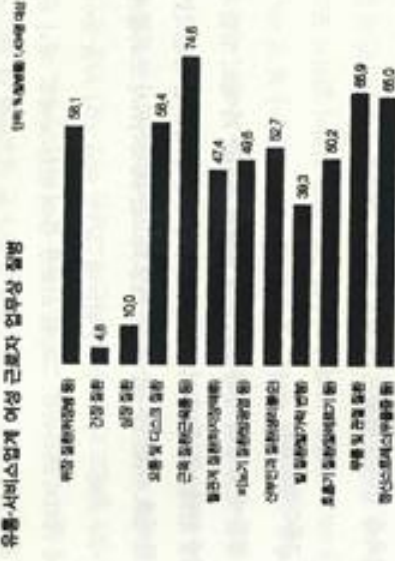
대요 이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홈에버로 바뀌면서 그런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나를 기게 취급하는구나, 사람으로 대하지 않
는구나, 무지에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바뀌고는 화와 닮는
거예요. 비상수 화장은 직원을 가족으로, 사랑으로 대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직원 속에 나는 있는가, 너무 피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그런 배신감이 느껴질 때 가장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작년 겨울에 엄청 추웠어요. 문가라서 바람이 엄청 들어오는데 회
사에서는 블라우스에 조끼만 입고 일하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스웨터
도 없이 얼얼할 뻔해서 일했어요. 여자들은 아이 낳고부터 몸이 차가워
지면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포스 닫고 집에 가
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는 그런 곳 처음 왔어요. 스웨터도 안 주
는 데는 홈에버가 처음이에요.

그 정도였어요?

유통·서비스업계 여성 근로자 업무상 질병



주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시간 신체로 일해야 하는 유통·서비스업계의 경우, 특성상 대체
로 호흡기·신경계 질환을 앓았고, 특히 계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경우에는 모두 병발성
질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체력으로 볼 것을 하는 노동 조건이 반영된다는 데가다.
자료 출처: 프레스간, 2007.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말에 경기라도 있으면 소음이 장난 아니예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일할 때도 혼이 빠져서 일을 해요. 집에 갈 때는 멍
해져서 돌아가요.

지금 귀가 아픈 게 그거 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것도 영향이 있었대요. 일할 때 잠시 어질러다가 말고 어질러다가
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제 다 이 병이 있어서였
는데 심하지 않으니깐 그냥 지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그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대요. 달팽이판에서 돌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헬멧순환이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스트레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은 제가 안구건조
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
서 일하니깐 안구건조증이 오죠. 그러더라고요. 어, 저 일하는 데를 아
세요. 하니까 보험카드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거기 가면 한두 시간 있
기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웃음)

홈에버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어요? 수납도 있고 또.....

수납, 농산, 고객만족센터, 리빙관 등이 있어요. 2층 리빙관에는 홈에
버에서 만들어 놓은 이불, 침대, 목욕 물품, 주방 용품들이 있어요. 홈
에버에서 자기들 물건 넣을 자리를 만드느라 기존의 물품들을 다 줄
여 버린 거예요. 정작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종류를 너무 많이 줄였어요. 저희들이 봐도 살 게 없더라고요.
스케치북 같은 경우도 달랑 한 종류만 있어요. 묶음도 여러 종류, 매수
도 여러 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색종이, 풀, 연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물건을 안 사요. 동네 문방구에 오하려
문구가 더 많아요. 모든 물건을 그런 식으로 다 줄여 버리니까 고객들
이 예전에 내가 사던 물건인데 왜 없냐. 그러면서 컴플레인 걸어요.
예, 물건 안 갖다 주냐. 그러요.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하는 건
데 저희들이 다 받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죠. 바코드 안 돼도 우리 탓,
물건 없어도 우리 탓, 가격표가 없어도 우리 탓. 우리는 계산원으로 일
한 잘못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찍는 기계라고 해요. 찍세, 일명 찍순
이. 찍는 죄밖에 없는데 그 모든 욕을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우리는 찍는 기계라고
해요. 찍세, 일명 찍순
이. 찍는 죄밖에 없는
데 그 모든 욕을 우리
가 다 먹는 거예요.

손님 중에 힘든 손님 있었어요?

바코드 같은 게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겹으로 찍을
때는 1만2,000원인데 매장 앞에 붙어 있는 바코드에는 1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제 다 저희 잘못이 되는 거예요. 너네 똑 바로
못해! 그렇게 해서 돈 벌어 먹어, 그래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전 까르루 때는 물리가 있어서 직접 해줬는
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격을 확인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
면 손님이 니들이 잘못 했는데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미친
년 복바로 해, 아, 재수 없어, 그렇게 욕하고 가요. 황당해요. 완전히
'킹 오브 진상'이에요. 소량 계산대에서 일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손
님이 소량 계산대로 오려면 물건이 다섯 개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
런데 카트에 물건을 잔뜩 실은 고객이 그 줄에서 서 있어요. 여기는 소량
계산대입니다.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나 줄 서서 여기
까지 왔는데 그냥 해! 그래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다른 고객님이 오
래 기다리시니까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나 잘해! 그러는 거에
요. 모녀가 와서 그렇게 해 대는데 정말 너무 심할 때는 눈물부터 나와
요. 예전에는 포스 안에 포그리고 있어서 올렸어요. 제가 욕을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잘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욕이 나와요. 물론 속으로
요. 진짜로 하면 큰일 나요.(웃음) 제가 이런 식으로 살 줄 몰랐고 이런
식으로 욕할 줄도 몰랐어요.

손님들이 그렇게 심한 욕을 해요?

그래도 저희 수납제는 약간 편이에요. 고객만족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들은 더 심하죠. 계산원으로 일하다가 강제로 고객센터로 간 어린 직

예전에는 포스 안에 포
그리고 있어서 올렸어
요. 제가 욕을 할 줄 몰
랐는데 지금은 몰래요.



조직원들이 피집 과정에서 발견하는 유익한 대안으로 자신의 노동·직무 조건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열망·불만을 표시한다. 이른바 '일감 인상'은 단지 이런 불만을 수로 표현한 데 불과한 것일 뿐이다. ©인용연은 황석상 김용옥

원이 있었어요. 한번은 그 직원이 번호를 누르며 몇 번 고객님,어서 오십시오, 무얼 도와드릴까요, 말하는 순간 뒤로 머리를 뒹 넘어앉은 거예요. 손님이 양복을 하나 샀는데 자신의 치수라고 다르다고 그 직원 머리 위에다 집어던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우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일이나서 웃으면서 고객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대요. 안 웃으면 더 난리가 나니까. 장사 똑바로 해야 될 것이냐, x발 x발,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직원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안과장이 와 가지고 손님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면서 무조건 그 직원한테 면박을 줬대요.

보안 과장이 오히려 그 직원에게 면박을 줬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객센터가 컴플레인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곳 이잖아요. 거기서는 손님들한테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컴플레인 고객이 자신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에 아홉은 너 하고 이야기해 봤자 필요 없다, 뒷사람 나오라고 한대요. 아쩔 수 없이 뒷사람을 부르면 메니저는 막 화를 낸대요. 왜 네 선에서 해결 못 하냐, 그러면서요.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왜 해결 하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른 직원한테 환불해 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하면서 고객 앞에서 굉장히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 직원이 다음에 그런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환불을 해주면 누가 마음대로 환불해 주라고 했냐면서 또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객센터 직원들은 손님과 매니저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고객센터 직원들은 집에서 쉬고 있을 때도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해요. 손님이 그 아가씨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회사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고 싶는데 다음날 가면 더 힘들어지니까 할 수 없이 받는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일장이 돼 버리네요.

그래요. 그나마 회사로 오면 편찮은데 근무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물건에 붙어 있는 보안 띠를 안 떼고 간 고객 때문에 그 집까지 가서 때 온 적이 있어요. 내 시간 들어서, 내 차비 들여서 갔다 와요.

명절 때는 주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야 하잖아요. 근데 못 쉬게 연장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선물세트가 보통 15킬로그램 정도 하는데 그것을 주부들이 다 나르고 그랬어요. 명절 때는 물건이 많이 나가는 만큼 아르바이트 생들을 보충해야 하는데 있는 인원으로 하려니까 직원들만 죽어나요. 그러니까 허리 병이 많아요. 그렇게 일해도 까르푸 때는 쉼터 연장 근무 수당까지 안 주려고 한 거예요. 인터폰 들어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데 연장 근무 수당까지 배면으면 우리 진짜 일 못한다, 하고 포스를 닫고 집으로 와 버렸어요. 그래도 쉼 모르는 비보 같은 직원들은 남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회사에서 연장 근무 수당을 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일이 힘든 것은 그렇다 쳐요. 근데 저희가 정말 건넬 수 없는 것은 차별이지요. 몰라요. 박성수 회장이 신년에 문자를 보냈는데 정규직에게만 보내고 비정규직에게는 보내지 않았어요.

문자를 정규직에게만 보냈다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유치해요. 회사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곳에도 정규직만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정규직한테만 아이디어를 줬어요. 수납 부서도 정규직들은 수납 수당이 있어요. 9,000원인가, 1만 원인가. 똑같이 일해도 정규직이 보너스 받으면 70-80만 원 차이가 나요. 물론 정규직들도 전환 배치를 회사가 마음대로 해 버려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순천으로 가라, 울산으로 가라, 그래요. 남자들은 갈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갈 수 있겠어요? 가정도 다 있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저는 아, 오늘도

명절 때는 주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야 하잖아요. 근데 못 쉬게 연장 근무를 하는 거예요.

무사히 잘 들어왔구나, 하고요.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는 기도를 해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편히 하루 일 끝마치고 잘 돌아오기예요. 너무 많은 일이 휴예버에서 벌어지니까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팔이 자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팔이 자는 모습을 공부해도 이따다 세력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1년 있으면 직장에서 나가야 되고, 10년 동안 일하다 보면 일고여덟 번은 직장을 옮겨야 할 텐데. 아이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정말 슬퍼해요. 아, 아이들이라도 꿈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런 세상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싸움이 어떻게 될 것 같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싸움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약간의 우울증이 생겼어요. 슬럼프가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너무 힘든 사람들은 기간이 휴식을 취하기도 해요. 저도 귀 아프고 몸이 아플 때는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시 참여하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긴 싸움을 저희가 버티는 이유는 다시는 다시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했지만 안 이상 '변화하지 않은 휴예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남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일해서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요.

박성수 회장이 신년에 문자를 보냈는데 정규직에게만 보내고 비정규직에게는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선택이 아니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차별과 배제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여성은 오랫동안 '시민이 아니거나' '인간이 아니거나' 혹은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일 뿐이었다. 여성이 '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논쟁거리였던 것도, 프랑크스혁명 당시 남성과 동등한 여성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다 사형당한 한 여성 철학자 올랭프 드 구즈의 사례도, '형과 장미'로 대변되는 '여덟 시간 노동'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도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싸움 가운데 일어난 일부분일 뿐이다.

내게도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파견직(당시에는 그런 이들도 몰랐대)이라는 이름으로 일해야 했던 기억이 있다. 회사가 어떤 업무를 파견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하겠다고 선택한 순간 나에게 고용 형태와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선택권은 없었다. 경쟁과 회사에 대한 충성을 통해 — 나와 마찬가지로 — 정규직이 된 어느 동료도 파견직, 계약직 직원들에게 '억울하면 저들도 정규직 하면 되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규직(상시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이미 하나의 복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성별, 고용 형태, 학력 이런 것들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자본의 방식을 노동자인 우리가 반복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약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통한 나의 존재를 키우는 방식이었다. 결국 회사는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우리 부서를 외주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갑자기 사직했던 황당한 상황을 끝으로 나의 직장 생활도 끝이 났다. 이런 기억들은 나를 여성 노동운동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여성 노동운동을 해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고민은 여성 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여성 노동운동 단체의 투쟁 결과물로 1988년 고용평등법을 만들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법을 만들고 개선하다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저임금과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비정규직의 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 가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 현실(여성 직종의 외주화나 경기 불황일 때면 여성 노동자 우선 해고로 나타나기 마련)은 여전히 생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1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고려한다면 기업별 노조라는 틀은 한계가 있었다. 또 노조가 생긴다 하더라도 ('착장 내 성희롱 사건' 여성 직군 외주화) 같은 여성 노동자 관련 사안은 번번이 무시되거나, 때로는 (이

일쑤였다. 노조, 혹은 노동운동 내에서도 대체로 여성-노동자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거다.

그 무렵 이랜드(일반노조특히 휴에버트 바편 '구 까로푸' 노조)를 알게 되었다. 노조의 이름에 '일반'이란 표현이 들어간 게 흥미로웠다. 유통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직·간접)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여기는 90퍼센트 가량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 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여성 노동자라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일반노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즉 이랜드그룹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노조'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고 그들(노조 간부들)은 이 상황을 피해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배제'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월드컴본회가 건설된 지 꼭 한 달 만에 이랜드·뉴코아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라고는 생전 처음인 조합원 언니들에게 투쟁기를 부르고 팔뚝질하는 데 대한 이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살아나는 눈빛으로,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획득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갔다. 여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명시와 약입에 치이며 살아왔던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간이라는 자각의 경험을 평생 언제 또 하겠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는 때때로 언니들이 매장 진입 투쟁 중 전경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정 주들에게 얻어맞고 피투성으로 머리를 잡혀 끌려갈 때, 텐트라도

거점을 만들었다며 땀으로 볼때포에 맞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 할 때, 그만큼 분노와 증오가 쌓이는 것을 발견할 때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자'란 구호를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의 경험보다 더 힘들어진 '현장에서'의 노동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기계화시킬 노동이, 새롭게 '인간'으로 자각된 조합원 언니들에게 어떤 양날의 칼이 되어 들어갈까 마음이 무거웠다.

투쟁한 후 돌아간 그 자리에서, 언니들은 이전과 같이 정신없이 일하고 이 사회가 필요할 것이라며 때를어대는 물건들과 아이들 학비와 간식과 용돈 등등을 소비하는 것에 자신의 임금을 '보태며'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 고용 안정만 되면 파업 투쟁 이후의 삶은 파업 투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으로 다른 삶을 꿈꾸며 모색해 보는 삶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 노동 시장에 좀 더 깊이 '포섭'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스스로 행복한 '자발적 이탈'을 고민하게 하는 노동운동.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더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대안적 노동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직장 가정 할 것 없이 아직도 이등 시민이자 불안정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운동이라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낼 대안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를 내부의 다양한 존재 조건은 같

사노라면 먼 훗날, 그 사람들 속에서 동지들의 깊은 사랑과 온몸으로 부딪쳐 투쟁하던 오늘의 이 날들을 자랑스럽고 제일 소중한 삶의 한 페이지로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제대로 된 정상적인 길로 돌아서게 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 누구보다도 내 자신한테 떳떳하고 당당한 한 인간이 되어, 어느 곳 한 가운데 서서 흐뭇하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들,

마주보면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아파 옵니다.

내 소중한 가족과 같이 따뜻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동지들의 사랑이 오늘도 커다란 촛불과 함께 타오른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434일 뉴코아 투쟁을 돌아보며...

김수영_뉴코아노동조합 간부

나는 간부다.

뉴코아 노동조합의 선전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간부다.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다 노동조합 간부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간부의 권유, 숙원말로 '고임'에 넘어가 발을 담그게 되고 나또한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여자가 어떻게 그런 험한 일을 하냐고,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고생길이 될 것

은 노동자이거나 여성이면서도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나더라도 같은 여직원들이 쏠아 내는 뒷담화에 더 상치받고,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비난도 같은 회사의 비혼-여성-노동자한테서 더 거세기 심상인 것이다. 이랜드 파업을 보며 '나도 비정규직이고 한국 사회 여성이 대부분 그렇고 살고 있는데 왜 이랜드만 난리냐고 흥분했던 출근길 어느 여성 노동자의 말이,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속세로도 다 가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기존의 노동은 아직 답하지 못했다. 실업/비실업 여성, 정규/비정규직 여성, 소규모 영세업체의 여성 노동자, 주변부 노동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고행 여성 노동자, 여성 자원 봉사자로 끊임없이 자리바꿈을 해야 하는 여성-노동자의 조건에 맞도록 어떻게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를 확장할 진지에 대해서 말이다. 투쟁은 여전히 개별 사업장 안에 갇힌 채, 그것도 '고용 보장'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장과 고용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노동의 귀환'이라는, 노동운동의 근본 물음에 제대로 답할 운동은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투쟁과 연대를 확장하는, 생활권에 기반한 대안 노동운동이 그 실마리는 아닐까. 노동시장 인파를 둘러싼 타격거리기 마련인 여성-노동자들의 치지에 걸맞게 노동조합-지역운동-사회단체 등이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면, 생활권이 포괄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해 '살 자체를 다르게 구성하는 운동'이 비로소 가능해지지 않을까.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르게 살 것을 고민하는 운동을 만들어가는 것.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 것이다.



투쟁으로 저울을 나눈 사람들

이 자명한 그 길을 왜 자진해서 가려 하냐고 묻는다. 나도 노동자다. 자본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이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조금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할 뿐 다른 이유는 없다.



“이명박 장로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언제부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정착한 이름들.

굳이 따지자면 나는 정규직노동자다. 뉴코아 노동조합은 유니온샵의 형태를 갖고 있다.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것, 그것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다. 뉴코아에 입사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뉴코아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조합이다. 물론 뉴코아도 어느 사업장에나 있을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존재한다. 다만 그런 갈등구조는 사람과 사람사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사소



동지가 있어 버텼던 강남 농성, 함께 해서 즐겨왔던 밋속의 투쟁

한 것이 대부분이고 보통은 그냥 웃으면서 넘기곤 한다.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라 그런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왜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함께 했는가를 너무나 의아해 하며 궁금해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말로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놔야 뿐, 그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런 그들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 때문에 10년을 넘게 일해 온 일터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 있었다. 바로 우리의 동료들이...

“투쟁”, 내 가족을 위해 앞만 보며 일만해 온 이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단어다.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앞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

뉴코아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언니들 또한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비정규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들은 정규직들의 투쟁에 함께 하지 않았다.

이유는 조합원도 아닐뿐더러 그들에게 정규직은 같이 일하는 동료는 되어도 동지는 아니었고 정규직들의 문제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동지는 아니지만 동료로서 파업투쟁하고 있는 정규직들을 격정하며 ‘잘 되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비단 비정규직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 이들의 지리가 위태로워지면 다음은 안 봐도 뻔한 드라마였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

키고 또한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입사 이래 처음으로 손을 잡고 투쟁을 외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 동료에서 차츰 동지가 되어 갔다.

“아름다운 투쟁”, 지난 2007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코아, 이랜드일반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투쟁, 사람들은 우리의 투쟁을 정규직이 함께 투쟁한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투쟁이라 부르며 이슈화 시켰다. 2007년은 그야말로 투쟁으로 시작해 투쟁으로 마무리한 해였다.

년 초부터 회사는 계산대를 외주화 시키겠다고 노동조합에 협의도 아닌 업포를 놓았다.

계산업무를 계산원이 아닌 판매사원에게 전가하겠다는 PDA를 들여놓기 시작했고, 이랜드 자본은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인 서비스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주 일터인 계산업무를 기체가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자리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터를 지키기 위해 기제(이랜드)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난생처음 노동자 같은 생활을 해봤다. 나에게 434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투쟁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당면 ‘강남점 점거 농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이 한곳에 모여 함께했던 그때야말로 정말 재미있고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경찰병력이 침투한다고 모였던 강남 농성장에서의 마지막 밤, 간부이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다음 투쟁 준비를 위해



노무현 정권 퇴진도 외쳐봤지만...

빠져나와야 했던 그날 밤, 전경버스에 연행되어가는 조합원들을 보며 이를 악물고 반드시 승리해서 이랜드 자본을 무를 꿀게 만들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때, 나는 정부와 이랜드자본이 행하고 있는 행태에 치를 떨었다.

왜 노동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왜 노동자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나!! 우리의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분노하면서도 무력한 자신을 원망하며 한없이 약한 인간, 아니 노동자라는 신분에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들이 노동조합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은 절대 동지들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긴 투쟁에 함께했던 비정규 조합원들은 모두 36명이었다.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비정규직의 자리로 돌려보낸다. 그 비정규직의 자리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설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민주화를 외치고 노동해방을 부르짖지만 투쟁을 하다보면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왔던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하나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정부와 자본가의 제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요즘은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을 보고 있으면 그 순진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노동해방이라는 것이 꼭 이룰 수 없는 꿈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난 요즘 우리 조합원들에게서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투쟁에 함께 했던 수많은 연대동지들에게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투쟁을 이렇게 끝내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과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뉴코아 노동조합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말도 함께 전하고 싶다.

뉴코아 노동조합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랜드 자본을 향한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다.

그 분노가 살아있는 한 노동자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34일이라는 기나긴 투쟁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얻기도 했다. 투쟁초기에 이랜드 자본에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우리가 얻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뉴코아 노동조합이 투쟁을 이렇게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뉴코아만의 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이다. 주변에서는 뉴코아의 타결소식에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타결할 것이었으면 예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는 질타는 정말 한겨울의 칼바람보다도 매섭게 가슴을 후렸다. 기나긴 투쟁에 지치고 생활고에 지치고 마음은 끝까지 투쟁을 외치지만 생계를 위해 투쟁에서 빠져야만 했던 조합원들을 바라보며 대상이 있는 싸움이기에 언젠가는 결말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말로 연명했던 투쟁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뉴코아 노동조합은 피눈물을 흘리며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난생 처음으로 당하는 손배 기압류와 해고 통보, 투쟁비는 갈수록 바닥을 보이고 그나마 교봉비 명목으로 지급했으면 얼마 되지 않는 것마저도 지금이 어려워졌을 때 더 이상 투쟁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다.

해고간부 18명, 뉴코아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서든 희생자는 최대한 줄이고 투쟁에 남아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원래 일했던 곳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랜드 자본은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협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추가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랜드 자본의 요구사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투쟁 초기에 노동조합은 비정규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다. '동지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노동조합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설 뉴코아 노동조합을 기대해 주길...

투쟁 에피소드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

파업중 노동조합 간부가 쓴 글

노동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선수라는 사람들은 말한다.

투쟁은 재밌게, 신나게, 박세게 하라고, 뉴코아노조는 투쟁 초기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서 이랜드 자본이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비스 사업장 최초로 영입매장을 점거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점거농성이 시작되고 초기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투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조합원들이 지루해 하지 않게 투쟁프로그램을 짜는 일이었다.

투쟁은 재밌게 하라는 선수들의 조언을 받아 그동안 갈고 닦은, TV에서 보았던 오락프로그램을 토대로 나름 이것저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었다.

노숙자도 아닌 이들이 난생처음 박스를 아불삼아 깔고 쉰거두었던 옷가지들을 덮고, 날이 밝으면 무언가를 구매하기위해 찾아온 고객들로 붐비던 영